

청년생활 2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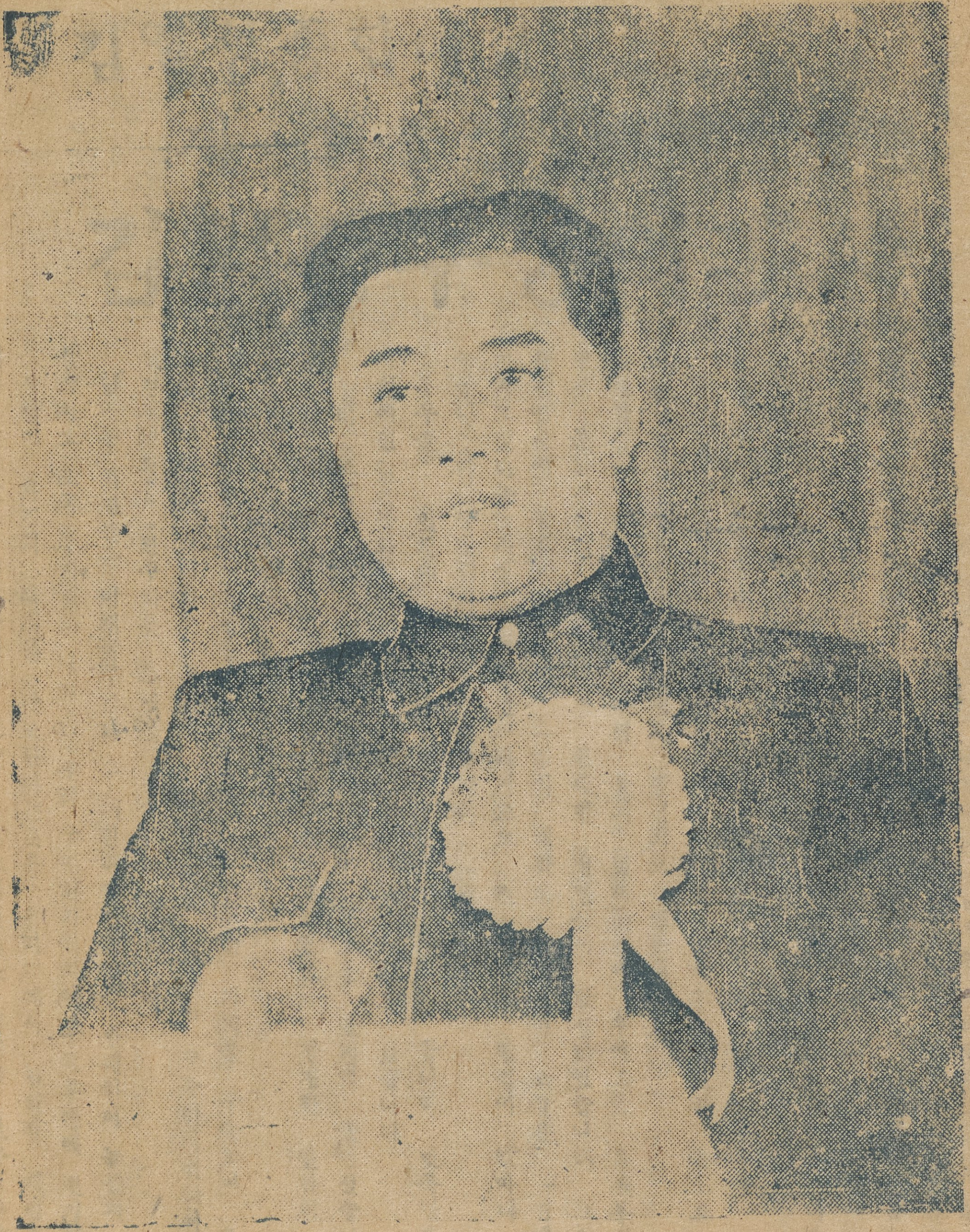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청년생활

제三권 제二호 (통권제二五호)

표지 홍구천
컷·삽화 명영락

목차



김 일 성 종합대학 제一회 졸업식에서 훈사하시는

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성장군

김일성종합대학
제一회졸업식에서진술한
김일성수상의훈사

(일동 총기립 열렬한 박수속에 등단)

동무들! 오늘 우리공화국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귀대학이 조국과 인민의 앞에 첫졸업생을 내어놓게 된데 대하여 나는 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우리의 첫 민족간부들을 양성하여준 총장 부총장 교직원 일동과 특히 우리의 민족간부들을 양성하여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고있는 쏘련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동시에 나는 四년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최고 학부를 마추고 민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실제사업으로 나아가게되는 졸업생 여러분들과 또는 우리조국의 장래 간부들인 전체 대학생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동무들이 아시는바와같이 귀 종합대학은 해방후 인민의 손으로 건설되어 우리조국과 인민과함께 장성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창립하던 시기로부터 불과 몇해동안에 우리조국 북반부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각분야에서 위대한 전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귀 대학 창립당시에 공화국북반부에 一개의 대학도 없던것이 오늘은 一五개의 대학을 가지고있다는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이 변혁과 발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긍정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박수)

동무들! 인제에 대한 공화국의 요망은 지극히 큽니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있어 공화국 정부는 최대의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자기의 력사발전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총궐기하였으며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에 억센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민주조국의 튼튼한 기지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전도와 장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위하여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와 그 괴뢰리승만도당을 반대하여 놈들의 박해와 학살을 물리치고 조국을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구원하기위하여 구국투쟁에 궐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력사를 창조한다는것은 우리에게서 일반적 개념으로 된것이아니라 실생활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력사발전에 있어 통



일된 민주주의 새 조국을 건설하는 장엄한 력사를 창조하고 있는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는 실천에서 옳은 길을 발견하고 강구하였다고하여서 그 력사는 자동적으로 순조로이 자기의 목표대로 발전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옳은 길을 바루 걸어가게 하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그 로선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할줄 알며 그를 옹호하며 그를 위하여 투쟁할수있는 인재가 필요한것입니다

위대한 쏘련인민과 전세계 근로인민의 수령이시며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스승이시고 우리민족의 은인이신 쓰딸린대원수께서는 일찌기 「모든것은 인재가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쏘련군대의 력사적 승리에 의하여 강도일본제국주의의 철쇄로부터 해방된 우리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련의 형제적 원조와함께 그의 고귀한 경험을 섭취하여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옳은 유일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전세계 선진적 인민들과함께 자본주의의암흑과 파멸의길을 거부하고 광명과 건설의 새로운 사회로 향할수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로동계급을 위시하여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를 보다높은 단계로 발전시킬수있는 새로운 형태 인민의나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튼튼히 건설하는길에 들어섰으며 이길이야말로 세계력사발전과정에있어 또는 우리민족해방투쟁의 력사에 비추어 실천에서 검열된 유일한 옳은 길입니다 (박수)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찬란한 승리속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벌써 이 길이 정당한가 정당치 못한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 유일한 정당한 길을 어떻게 보장하며 촉진하며 더 큰 승리를 어떻게 신속하게 전취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중대한 과업중의 하나가 곧 인재의 양성인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각 방면에 충실한 민족간부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은 공화국의 앞에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인민경제발전에 수요되는 유능한 인재를 보장할수있도록 심심한 주의를 돌리고있으며 각 전문 대학들의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에있어 선진국가의 수준에 오르도록 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조국의 북반부에서 일제시에는 하나도 없었던 一五개대학이 신설되어 만여명의· 근로인민들의 자제가 선진과학 기술을 배우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히 된일이 아닙니다

인민들의 열성적 참가와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교육일군들의 노력으로써 오늘의 성과가 보장된것입니다

특히 귀 대학은 공화국이 가지고있는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로동자 농민들을 위시하여 기술자 사무원들의 성의와 노력으로 친히 그들의 손으로 첫번으로 지어진 근로인민의 대학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로 인하여 우리조선에는 로숙한 민족간부가 많지못하며 거의 없었던 형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인민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첫날부터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의 빈곤과 인재에대한 곤난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은 이러한 환경속에 있었던 우리민족에게는 남보다 유달리 더 지급한 요구로 되지않을수 없습니다

장구한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더니만치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민족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한 일본제국주의적 사상잔재는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데 중대한 지장으로 되는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과 분리될수없는 문제로 되는것이며 따라서 인민속에서 나온 새인재의 양성은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입니다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위시하여 북반부에서 실시한 모든 민주개혁들의 성과와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의 인민경제계획의 완수 새 二개년계획의 실시로인하여 북반부의 인민생활에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으며 산업발전의 모든 조건들이 변갱되고 새 환경이 조성되면 될수록 새로운 지도방법과 새로운 사업방식이 ·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구된 산업과 새로 건설된 기업소들은 거대한 잠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위력을 원만히 리용하고 있지못하는 형편이며 따라서 이에 건설하여 놓은 고귀한 시설과 기계 아그레가트의 최대의 실효를 연기위하여 필요한 현대 과학과 기술수준에서 생산행정을 조직할수있는 인재의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산업건설의 경험은 생산기술을 소유한 인재와 생산기술은 소유하고 기계에 능숙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서만 산업의 성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인재에대한 기근을 성과있게 퇴치하여야하며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진시키며 기술을 운전할만한 인재를 충분하게 가지며 공업 농업 운수 군대 문화 기타 모든 부문에 수많은 인재를 가져야할것입니다

오늘 공화국에있어 인재야말로 세상에 더 비할데없는 가장 값있는 결정적인 자원인것입니다

졸업생 동무들!

동무들은 이제 완전한 대학과정을 필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공화국에 유일한 종합대학의 영예로운 첫졸업생으로 인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교문을 나서는것입니다

동무들은 인민과 밀접하게 련결되어있고 신념과 진심으로써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새로운 인민적 인테리겐챠로서 남보다 먼저 선진적과학의 리론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민족간부들입니다

그러나 동무들이 잊지말아야할것은 곧 동무들이 여지서 배운것은 다만 첫단련을 받았음에 불과하다는 그것입니다 인재의 단련에 있어 학교는 다만 준비계단이며 진정한 단련은 실지 사업에 있어서 학교밖에서 난관과 투쟁하는가운데서 난관을 극복하는가운데서 받는다는것입니다

동무들은 항상 실제 사업에서 열성과 확신으로써 꾸준히 배워야합니다

조국과 인민을위한 열성에 불타는 애국적 헌신성과 완강한 전인성은 한곳에 정체하지않으며 전진을 멈추지않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동무들은 물리 수학의 선진적 리론을 높은 수준에서 습득하였습니다

이부문에 유능한 전문가로서 준비되어 있으며 또 장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동시에 충실한 맑쓰―레닌주의자가 되어야하며 자기 조국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같이하는 자라야하며 사회발전법칙을 아는자가 되며 이 법칙을 리용할줄 아는자가되며 국가 정치 지도에 열성적 참가자가 되려고 힘쓰는자가 되어야합니다

쓰딸린대원수가 불쉐위끼 기술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동무들은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각 과학 전문에 종사하는 불쉐위끼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아야할 한개의 과학부문이있다 그것은 즉 사회에대한 사회발전 법칙에대한 사회주의전설발전법칙에대한 공산주의 승리에대한 맑쓰―레닌주의의 과학이다」

나는 동무들이 국가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맑쓰―레닌주의 기본을 통과하였다는데 대하여 만족히게 여기는바 동무들은 그것을 실지에 리용할줄아는 사람이 되어야할것을 기대합니다

동무들! 동무들은 조선의 근로인민의 사랑하는 자제이며 국가와 인민이 기대하는 새선진 간부입니다

오늘 조선의 근로인민들은 위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련의 인민들 및 모든 인민민주의국가 인민들과함께 자본가만이 국가를 통치할수있고 관리할수있다고한 종래의 부르죠아지들의 망언을 훌륭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이것을 더 철저하게 분쇄하고 근로인민만이 가장 잘 국가를 관리한다는것을 우리조국의 환경에서 또한번 시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이 동무들의 두어깨에 부과한 영예스러운 임무를 항상 인민의 선두에서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영예로운 사업에로 나갈것입니다

이미 말한바와같이 이 사업이 가진 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민족간부의 대렬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업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전문대학에 진실하고 건장한 전투적 기풍을 수립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조국이 처하여있는 정세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항상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합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그 괴뢰리승만도당들은 최후 발악적으로 전쟁도발과 내란도발을 흉책하고있습니다 전조선인민들은 놈들의 흉계를 타도하는 투쟁에 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즉응할수있는 긴장된 태세와 준비된 대오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인민적 국가에 적대적 경향을 가진 발동의 원천이 우리조국 남반부에 있다는것을 항상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시시 각각으로 경각성을 가일층 높이며 적들을 적발폭로하여야하며 우리는 인민적 국가의 원쑤들에대한 증오심과 인민민주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꾸준히 인민들속에 배양하여야하며 조국의통일과 독립을 저해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제거하고 푸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오늘 조국과 인민이 걸은 승리는 지극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앞에 놓여진 사업에 비하면 일보에 지나지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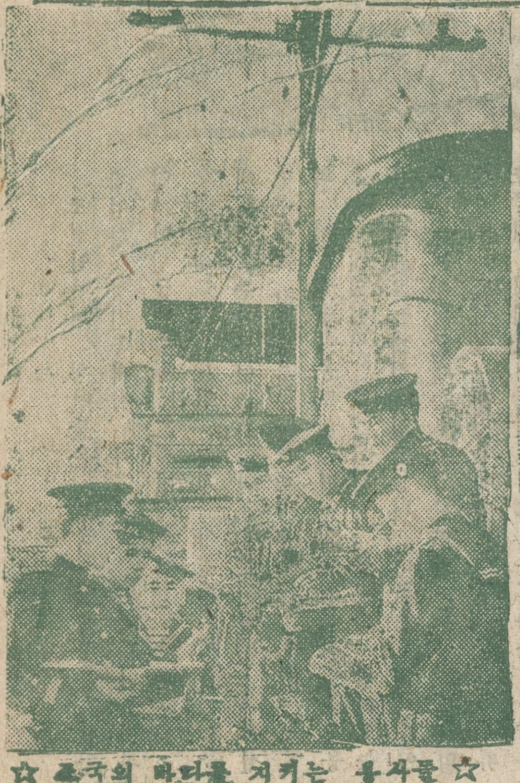
우리의 앞에는 승리의 매걸음마다 극복하여야할 난관과 곤난에 있습니다

우리는 난관을 겁내지않으며 난관을 회피하지않을뿐더러 그 난관을 극복하기위하여 그 난관에 직면하여나가는 인재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난관과의 투쟁에서만 진정한 인재는 단련된다는것을 잊지말고 어떠한 난관에도 위험에도 놀래지않으며 투쟁에서 공포를 모르는 특종의 인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창의성과 헌신성으로써 우리앞에 놓여진 승리를 쟁취하기위하여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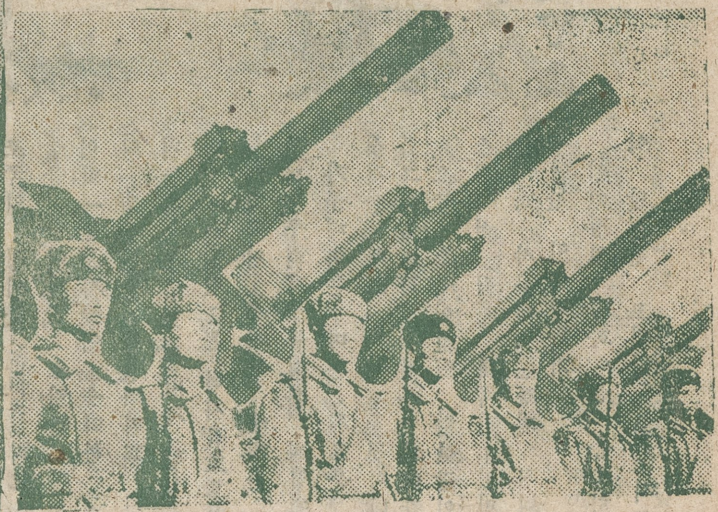
끝으로 동무들의 건강을 빌면서 나의 말을 마칩니다

(만장 총기립 우렁찬 박수 오래계속)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 부대의 장구한 혁명전통과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진정한 민주주의적 군대이다!



☆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용사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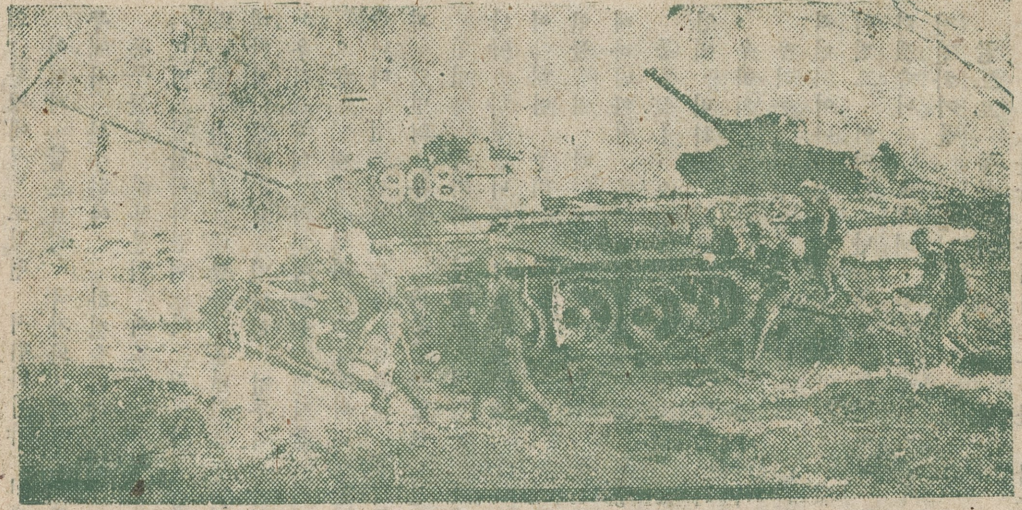


☆ 포병들의 아침 훈련시간은 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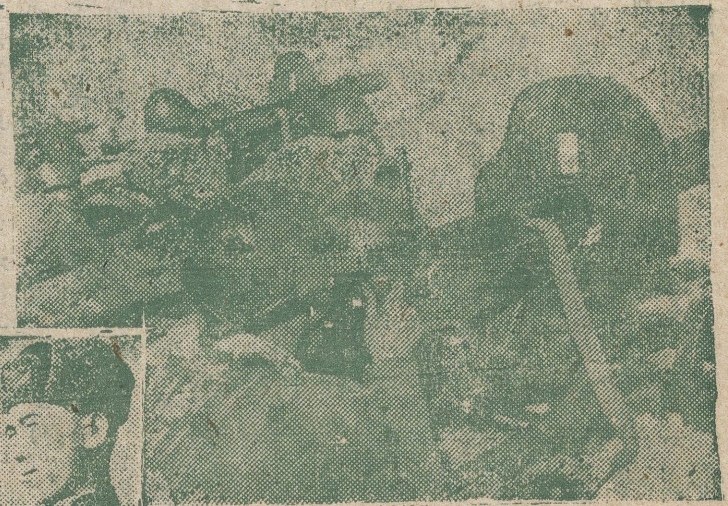


☆ 푸른하늘의 젊은용사들은 기대 앞에서 명령을 기다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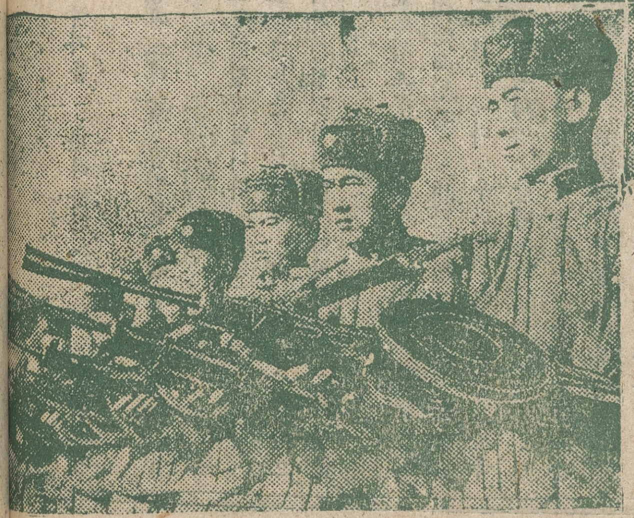
우리의 무력은 언제든지 적을 소탕할수 있는 강대한 힘을 갖추고 있다!



☆ 하늘땅을 울리며 땅크부대는 전진한다! ☆



☆ 기관총부대의 눈부신 사격련습… ☆



☆ 앞을 쏘아보는 우리 보병부대들 ☆

인민군대는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조국통일독립을 위한 장엄한 전진속에서 자기들의 자랑이며 영광인 인민군대창립 二주년기념일을 맞는다

두해전 二월八일 그가 창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인민군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보위」하며 또한 「조국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어서 강력하고 불패의 위력있는 무장력으로 장성 발전되었다 다아는 바와같이 우리의 인민군대는 조선인민이 자기스스로의 손으로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영예를 박탈하려고 준동하는 침략자들을 방어하며 소탕할 필요성에서 산생된것이며 「근로자들이 승리한 국가에서는 인민들의 쟁취물을 략탈하려고 기도하는 부르죠아지들과 투쟁할 준비가 항상 구비되어있어야한다」(쓰딸린)는 력사적교훈에서 창건된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군대는 시초부터 그 특성과 구체적 목적과 과업에서 어떤 자본주의 국가군대와는 다른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적 성격을 띄고 창립된 것이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나갔다

오늘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조국보위의 초소에 선 젊은 애국자—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에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보냄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인민정권 공화국을 옹호하며 북반부인민들이 달성한 고귀한 창조적성과를 고수하는 인민군대에 복무함을 영예로알고 이에 앞을 다투어 참가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우리의 인민군대는 근로인민의 자제들이 그곳에 복무하며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장군의 항일빨찌산들을 그 골간으로하여 선진적 군사과학의 정수(精髓)를 모범받고 정치 문화 교양에서 기술에서 훈련에서 청년들의 학교로서의 역활을 감당하고있다

또한 자각성과 도덕성으로 무장되고있으며 국제민주력량의 일익을 담당하고 항상 국제적 친선단결의 정신으로 교양받고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창건자인 김일성수상의 영명한 지도와 공화국의 백방의 배려속에서 자랐다 그는 쏘베트련맹을 비롯한 세계민주력량의 성원을 받으며 뿐만아니라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동작과 애국적충성심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인민군대의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리하여 오늘 인민군대청년들은 그들의 생활과 투쟁과 로력에서 자랑과 기쁨을 품으며 군인칭호에 영광과 존귀성을 명심하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직히 복무하고있다

四〇〇명을 초과하는 젊은 군관 하사 병사들의 가슴에는 군대 최고영예인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이 빛나고있지않는가! 그중에는 남조선소위 국방군의 三八선이북침습시에 단신적진에 돌입하여 四〇여명의 원쑤놈들을 소탕하고 二명을 생포하였으며 중기관총 무전



기동을 로획한 김종호동무가 있으며 三八전선의 초소에서 민청초급단체총회를 소집하고 선봉운동을 전개할것을 구부대에 호소하여 진격한 결과 원쑤二개중대를 섬멸하고 다수의 무기를 로획한 하사 전춘학동무가 있다

오늘도 三八선에서 후방에서 우리의 인민군대 경비대、보안대는 군사과학기술과 문화교양에 주력하여 투쟁에서 용감성과 침착성과 강인성을 발휘하며 곤난을 극복하며 군성학습과 전투훈련에 높은 성과를 쟁취하고 있는것이다

「환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실제적사실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는 미증유의 위력을 가지게 될것이며 그들의 견결성앞에서는 부르죠아국가군대의 기계적훈련은 볏짚같이 무능력할것」(엥겔쓰)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증되었다

그러나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장력으로써 강화하여 조국을 강력하고 견고한 나라로 통일시키는 거족적 과업은 인민군대창립 두돐을 맞는 민주청년들의 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긴요하게 제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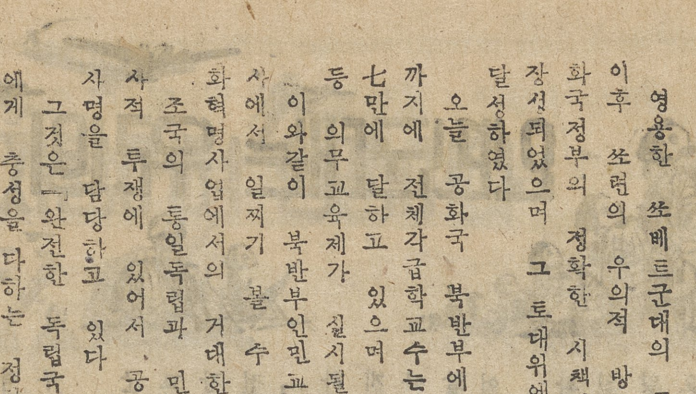
「군대는 로동자와 농민들의 학교이며 집결장소로 되」(쓰딸린)며 정치생활은 서로배우며 배워주는 학교일뿐만아니라 선진기술을 습득한 고련마하는 산 학교이니 또한 난관과의 투쟁속에서 교양훈련받는 고귀한 학교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체군무자 청년들은 우리의 스승이며 영웅이신 김일성수상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애국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이미 쟁취한 민주개혁의 승리들을 더욱 고수하며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응하여 적을 어떤 시각에든지 소탕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할것이며 그를위하여 군사과학을 습득하고 군사기술을 련마하며 무기에 정통하고 능수가되며 정치사상적 리론수준제고에 부단히 투쟁하며 경각성을 높여 항상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할것이다

또한 전체청년들은 공민의 최대의무이며 영예인 조국보위사업에 백방으로 참가하기위하여 인민군대 경비대에 열성적으로 망라되며 그들과 그들의 후방을 원조하는사업에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일상적으로 진행할것이다

인민군대창립 二주년을 맞이하여 조국남반부의 암흑천지에는 조국과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의 투쟁을하는 영웅적 빨찌산들의 투쟁이 더욱 자신있게 계속되고 있다

우리조국을 옹호하며 새력사를 창조하는 근로인민의 고귀한 로력의 열매를 고수하는 영용한 우리인민군대는 믿음성있게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발전에 온 한몸을 바친 조선인민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인민군대창립 二주년을 기념하면서 공화국의 기치높이 우리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장군이 가르치시는 승리의 길로! 모두다 원쑤소탕에로! 조국통일의 길로 투쟁을 강화하자!



학교교육교양사업 질적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동맹단체들의 사업을 일층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 서 전

영용한 쏘베트군대의 무력에의하여 우리민족이 해방된 이후 쏘련의 우의적 방조와 김일성장군이 령도하는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시책에 의하여 인민경제는 거대하게 장성되었으며 그 토대위에 학교교육망의 경이적 발전을 달성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인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에 전체각급학교수는 五,〇八五교 그학생수는 二〇七만에 달하고 있으며 一九五〇학년도부터는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제가 실시될것이다

이와같이 북반부인민교육의 찬란한 개화는 우리민족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전변이며 조국문화혁명사업에서의 거대한 전진으로 되는것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력사적 투쟁에 있어서, 공화국북반부 각급학교는 중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각방면에 충실한 민족간부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은 공화국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입니다」라고 하신 김일성장군의 말씀에서 명백하다

이와같이 중요한 과업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민주주의적 애국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선진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시키며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복무하는 애국적 건설자로 양성하는 공화국각급학교 교육교양사업에 크게 달리어있다

이렇기때문에 학교교육교양사업 질적제고를위한 공화국교육시책을 적극 받드는 사업은 우리동맹의 영예로운 임무로되며 가장 중요한 동맹적 과업으로된다

현재 공화국북반부 각급학교에 우리민청조직은 근 一五만여의 동맹원을 포함하고있는 二五七개의 학교민청위원회와 一一三만의 단원을 통합한 四,三〇〇여개의 소년단과 二七,〇〇〇여명의 광대한 청년교원을 망라하고있다

우리민족의 령도자이시며 청소년들의 친근한 스승이신 김일성수상은 일찌기 「학생소년들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위하여 꾸준하고 완강하게 학습하며 애국적 민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동맹 학생소년사업의 지침으로 되었는바 이말씀을 받들고 동맹 제三차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교육기관의 청년단체들의 가장중요한 과업은 민주건설사업 및 진보에 대한 충성과 해방된 우리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써 젊은 세대를 교양하는데있다

교육기관의 청년단체들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락후한 성적을 퇴치하며 또한 규률을 강화시키기위하여 반드시 결정적으로 싸워야한다

학교기관의 청년단체들은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사상과 선진적 우주관으로써 무장된 간부들을 교양하는 영예스러운과업을 완수하는데있어서 반드시 교원들을 백방으로 원조하여야한다」

동맹단체들은 이결정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대회이후기간에 열성적으로 투쟁하였던바 공화국 학교교육교양사업을 방조함에 상당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이 반면에 일부민청단체는 이 결정실행을 철저히 보장못하고 있으며 허다한 결점들을 가지고있다

× ×

작년一〇월에 소집되었던 동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동맹 제三차대회결정에 의거하여 대회이후기간의 동맹학생소년사업을 심중히 심의검토하고 학교내 동맹단체들의 사업을 일층강화할 방향과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학생들의 학과학습을 강화하며 학교규률을 제고시키며 학생들의 사상정치적 문화적 수준향상을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학교교육교양사업 질적제고를위한 공화국교육시책을 적극보장하는 투쟁은 학교내 동맹사업의 총방향이며 중심으로된다

학교교육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 달성하려는 투쟁에서 동맹앞에 제기되는 가장중요한 것은

첫째로 학교규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어야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 학생들은 정비된 새환경에서 학습하고있다

그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교육사업이 인민정권에 의하여 령도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인민과 조국의 리익에 견실히 복무하는 민족간부양성에 복무하는데있다

이 위대한 전변은 공화국북반부 각급 학교에서 낡은 노예적 규률을 청산하여버리며 새로운 자각적규률로 학교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근거로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을 강화하는 기본적 조건으로된다

학생들이 학교의 제반규률을 준수함은 자각적이어야하며 그것은 인민의 리익과 조국의 번영을위하여 준비하며는 북반부학생들의 고상하고도 영예로운 의무로된다

이렇기때문에 공화국정부 교육성에서 제시된 학생규칙실행을 고상하게 보장하며 학교규률과 학습규률을 제고하는 투쟁은 동맹단체들이 학생맹원군중속에서 전개하여야할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는것이다

공화국교육시책을 방조함에 있어서 일부민청단체들의 부족점은 부분적 학생들이 낡은 일제사상잔재로부터 출발되는 결석 결강 학업포기 학습과제에대한 무책임성 기타 교원에대한 비량심적 태도등 학생규칙을 위반하는 불량경향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싸우지않고 있으며 또한 형식적으로 취급하며 취미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그러므로 전체학생들을 학과학습강화투쟁에로 조직추동하며 학업에 대한 열성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면서 그들이 수업준비와 복습을 충실히 하도록하며 교원이 제시한 과제를 탐심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며 결석 결강등

현상을 일소하며 자작업을 계획적으로 열심히 실시하도록 할것이며 학습강화를위한 군중적 토의와 락후한 성적에 대한 학습비판 조직과 학습규률강화를 위한 이 모든 사업들은 학교내 전체초급단체와 민청반들의 투쟁적 과업으로 되어야한다

초급단체와 민청반에서 자기학급실정에 적응하게 이상 과업들을 자립적으로 성과있게 실행할때만이 학교사업향상으로 튼튼히 보장할수 있다

둘째로 학교교육교양사업방조에서 우리민청단체들의 투쟁은 전체학생 전체학과목 학업성적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광범하게 시야를 돌려야한다 그러기에 동맹단체들은 각과목 매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동맹적관심과 고려를 돌려야할것이다

인민과 조국의 리익에 철저히 련결되어있는 공화국북반부각급학교들에서의 새전변들은 또한 교과목편성과 학내용에서 명백히 본다 공화국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고있는 그 모든것은 전부 우리조국의 경제 군사 정치 문화 발전에 소요되는 과학과 기술이며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의 집적으로되는바 그것은 진정한 국제주의 정신으로 일관된 애국사상으로 충만되고있으며 철저히 과학적이며 진리인데있다 북반부 학생들이 교수받은 헌법은 조선인민들이 우리민족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령도밑에 전취한 위대한 승리의 법적총화로되며 그 연구학습은 학생들을 민주주의와 애국적 정신으로 교양하며 공화국북반부의 민주제도가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수 없이 우월함을 가르쳐주며 조국 통일독립을위한 전민족적 투쟁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각성을 발전시킨다 또한 맑쓰—레닌주의의기본과목들에 대한 교수는 학생들을 유물론적 선진우주관으로 무장시키며 로어과목은 위대한 쏘련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과 공산주의건설에서의 투쟁적경험과 쏘련인민들의 고상한 문화를 섭취함에 불가결의 로대로된다

그러나 일부민청단체들의 결점은 이상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헌법 맑쓰—레닌주의의기본과목 로어과목들에 대해서 학습강화투쟁을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지도함이 부족하다 조선인민의 력사적 과업은 국토를 통일시키며 산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그리하여 장차 더 행복한 사회로 전진할수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튼튼히 구축하는 투쟁에 있다 「사람이 자기의 력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반적 개념으로 된것이 아니라 실생활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력사발전에 있어 통일된 민주주의 새조국을 건설하는 장엄한 력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김일성)

이러한 력사적 시기에 생활하는 북반부학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과같은 수물과목을 열심히 연구함은 사회과학 계통과목과함께 조국의 력사적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수학은 많은 부문의 지식을 포괄하고 있으며 수학리론에 대한 깊은 연구는 계획능력을 배양하며 복잡한 건축물 또는 산업경제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하며 물리학 연구는 기술적 발견과 발명을 돕는 원천으로 된다 그러나 일부 동맹단체는 학생들이 이과목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공식과 정리를 암송만하고 그응용력을 발전시킬데 대한 노력이 희박하며 락후한 성적을 퇴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

접하지않으며 구체적인 해결대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락연하게 학업성적제고만 호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부터 동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각급동맹단체들에서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질적으로 제고시키기위하여 반드시 각교과목별 분석적 지도를 일층 강화하라고 지적하였다

「기술과 인재의 기근을 퇴치함이 없이는 우리는 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김일성수상의 교시에 따라 동맹단체들은 학습에서 발로되고있는 결함들을 명백히 분석규명하고 적응한 구체적 대책들을 부단히 강구할것이다

학생들의 학과학습강화투쟁은 호소나 맹세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과목 학습정형을 분석적으로 취급하는 구체적 사업으로써만 보장되는 것이다

세째로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엄숙한 현하 조국의 정치정세는 학생들에 대한 동맹단체들의 사상 정치 문화 교양사업을 적극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에 대한 동맹의 사상정치교양사업은 학생들을 선진적 우주관으로 무장시키며 과학지식을 소유시키는 매일매일의 학과실행을 질적으로 엄격히 보장하는 투쟁에 있다 학생들의 정치적 열성과 승리에 대한 자신심은 그들이 국제사변들과 조국의 정치정세를 깊이 리해함에 따라 더욱 제고되는 것이며 제고된 정치적 열성은 그들의 학습의욕을 일층 높이는 동시에 긴장성을 주며 학생규칙준수를 사상적으로 보장하는데 방조된다 부분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태만하며 정치적 립장이 견고하지 못하고 반동적 요언에 동요되거나 종교의 비과학성과 착취적 본질을 리해못하는 등 불건현상들을 공화국북반부 각급학교에서 일소하여버려야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에는 그들에게 무한히 행복하게 지어진 학교생활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전망성과 조국력사발전에서 학생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에 대하여 각성이 부족함을 볼수 있다

이러므로 동맹단체들은 학교생활에서 불건한 사상서 발로들에 대한 부단한 사상투쟁속에서 학과학습의 질을 높이는 학습강화투쟁속에서 공화국학생들의 행복과 전망과 고상한 임무에 대하여 각성시키며 사상 정치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초급단체 학습회사업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며 강연회 효과있게 조직하며 학생들의 과외독서를 적극 지도하는 사업들은 모두 학생들의 사상 정치적 발전을 방조함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된다 또한 동맹단체들은 학생들의 문화사업과 체육사업을 발전시킴에 백방의 노력을 할 것이다 전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동맹단체들은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체력과 기강이 직접 학과수행에 관련되며 장차 조국을위한 로력과 국방에 련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도수체조 등산 행군등 군중적 체육사업을 효과있게 조직하는데 특별히 노력할 것이다

네째로 학교내 동맹사업에서 우리의 결함은 부분적 민청단체들이 담임 교원들에대한 지도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므로 동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청년교원들에 대한 동맹의 지도를 적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하여 금후 청년교원들과의 밀접한 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 위신을

배방으로 제고시킬것과 학생민청및 소년단사업시도에 더욱 책임성있게 참가시킬것과 교육행정당국과 학교장들과의 사업상 련결과 교원 초급단체 지도를 경시하는 경향을 『일소할것』을 지적하였다

학교내 매개 민청원 교원들과 교원초급단체들의 동맹적 과업은 공화국정부의 교육시책을 받들고 학교 교육교양사업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학교장의 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기 때문에 민청원 교원들이 학교행정 규률준수와 교수방법향상과 제정된 교수준비를 충실히하며 교수의질을 제고하는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것은 고상한 동맹적 과업으로된다

교원초급단체들은 이것을 활동성있게 조직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 자기단체의 중심적 과업으로 제기된다

또한 교원초급단체들은 일부 교원들의 협애한 지식에 자만자족하며 무사태평하며 무비판적인 융화적 경향들과 일상적으로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교원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게 청년교원들에대한 맑쓰 레-닌주의적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시야와 문화적 교양을 발전시켜야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원초급단체사업이 지도되어야 하는바 동맹지도기관들은 언제든지 교장과 교원들의 정당한 의견들을 주의깊게 들으며 교원들과 일상적으로 밀접한 련결을 취하며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을 제고시키지않고는 학교에서 동맹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초급단체사업을 강화하기에 적극적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한다

× ×

공화국 학교교육교양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하여 민청단체들이 수행하여야할 중요한 몇가지 문제들은 러하다

마지막으로 동맹지도기관들의 조직지도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범하고 있는 옳지못한 작풍 즉 학생군중과 리탈되는 작풍과 형식적 지도작풍을 근절시키기위한 투쟁들이 아직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할 것이다

학생군중속에서 동맹의 결정 지시들이 집행되려면 학생들의 자각성을 발동시켜야하며 매개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자각성을 발동시키지않고 무원칙한 책벌과 엄격한 지시문받을 가지고 사업하려거나 또는 학생들의 개성과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하지않는 지도작풍들은 모두 학교내에서 학생군중과 리탈되는 가장 유해한 작풍이다

전체학생들의 자각적 발동을 효과있게 조직하며 동맹의 결정지시가 광범한 학생들의 지지와 높은 열성밑에 군중적으로 집행되려면 위선 학교교육행정당국과 밀접한 련결밑에 교수진도에 따라 각학교 각초급단체실 에 적용하게 제기하여야할 문제 즉 학생들의 학과 학습방조에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제기하여야하며 그해결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광범한 학생들의 창의적 의견을 옳게 접수할 줄 알아야한다

학교내 동맹사업지도에서 민주의 발양에 의거한 군중적인 사업지도 작풍을 확립하려면 형식만 채리고 내용은 빈약하고 회의만 번잡하게 소집하고 개개의 구체적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않는 형식주의적지도작풍을 견결히 반대하여야한다

학교내 동맹단체들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일층 공고히하며 그 사업지도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학교내 동맹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결정실천을 철저히 보장하며 학교교양사업 질적제고에서 동맹의 고상한 임무들을 원만히 실천할 것이다

영내생활의 하루



—조선인민군 ○○부대를 찾아—

김 학 연

※ 기상의 나팔소리

밤새도록 펑 펑 쏟아져 내린듯 쌓인 눈길을 헤쳐가며 나는 지금 이른 아침길을 걷는다

여이는듯한 혹한 추위속으로 이따금씩 휘휘— 날려오는 눈가루며 매운 바람결이 일어번진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 새벽길이 한없이 가슴뜨거운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인민군대 제○○부대를 찾아가는 참이다

그이들을 찾아간다는것— 이것이 나에게있어서는 실로 더없는 기쁨인것이다

그것이 비록 작품을 쓰기위한 단 하룻동안의 생활일망정 그들의 고상한 감정속에 품안겨 학습과 훈련과 식사와 또 그리고 오락시간등을 몸소 보고 듣고 즐길수 있다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감격이상인 기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윽고 영문앞에 다달았다

아직도 새벽하늘엔 병사(兵舍)를 고이 포옹하기 위해 내려앉은듯 무수한 별이 빛발치고 있다

그것은 실로 새벽하늘의 별들이 아니라 어버들과 산야를 지키는 초소의 용사들의 눈동자인것만 같다

나는 영문앞으로 닥아서서 이미 수속한 종표를 보초병에게 제시하였다

추위도 고단함도 잊은듯 다만 란란한 그의 두눈동자! 공간을 뚫을듯이 긴장된 그의 용자!

이동무는 한번 빙그레 믿음직하게 미소를 띄우더니만 그리고는 차렷자세로 통과를 허락하여주는것이였다

× ×

여기는 ○○부대 ○○중대이다
나는 이밤에서 엄동욱 군화부 중대장동무와 같이 몇분 남지않은 기상시간을 대기하게되었다
명사밖 창문을 뻗은 황철나무 한그루가 재벽 별빛에 유난히 아름답다 가지들엔 흰 눈이 한벌 쌓이어 더욱 아름다운데 이나무의 유래가 또한 흥미있었다 엄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금 창밖에 뻗은 황철나무는 바루 두해전 이터에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옮긴 동무는 같은날 같이 입대한 어느 두 동무인데 당시 이 두동무들은 입대하여 첫번째인 야영생활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나무를 옮겨왔다 한다
두동무는 이나무가 창문에 도달할때까지 서로 경쟁적으로 모범전사로서 표창받을것을 맹세하였던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경쟁은 끝끝내 이동무들의 강직한 노력의 결과로써 영예의 모범전사로 표창을 받게되였나
지금 이 두동무의 별명이 황철나무형제라고 하여 대원들간에 불리워지고 있다는것이다
뻬치카옆에서 나는 이 중대장동무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기상의 나팔소리가 안타까이 기다려지는것이다
한초가 바쁘게 어서 속히 이 황철나무 형제와 또 다른 동무들의 늠늠한 모습들이 보고싶다
드디어 벽에 걸린 전기시계의 바늘은 오전 여섯시정각을 가리킨다
류량한 나팔소리……
무수한 젊은이들이 새력사의 길을 창조하면서 억세게 다름질을 신호하듯 류량한 나팔소리는 새벽하늘에 하나 거침없이 퍼어져 흐른다
동이 훤—히 터온다
우리인민군대의 자각적 규률과 민속한 동작은 이미 모른때는 아니나 그러나 저윽히 놀래지 않을수 없다
단 三분간에 벌써 하나의 중대가 질서도 사뭇 정연하게 병사앞 넓은 마당에 대렬지어 섰다
이시각부터 이 동무들의 오늘의 생활은 시작된다
새벽하늘을 삼킬듯 우렁찬 구령소리에 의하여 아침체조는 힘있는 률동으로 시작된다

※ 보담 큰 생활을!

아침체조가 끝난 다음 청소사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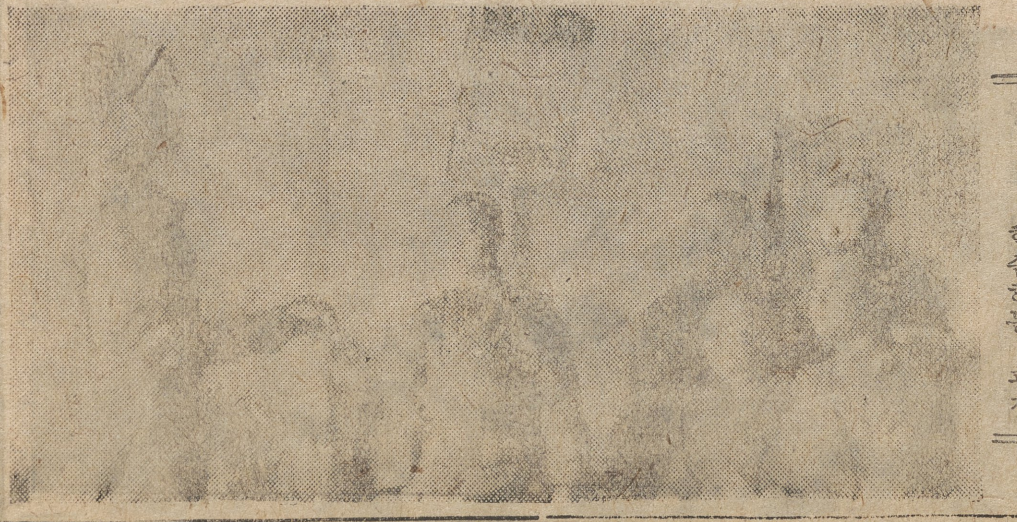
눈부신 훈련으로 자라나는 병사들

타드가 이를 닦고 낯을 씻는 사업 신발손비 옷차림 정돈 등등으로 잠시동안 바쁜시간이 지났다
아침점열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시간부터 나는 이 부대동무들 가운데서 항시 형님이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문화부련대장 안동무와 같이 상학시간의 이모저모를 참관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 그대로 마음도 한없이 부드러워보이고 탐탁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때가 많다가도 그러나 항상 침착한 분임을 느낄수가 있다
「련대장동무 ○○중대 ○○특무상 용무있어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거운 억양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얼굴과 가볍게 경례를 받는 그의 동작은 이 동무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듬북 차보였다
정확한 명령과 이를 접수하는 긴장된 태도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완강한 전투적 실천력—친절한 지도와 명확한 총화—이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훌륭한 규률을 보았다
역시 신호나팔소리에 의하여 아침식사가 넓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카로리 양분이 과학적으로 충만된 식사이다
전사동무 그누구할것 없이 식사중에는 말이없다
다만 쓰딸린대원수의 초상과 김일성장군의 초상이 산듯하게 걸린 그아래 확성기만이 경쾌한 음악을 연주한다
식당 오른편 젓하얀 벽에는 을지문덕장군의 초상화며 그 마즌편 벽에 걸린 리순신장군의 초상화가 또한 이 동무들의 사기를 고무하여 주는듯 엄숙히 걸려있다
식사가 끝나자 사과가 한알씩 배당되었다
확성기의 음악이 더욱 가벼 지더니 선전대원동무가 류창하게 시를 읊는다 이 시는 이 중대 벽보에 게시된 전사동무의 작품이다

훈련!

전사 김 진 필

수풀속 풀향기 풍기는곳
밤나무 가둑나무 정다이 선 곳
우리 돌격의 구호 웨치며 나갈
훈련의 보금자리 이곳
메어라 기동갑 힘을 모아서



대내 민청 초급단체 학습하는 광경

파내자 메내자 결리 다지자
서로 도와서 지어내는 집
이것은 병실이요 저것은 전국실
맑은 샘 흐르는곳 우리의 식당
짜작나무 둘린곳 우리 훈련장
여기서 조국보위 전투력 길러
통일조국의 승리를 쟁취하리라
숲속에 밤도깊어 우둥불 피우고
천막속에 걸린 쓰딸린 김장군 초상앞에서
력사의 래일을 이야기하며
군기(軍旗) 우러러 노래를 부른다

—

이 동무들은 이렇게 군기 軍旗 아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라거니 생각만 하여도 새삼스레 가슴 후련해진다

식사시간을 마친다는 신호가 다시 병사 내외로 퍼져 흐른다

× ×

문화부 련대장 ○동무와 함께 ○○소대 상학시간을 참관하게 되었다

우리가 방안에 들어서자

「一차렸!」

전체전사동무들이 재히 기계의 민첩한 움직임처럼 일어선다

「○○소대 현재 무선통신 학습중입니다!」

「좋습니다 쉬엇하십시오」

다시 처우과같은 통일적 동작으로 각기 자기자리에 앉는다 여전히 수신 송신학습은 계속되었다

이 방안 중심속에 소대장동무는 육중한 암뿌를 창치해놓고 매개 동무들에게 송신하는 것이다

「또또— 쯔쯔 따따따!」

전사동무들은 빛나는 눈동자 하나 까딱없이 전 신경을 수신기 고막에 집중시키고있었다

그리고 열심히 기록한다

이윽고 소대장동무의 구령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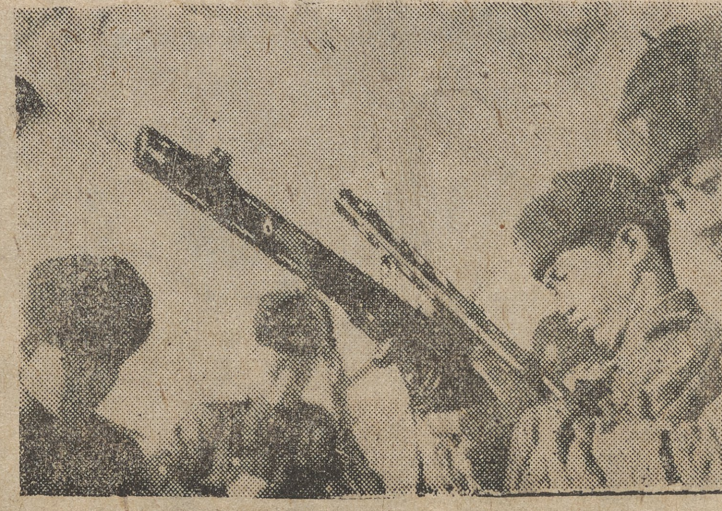
「××동무! 수신한것을 랑독하시오!」

「네 ×× 랑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수행할수있는 튼튼한 성벽이 되기위해……〃 소대장동무! 그 다음엔 정확히 수신못하였습니다!」

「좋소 다음으로 △△동무 말해보시오!」

「네! △△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



무기를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전사동무들

리에게 맡겨진 고상한 과업을 수행할수있는 튼튼한 전사가되자!〃이상입니다!」

「동무들! 맞습니까 맞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맞았다는것을 표시한다

젊은 얼굴들! 여센 팔뚝들。 빛나는 눈동자들。 모두 믿음직하게 강직한 동무들이다

광여가리 벽에는 여러가지 모형들이 단정하게 걸리어있다 그리고 모든 학습에 필요로되는 도해들이 모형기에 의하여 걸리어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다음방으로 찾아간곳이 바루 방금 정치상학중인 ××소대이다

눈동자들이 샛별마냥 빛난다 전사동무들의 시선은 까딱하지않고 다만 소대장의 교수에 집중되어 있다

해방두쟁사중에서 강의는 지금 전개되고있다 우리 조선이 걸어온 지난날의 암담한 생활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않기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들이 쌓아올린 력사적 승리를 튼튼히 고수하기위하여 앞으로의 보다큰 승리를 위하여 이동무들은 완강한 정치리론 학습에로 매진하여 고상한 애국주의사상으로 자기를 철옹성같이 무장하면서 있다

특히 중대장 동무는 한 전사동무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말한다

임태관전사는 이 소대에서 우수한 모범적인 동무이다 이 동무는 一九四八년 九월에 입대하였다

오늘 이동무는 훌륭한 통신병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전사이다

고향에서 일찌기 어렸을때부터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렸을 때부터 빈곤했기때문에 학교문이라곤 소학교 三학년정도밖에 다니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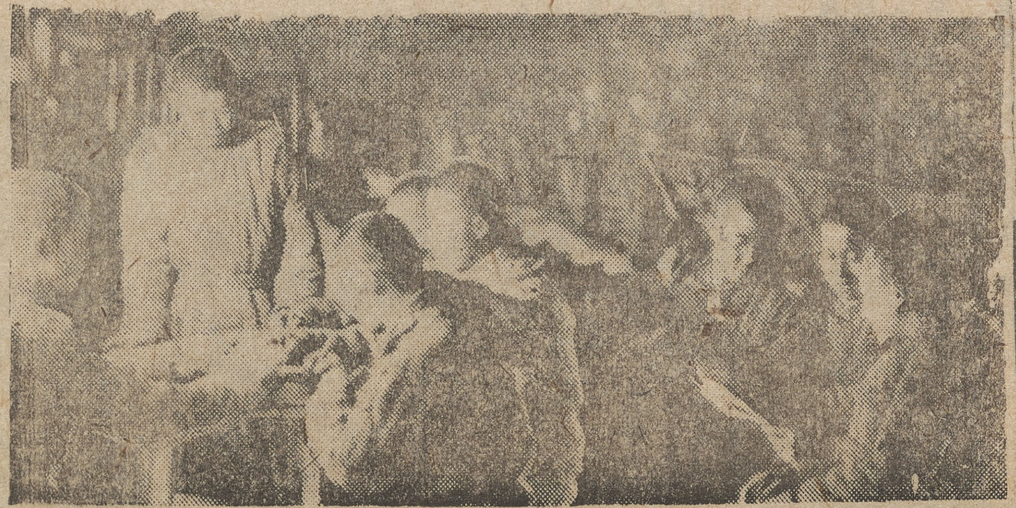
이동무는 지금 스물두살로써 입대하여 벌써 二년가까이된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가

훌륭한 무전사 통신병으로 무전공학을 정통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물리 수학이라군 꿈도 못꾸어 보던 과목을 오늘 이동무는 훌륭히 학습하고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동무는 대내 민청생활에 있어서 다른 동무들을 지도하



취침시간전 각직장에서 온
편지를 즐겨읽는 전사동무들

는 위치에 서 있다
주 이 전사동무는 민청초급단체 분조장의 역할을 놀면서 정치상학이라든가 기타 학습에 있어서 교수받은것을 예습 복습 또는 집체적인 토론회등으로 분조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있다
초급단체 총회결정을 전체 분조원들에게 침투시키는 사업이 그 어느 분조보다 우수하다―

❋ 야영지구에서

험한 산들이 첩첩 가로 놓인 그 사이 골짜기길을 나는 지금 이 야영훈련대와함께 행군한다
○○지구 야영훈련으로 가는 길이다 산울림치는 우리들의 노래는 뒤로 뒤로 계속된다
이 산에서 저산으로 또 그산모퉁이를 돌아갈때까지도 찌릉 찌릉 우리들의 노랫소리는 우렁차게 퍼져나아간다
마을 소년단원 동무들의 귀여운 모습 이 이 곱게 여무진 그들의 합영의 노랫소리와 함께 지나간다
이윽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잠시 쉬어서 가게되었다
우리들이 제각기 적당한 곳에 자리잡고 앉았노라니 하나씩 둘씩 마을 젊은 처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오신다
그런데 조그마한 일이 하나 생겼다 이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있어좋은 일이다 어디다 가 늙은 할아버지 한분이 나의 곁바윗등을 의자삼아 앉아 있는 소대장동무의 앞으로 다아서다
―여보슈 젊은 대장선생! 이걸 좀 봐주면 고맙갔습네다 온 아침 직전에 내 손주 녀석한테서 온 편지온데 암만 보아도 이편지가 우리 손주녀석이 쓴것 같지 않습네다레!」
편지의 내용을 물으니 이 로인의 손주자신이 쓴 글이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입대한 후 불과 반년 남짓하여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명사격수의 칭호를 받게되었고 소속 소대장동무가 극진히 사랑하여 준다는 사연의 편지이다
「글세 이녀석이 군대에 가더니만 아주 딴 사람이 되었나보우」
―「할아버지!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을에 찾아온 우리 모두도 그러하답니다 우리는 항상 학습과 훈련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손주되는 동무



야영 지구에서 인민들과 함께 즐거운 오락회를 가지는 광경

가 벌써 반년남아 되셨다니 훌륭해졌을것이 아닙니까?」
소대장 동무의 답변이었다 뒤이어 소대장 동무는 무엇을 생각한듯이 벌떡 일어선다
「자! 동무들 이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제부터 二〇분동안 오락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집행는 ××동무 하시오!」
「소대장동무 ××는 이제부터 마을 사람들과같이 가지는 오락회를 집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무들! 나는 소대장동무의 명령에 의하여오락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곳 저곳에 떨어져앉았던 전사동무들이 둥실하게 원형을 지어선다
그 사이사이에 마을 젊은이들이 섞여있고 원형을 그은 그밖에도 많은 사람이 둘러섰다
「김장군의 노래!」
한마디 떨어지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방글 빙글 돌아가며 높이 부른다
이 노래에 뒤이어 인민군행진곡 노들강변 양산도 등등의 노래 그것만이 아니라 춤과 댄스와 뒤쉬이어 벌어진다
어떤 마을 할머니는 흥에 겨워 서슴치않고 나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신다

❋ 취침나팔소리 날때까지

야영지에서 식사들을 마치고 밤여덟시에 돌아왔다 이시간은 한시간동안인데 실로 과외오락시간 그자체가 훌륭한 교양시간임에 틀림없다
주로 이시간에는 호화다채롭고 유쾌한 생활로써 매일매일 계획세워지는것이다 내가 문화부 중대장동무의 안내로 ○○실에 들어갔을 때엔 벌써 그곳에서 선진국가 쏘련의 각민족무용이며 민요들이 시작되어 있었다 다른방에 가보아도 아코데온이며 기타―들이 연주되어 이에 맞추어 노래며 춤이 또한 흥겨웠다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동무 사랑하는 안해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동무 또한편에서는 장기며 바둑을 뚜고있다
군관도 하사도 전사도 같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유쾌하게 보내는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인민들속에서 나와 인민들 속에서 자라나면서 있는 인민의 군대가 아니고선 이런 고상한 규률과 감정이 있을수없는것이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오늘 학습한것을 총화짓고있었다
친절한 교수와 복습지도는 매일매일 이들의 실력제고에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한다
다음― 영화감상이 있다하여 집회되었다 특별히 오락시간을 단축한 (물론 그것도 문화오락시간이지만) 영화감상이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상영되는것이다

× ×

저녁점명이 있었고 그후 병실밖으로 나아가 넓은 마당을 몇곱이나 다니며 중대동무들이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서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별빛 빛나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이들은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조국을 위하여 인민이 불러세운 초소의 용사들!
자기들앞에 그어떤 난관의 길이 가로막힌다해도 이를 능히 뚫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아갈수있는 불패의기개!
이는 분명 이동무들의 생활속에 고상한 사상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을 나는 다시한번 깊이 느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국수호의 초소에 나선 이 동무들의 보다 강직한 사상의 견고성이 오늘의 이들을 낳은것이다
그래서 우리인민들은 이동무들을 찬양하여 인민의 무장력이라 부르며 강철의 대오라고 부르지 않는가!
잠시후이면 취침나팔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퍼지리라



—송악산에서—

윤 두 헌

— 개성시가를 눈아래 구버보는 ○○고지— 통칭 송악산은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되어있다 이 고지와 개성의 뒤성곽이 우리 경비대들의 손에 있다는것이 리승만괴뢰정부에게는 적지않은 약점으로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이고지를 불법 탈취하여보려고 놈들은 치렬하고 집요한 침습을 기도하였던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공화국경비대들의 용감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번번히 실패에 돌아가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것이다

공화국 경비대가 평화적으로 이 고지를 지키고 있다는것을 기회로 놈들은 一九四九년 二월一二일을 필두로 三월一六일 三월一八일 五월四일 七월二五일의 수차에 결친 수십회의 침공을 기도하여왔었던 것이다 침공의 회수가 빈번하였던것처럼 놈상 그 규모도 우리 경비대수비병력의 수십배의 인원과 화력으로 들어왔다

처음 공화국 경비대의 실력을 모르는 적들은 자기들의 불법 침입이 의례히 성공하리라고 믿었으나 정작 겨루어 보니까 잘 듣지 않았다 놈들은 자기들의 체면을 유지하기위하여서라도 필사적으로 덤비어들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 고지 하나를 노리고 행동하기 어려운 좁은 지역에서 수개대대 혹은 련대의 병력으로 행동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놈들의 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는 여기서도 三八선의 다른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화국 경비대의 용감한 위력앞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당시의 치렬하였던 전투의 광경을 들으면서 안내하는 동무를따라 송악산 꼭대기를 목표로 올라가고 있다 경사가 급하다는 데는 발길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는 기어오르기가 숨이 차다 벌써 一선에나와 한달이 가까운동안 걷는데와 바라오르는데는 어느정도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막다들려놓고 보니 예상과는 딴판이다

그러나 숙련의 힘이란 큰것이라고 느낀것은 나를 안내하는 동무는 가다가는 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한참씩 서 있다 그동안이 상당한 시간이다

「어지간히 강파라운 결요…」내가 앞서가 중도에 서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있는 동무에게 말했다

「처음엔 힘두 듭니다 그렇지만 단련이되면 평지나 다름없습니다 七·二五전투때에는 중기를 혼자서 메고 단숨에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요」하고 내말에 안내자는 대답하였다

이런 상식의 한계를 초월한 힘이 여기서만 아니고 三八선 이르는곳마다 있었다는것을 나는 잘안다

어느 지방에서 생긴 일이다 三八선을 수비하던 소대가 적이 불법침입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인마를 살륙하는 광경을 보고 대원들은 이를 갈면서 싸우기를 요구하였다

소대장은 상부의 명령대로 대기할것을 엄명하였다 대원들은 분을 참지못하여 엉엉 울었다 그때 우에서 격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대원들은 환호소리를 내면서 기뻐 날치었다

진공이 시작되자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적을 삼시간에 소탕하여버렸다

그뒤에 능률을 계산하여보니 그전투에서 평상시의 수배의 초월적인 용감성과 민첩성을 발휘하였더라는것이다 톱아 올라 산정이 가까워짐을 따라 벌써 三개월이 지나간 오늘까지 치렬하였던 전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곳곳에 우묵우묵 패운 자리는 모두가 포탄 떨어진 자리라는데 이것이 올라갈쑤록 점점 밀도가 커진다 뿐만아니라 지금은 파릇파릇 잎들이 피었지만 당시 소이탄의 세례를 받고 몽당바랑으로 서있던 나무들도 그때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변하지않고 오늘까지 그날의 상처를 남기고 있는것은 바위들이다

바위로 생긴것은 어느것이고 제표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것이없다

오랜 전상 비바람에 자기몸뚱이를 물어내놓아 고색찬연히 이끼가 푸르른 바위들의 남쪽을 향한 면은 어느것이고 서툴은 석수쟁이의 정끝으로 좋은것처럼 얼룩덜룩하고 우룰두룰하게 곰보가 되었다 그중에 심한 놈은 절구 호박을 파다가 버린것처럼 우묵하게 패인것도 있다

송악산정에 있는 모든돌이 이 모양이라고 내가 말하면 못본 이들은 과장이라고도 생각하리라 나는 그것도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안보았더면 그런 사람들에게 동의하였을 것이니까…

만고의 성상도 천척히벽에 벽화시킬수 없는 바위에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한 것은 누구의 수작인지 의심할 것이없다 이 수만발의 포탄이 미국군수기업가들의 체화(滯貨)창고에서나와 미국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온것이라는것을 알면 그만인것이다

산정에 오르니 앞으로는 개성시가가 눈아래 보이고 좌측으로 성곽은 웅거한 우리 진지와 그 끝에 고무토—치카라고 적들이 부른다는 유명한 령남의 영구화점이 보인다

적들이 지키고 있는 송악산우익의 철탑고지는 三○○메—터내외의 지척에있다

한때는 해방의 거뿐에 활기를 띄

[illegible] 개성시가 오늘은 음산하고 한적하게만 보인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어졌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간혹 바라보이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길들도 무거운듯 활기가 없다

날개를 벌리고 오만하게 다니는것은 군대와 경찰뿐이다 인민의 살을 깎고 피를 빨아 살지운 이 군정들이 활개를 치고 거리를 활보할날도 그들의 상전의 운명이 며칠 안남은것처럼 오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가마속에 소천어(小川魚)같이 불안과 초조속에서 국악을 부리고 있는것이다

三八선 어디에서도 보게되는 현상이지만 이곳에 와서도 나는 같은 끝을 모았다 송악산 지맥의 능선이를 분계로 갈린 이남 이북이다 한산의 한편으로 갈린 분계인만 어느 사이에 이다도 판이한 현상이 생활조건에서만 아니고 자연에까지 나타났는가 사뭇 기이한 감을준다 수목이 무성하여야할 산의 남측(南側)은 한가벗은듯이 암석이 뼈다구를 로출하고 그와 반대로 북측은 수목이 청청하다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산에 아적「국방군」이 오기전 우리 경비대들만이 수비하고 있을때는 인민들이 나무를 하려 이산에까지 안심하고 왔다한다

추운겨울에 화목의 보장조차 받지못하는 남반부인민들은 나무를 깎아갈뿐만아니라 그 뿌리까지 파갔다는것이다 이런것을 하였으니 산에 나무가 남아있을리 만무한 일이다 나는 이사실을 들을때에도 판이한 두세계의 생활을 보았다 백년대계(大計)를 위하여 산에 나무를 심노라고 애쓰는 희망에 찬 북반부의 생활과 나무를 뿌리채 파먹게 만드는 저주할 남반부의 생활은, 결코 함께 이야기할수 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실을 나는 이곳 진지를 돌아보면서 전사들의 미화공작에서도 느꼈다 진지라면 상식적으로 살벌하고 거흐른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전사들이 거처하고 있는 진지는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감시처의 마당이나 엄폐호같은 것은 더말할것도 없지만 전호안까지를 말끔히 쓸었고 엄폐호들에는 어느곳을 가보나 반드시 목봉이나 철봉같은 전사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 넌조각을 꾸어다 뻔쥐를 만들고 소공원을 만들었다 이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만든것이 아니고 정성과 힘과 솜씨를 들여 만들었다 어떤 소공원에는 송악산의 지형을 만들기도 하였고 어떤데서는 조선지도모형을 만들고 하천 철도 산악 도시같은 것까지 나와있다 특히 백두산 금강산 같은 명산을 만드는데에는 특별한 힘을 들이고 있다 이것과 함께 적의 가지각색의 포탄 총탄 무선전신기 투구같은 파편과 불발된것들을 주워다가는 일대 소전람회를 벌려놓은곳도 있다 이야기가 난김이니 말하여둘것은 송악산은 어느골짜기에 가나 적의 포탄파편과 버리고간 유물들이 발길에 채인다 적들이 자랑하는 '르게트포'는 열발에 일곱발은 불발이라는것으로 전사들은 간곳마다 열른 보기에 다듬이 방치같은 로게트포의 불발탄을 주워와 소공원 주위에 나라니 세워놓는다 독자들도 상상하리라 불발탄이 얼마나 많았기에 소공원의 테두리에 나라니 세울지경이겠는가를…… 그리고 이 불발

탄에 대해서도 미국장삿군들이 지정한 값을 받아 먹었으리라는것을……

이야기가 딴데로 달아났지만 우리 전사들은 이렇게 살벌하고 거칠은 전선의 진지에서까지 환경을 미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르는곳마다 전사들은 벽보를 만들어 붙였다 그 벽보들의 내용은 당면한 국제국내정세를 알리는것 전사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기록한것 호상비판 그리고 전사들이 쓴 시들도 있다

벽보에 붙은 시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달밤의 초소

구름없는 달밤에 별만은 총총
여기는 전선이다 三八경계선
날마다 사수하는 송악산고지
인민의 선봉대로 나선 이몸……

찬 이슬 수풀속에 몸을 감추고
저달을 동무삼아 경비합니다
은하수 기울어진 야밤삼경에
초소를 사수하는 국경경비대

(송악산 중매 김경남)

이 소박한 시에서도 우리는 전사들의 일체생활과 신경을 엿볼수 있듯이 그들은 [illegible] 어데나 사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성인들이 머리를 수길만한 고상한 견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바위와 성벽에는 흰 도료로 쓴 표어들이 눈에 떠운다

「동무는 전투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규률강화」

이상과 같은 것들외에 김일성장군 쓰딸린대원수만세등의 기본표어는 특히 잘 보이는곳에 크게 썼으며 김장군께서 경비대 전사들에게 준 말씀도 정중히 써어 있다

산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전투당시 빗발치듯 내려 뿌리는 포탄속에서 희생자를 내지않고 이 고지를 지켰다는 비밀을 알기위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하여보다가 안내하는 동무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포탄이란 그렇게 무서운것이 아닙니다 놈들의 포탄은 三메―터 부근에 떨어져도 엎디기만하면 피해가없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이곳에서만 생긴 수수께기는아니다 황해도○○군에 있는 ○○고지의 전투에서도 이와 똑같은 기적은 있었던 것이다

적이 던진 수류탄을 발길로 차거나 뒤집어 던지는 싸움이었으니 이것은 실로 육박전이었던것이다 수를 믿고 완강히 버티던 적들도 전투가 이런 결사적인 형태를 띄기시작하자 달아나기 시작하였다한다

달리는 적을 뒤로 사격을 퍼부어 시체는 한때 산골짜기에 득실거렸다 그러나 한두 차례의 실패는 놈들의 야욕을 누들수 없었던지 다음에는 늘 더큰 병력으로 침입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번번히 참패의 쓴맛을 보게되자 그들은 발벗고 바위차기인줄 알고 이제는 감히 나사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二)

송악산좌측평남에는 고무토―치카라는 별명을 가진 영구화점이 있다 이곳도 앞서말한 고지에 못지않게 놈들의 섯가신 침습을 여러차례 물리친곳이다 이곳에 있는 토―치카를 놈들은 고무토―치카라고 부른다

맨처음 우리 경비대들이 이곳에 토목화점을 쌓기시작할때 적들은 이곳에다 직사포의 집중사격을 하였다

처음 하루 종일 쏘고는 놈들은 이만 면 원형도 없이 파괴되어버렸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 어제보다도 화점은 더 커졌다 밤사이에 증축하였기때문이다

적들은 또 포탄을 던졌다 그리고는 그날도 역시 이만하면 토ー치카는 전부파괴되었으려니 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에 보면 또 어제보다도 더 커졌다 역시 밤사이에 증축하였던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사흘이나 계속하였다 계속하면 할수록 토ー치카는 점점 커지기만하는것이다

적들은 이 토ー치카 하나를 파괴하려고 一○○여발의 직사포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쏠수록 커지는통에 그만 고무토ー치카라는 별명을 붙이고 손을 들고말았다

한개의 화점을 향하여 一○○발여의 직사포탄을 던졌다는 말은 일찍 들은 적이 없거니와 그만한 많은 포탄을 쐈어도 토ー치카가 무너지지않고 도리어 자라나기만 하였다는 말도 역시 들은적이 없다

이 놀랄만한 이야기는 평남 한곳에 생긴 일이지만 그것은 三八선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하나의 전형적인 것에 불과한것이다

(三)

왜 이런 놀랄만한 기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의문될것도 없다 매개의 전사들을 만나 담화하고 그들의 생활을 주의해보면 알수있는 것이다

김××라는 분대장과 그 대원들과 같이 나는 하루를 지낼 기회를 얻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주의해 보았다

전사들은 배우고 훈련하고 경비는 매일의 일과였다 배우는것도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걸어 넣기만하는 그따위식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와 이곳을 지켜야하는가를 배우며 자기들이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북반부의 민주건설이 지장을 입으며 전 인민이 갈망하여 마지않는 국토완정과 완전통일 독립이 늦어진다는것을 배우고있다 뿐만아니라 선진한 전략전술의 경험을 배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적을 눈앞에 두고 진행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학습은 배운 그자리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상적 장성은 경이적인 빠른 속도다 입대하여 한달만 지나면 전혀 다른사람이 되어버린다 일거일동이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니 전투의적이 강한것은 당연한일이다

훈련도 마찬가지다 사상적으로 높은것만치 군사기술을 배우는것도 그 속도가 빠르다 『훈련에서 땀을 흘리라 그러면 전투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동무들에게 일상의 목표로 되어있다

이 분대의 분대장인 김××동무의 경력을 들어 보아도 그것을 알수있다

그는 一八세때에 처음 입대하였다 집이 구차하였던탓으로 학교에도 못갔다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었다 한글은 시골 야학에서 배웠다

해방이되자 그는 민청에서 사업하다가 군인이 되는것이 청년의 최대의 영예라는것을 깨닫고 경비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그때 북반부의 온갖 시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동시에 전체 조선이 이렇게 되는것을 방해하는 미

국 반동도배들을 극도로 미워하였다

입대하자 그는 놈들이 이북지역에 침입하여 어떠한 횡포를 하던가를 동료들과 직접 피해자들에게서 들었다 그는 인민을 위하여 힘있게 싸울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학습에도 훈련에도 늘 우수한 성적을 전취하였다

일개월이 지난 그는 대대에 청원하고 일선에 나갔다 그가 나간지 얼마 안되어 전투가 벌어졌다 즉 「국방군」놈들이 이북지역에 불법침입하여 민가에 불을놓고 가재를 략탈하며 인축을 랍취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쏴두 좋습니까? 소대장동무!—

그는 명령을 기다리는것이 바빠서 이렇게 소대장에게 말하였다

—「기다리시오」

소대장의 명령은 그가 생각하던 바와는 딴판이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상부의 명령이니 기다리시오」

그는 소대장의 이런 태도가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었나 —「인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늘 가르치던 소대장이다 —「용감하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소대장이다 그런데 놈들이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롱탁하는 이마당에 와서 그것을 보고도 기다리고만 있으라는것은 너무도 비겁한 일이 아닌가?

그는 흥분하였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총을 들고 여기와 있는것입니까?」

그러나 소대장의 말은 침착하고엄격하였다

「명령이요 기다리시오」

「적을 보고도 쏘지못하는 이 총을 왜 메고 있는 것입니까 찬 이슬과 찬바람을 쏘이면서 무엇때문에 여기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제분을 참지 못하여 엉엉 울고 말았다

얼마있다가 「진공」명령이 내렸다

그는 기뻐 날쳤다 단신으로 수백명이 몰려있는 적진에 뛰어들어 수류탄을 던지고 적이 당황하는 틈을 타서 적의 중기화점에 뛰어들어 그것을 마사버렸다 이리하여 우리경비대로 하여금 진공이 용이하게 하였다

그는 그 뒤 곧 분대장이 되었다

내가 그를 만나 그때 광경을 얘기해달라고 청했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꺼리가 별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의 그때 표정에서 나는 겸손을 느꼈다 장한체하는것은 발전이 중지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면 겸손은 발전할 전도가 많은것을 의미한다 경비대원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말하라면 싸울때는 용감하나 상시에는 모두가 유순하고 겸손한것이 일반적이였다

나는 또한 저격수 한동무를 만났는데 이동무도 역시 겸손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였다

이동무는 역시 빈농의 가정에서 자라 처음 입대하였을때는 말도 잘 못하는 성품이 지나치게 인자한축이었다고 한다 이런부류의 사람을 소시민사회에서는 못난이 취급을하여왔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런법이 없다 뒤떨어진 이를 가르쳐 빨리 발전되게하는것은 이동무들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이중대에서 이 동무에 대해서는 특수훈련을주었다

그결과에 처음에는 한글도 모르던

것이 지금은 신문 잡지를 읽게되었고 군사 기술에있어서도 고등 저격수가 되어 군공메달까지 받았나 이동무는 지금도 역시 말은 적으나 동작은 민첩하고 정확하다 저격에서는 천재적인 성격을 내어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까지 하게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였다 과거 일제시대나 오늘의 우리 남반부나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발전할 조건과 기회를 얻지못하여 아깝게 썩어버리는가! 이것은 비단 군사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부면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썩고만다 천재가 무한히 자기 력량을 기르고 발휘할수 있는것은 사회주의국가나 인민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나라들뿐이다

(四)

침식을 같이하면서 즐겁게 보내면 며칠이 오늘로 끝이 난다 나의 려행기간이 찬것이다 웬일인지 떠나기가 싫어졌다

늘상 이동무들과 같이 이곳에서 일을 하였으면 싶었다 만일 그것이 용허되지 못할것이라면 몇일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평양에서 다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 싸워 주십시오」

떠나는 마당에서는 진실으로 석별의 인사를 주고 받았다

모두가 친우와같이 사랑스런 사람들 — 그러나 공화국북반부의 바른 제도의 혜택으로 천재적으로 발전한 사람들 — 내가 긍정적인 작품의 주인공으로 구하던 사람들—을 그렵고 만나구 싶어하던 인간의 타입들을 나는 여기서 만났고 극히 짧은 며칠동안이나마 그들과 같이 지냈다

그들은 선량하고 굳세고 용감하고 총명하였고 집단생활을 할줄 알고 조국과 인민을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할 줄 알았다

놀때에는 전장만 아니면 누가 상관인지 누가 병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차별없이 유쾌히 놀다가도 일단 사업에 들어가면 규률이 엄격하여지는 이 조직은· 실로 민주주의 조직의 가장 리상적인 형태라고 할것이다 여기에는 관료주의나 자유주의같은것은 약에 쓰려해도 없다

내가 이 동무들의 인간성에 반하였다는것은 이런점이다 이것을 나의 감상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그들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찾고있던 인간형을 보았고 그들의 조직에서 생활에서 또한 그것을 보았다 三八선을 돌아다니는 한달동안 나는 많은것을 배웠고 또한 정신적인 키도 어느정도 자랐다고 생각한다

동맹생활란

원수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청년들은 이렇게 교양훈련되여 간다

북조선민청 양양군위원장 리 재 명

「청년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발휘하며 적과 조금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라」고 우리동맹 제二차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은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양양군민청에서는 군내 전체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적을 증오하는 전투적인 정신으로 교양훈련시키기 위하여 하급민청단체들의 일체 동맹교양망을 확립하고 갖은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청년들의 정치 문화 교양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완강한 정치 문화 교양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훈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민주건설의 성과를 고수하며 三八선에서 불의에 습격하여 들어오며 암살 방화 및 간첩행위를 하려고 넘어오는 남조선 소위 「국방군」들과 악질테로 간첩분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없는 애국적인 영용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군민청에서는 각 면민청 단위로 소집하는 학습회 강사강습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 출석률을 一〇〇%로 보장함으로써 매개 학습회들을 제때에 동맹일제강에 근거하여 시일과 장소와 인원을 고정화하지 않고 때와 장소 환경에 비추어 조직 진행하였다

이럼으로써 서면 영덕리 초급단체 (三八연변) 맹원들은 남조선 괴뢰 국방군들이 번번히 불의에 습격해 들어옴으로 학습회조직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나 미리 이와같은 환경을 예측하고 있는 그들은 산밑에서 달빛을 리용하면서까지라도 학습회는 반드시 진행하였다

서면 오색一구 학습회 강사 합대근동무는 학습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자신이 제강을 충분히 소화하는데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남보다 자체학습에 몇배나 더 노력함으로써 학습회에 나온 맹원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였고 출석률을 一〇〇%로 보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북면 민청에서도 자기부락이 지리적으로 치하여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자위대사업 원만히 보장함은 물론 세밀한 조직적 지도로써 쉴새없이 총성이 울릴때에도 학습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다

현북면 말곡리 초급단체에서는 학습회 강사 김헌기동무를 비롯하여 전체 맹원들이 자체학습에 주력하며 적과의 투쟁에서 유일한 사상적인 무기로되는 고상한 정치교양사업에 자각성을 발휘하는 모범적인 기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동내에는 적들이 수십차에 걸쳐 습격해 왔으나 유일제강을 제때에 학습한다

오이려 이와같은 적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는 정치교양사업은 맹원들에게 그것이 곧 살이되고 뼈가되는것이다

군민청에서는 그들의 이와같은 학습의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서 매월 두번씩 유능한 선전원들을 동원하여 三八연변에 나가서 그들에게 정치 시사문제에대한 강연과 좌담회를 조직하여주고있다

이럼으로써 그들이 의문을 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때에 분석적으로 해석해주며 그들의 절실한 요구들을 수립하여 제때에 해결해 주는것이다

다음으로 이와같은 정치 사상교양사업과 아울러 각 초급단체들에서는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래들을 제때에 보급해주며 연극써클을 통하여 군중문화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말곡리 초급단체에서는 대중의 교양처로서 되고있는 동내 민주선전실을 더 잘 운영하기위하여 실내에 난방장치를 갖추고 새로운 표어들과 함께 쏘련화보 농민화보 인민경제도표들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중에는 말곡리 농촌경리에서 해방후 급격히 향상된 각종 도표들도 붙어있다

민주선전실 앞들에는 제반 체육시설들이 다 갖추어 있어 축구 배구장을 비롯하여 철봉 쌍봉들이 완비되어 있고 밤마다 마을사람들은 스스로 여기에 찾아오는 아름다운 기풍이 세워져있다

지나간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에는 말곡리 초급단체 연극써클원들이 「박사 깔체프」라는 단막연극을 상연하였으며 이와같은 문화교양사업을 통하여 맹원들은 더욱 자기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과 반동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 및 조선인민과 쏘련인민과의 영구불멸한 친선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군중문화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마주 앉아있는 三八선 이남 부락들에서는 매일과같이 리승만도당들의 반인민적인 만행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생활이 불안과 공포와 암흑에 쌓여 있으나 인민정권이 어엿이 서있는 북반부지역 마을에서는 광명과 행복에 찬 명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며 체험하고 있는 이곳 전체 청년들은 그것이 곧 산 교양이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三八선 이북마을도 침습해 오려고하는 적들의 각종 기도들에 대하여 조금도 당황하는 일이 없고 더욱 날카로운 정치적 각성과 예리하고도 주밀한 계획밑에 자위대 사업과 공화국경비대원조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대담성과 용감성들을 발휘하는 것이다

× ×

우리들이 다 아는바와같이 자기들의 무덤안에서 최후발악하는 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않고 간첩분자들까지 파견하면서 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적통일방책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건설 성과를 파괴하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반부를 침범하려는 「국방군」놈들의 어리석은 모험은 매번 우리의 공화국 경비대들의 영용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분쇄되었으며 격퇴되고 말았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공화국경비대를 도와 직접 원쑤들과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작년 七월六일에 서면수리에서는 이와같은 실례가 있었다 소위 「국방군」놈들 약三〇명이 이 부락을 침습하려고 비렬하게도 공화국경비대와 꼭같은 복장을 하고 앞산으로 어슬렁 어슬렁 기어 넘어오고 있었을때이다 곧 이를 목격하게된 민청원 김종천동무는 〃옳다 저것은 「국방군」놈들이 틀림없다〃하고 예측한 다음 적의 눈을 피하여 부락에서 좀 떨어진곳에있는 공화국 경비대에게 민속히 련락하였다

여기에서 련락을 받은 우리 경비대들은 놈들에게 어쩔 사이도 주지않고 순식간에 격퇴시키고 말것이다

또한 같은 그날에 「국방군」들은 다른 방면인 현북면 중광정리로 침습하여 들어왔다

여기에서 모범맹원 오종섭동무(당시 중광정리 초급단체 위원장)는 이를 제때에 발견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함을 두려워하지않고 국방군들의 대열을 기묘하게 빠져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부락에서 (벗어나왔다

그는 곧 이 정보를 후방 경비대에게 알리며 하였던것이다

이때 마침 침입한 적들을 물리치기위하여 중광정리 앞길로 공화국경비대의 트럭이 달려왔다

여기에서 오종섭동무는 트럭을 멈추게 한후 적을 섬멸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침입한「국방군」은 중광정리 앞들에서 경비대의무력앞에 여지없이 섬멸되게 하였다

현북면 말곡리 초급단체에서는 모범맹원 김기주동무를 선두로 일상적으로 부락의 경비와 련락사업에 있어서 계획적 치밀한 사업분공으로써 한놈의 이색분자도 침입할수없는 튼튼한 방위를 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말해야 될것은 농촌녀성청년들의 용감성이다

그들은 남성청년들이 낮에 일터에 나가면 그 뒤를 맡아 능히 자기사명을 완수하며 련락 경비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이와같이 원쑤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청년들의 희생적인 영웅성을 발휘함으로써 공화국 경비대와 인민들간의 더욱 혈연적인 관계는 굳어지고있다 인민들과 청년들은 공화국경비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며 그들을 백방으로 방조하기에 온갖 열성을 다하는것이다 그것은 곧 공화국경비대는 조국과 인민을 원쑤들의 침입으로부터 수호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밀접히 련계되어있기 때문이다

× ×

이밖에도 이곳 전체청년들은 공화국의 식량기지를 축성하는 경제건설을위한 투쟁에서 경지면적을 확장하며 토지리용률을 높이기위한 과감한 투쟁을 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미 쌓아놓는것이다

또한 三八선을 접경한 북반부마을에서는 소위 「국방군」들의 만행이 계속되는 환경속에서 교사를 신축하며 문맹퇴치사업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와같이 직접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교양받고 훈련무장되는 이곳 전체청년들은 그들의 발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치적 각성과 전투적 애국정신이 더욱 높아져가고있으며 더욱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굳게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군사 각방면으로 자기들의 투지력을 배양하는데 총궐기하고 있다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 (3)

김 남 천



남 현 주 그림

※ 정규봉(丁奎鳳) 정후진(鄭厚鎭)
김제룡(金濟龍) 권령찬(權寧燦)
권병모 정윤진

一九四八년 一一월중순 경북 영주군(榮州郡)에서는 미군 새명지휘하에 소위 국군 삼백명과 경찰이 총동원으로 선군을 포위하여 좁은 골목 산길조차 길목을 차단해놓고 부락마다 총검색을 하고 있었다

一一월중순의 어떤날 남로당 영주군 일군 권령찬(二六) 동무는 당무로 도(道)에 올라가는 도중 영주읍 창포리 一구에서 피검되었다 권동무가 살고있는 창포리 二구 아지트에있는 정후진(四〇)동무와 김제룡(二七)동무는 이것을 알자 곧 안전한 다른 아지트로 이동하였으나 이미 배치되어 있던 놈들의 미행에 걸려 역시 피검되고 말았다

이날 따로이 영주읍 상줄리 一구에서 민애청위원장이 피검되자 따라서 정윤진(二八)동무와 도에서 온 다른 한동무가 줄포一구에서 피검되고 그날밤 영주군 소산중에있는 아지트에서 정규봉(三三)동무 권병모(二八)동무 김성화(一八)동무의 一명이 체포되었다

이상 열명의 동무들은 영주경찰서에서 한달동안이나 놈들

의 야수같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사불란의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여 한가지의 비밀도 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놈들은 이 동무들에게 아무려한 고문과 악형을 가하여도 소득이 없을것을 알게되자 一二월一九일 소위 국군 三명에게 정규봉 권령찬 정후진 김제룡 정윤진 권병모 그리고 도 파견 민애청 올그의 七명의 동무를 내맡겼다 놈들은 이 일곱명의 동무를 수리코ー타에 싣고서 영주읍 상줄리 三구로 왔다 거기서 부락민을 강제로 동원시켜 일부러 목격하게 한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를 처벌하겠으니 여러분 단단히 보시오」하고 먼저 정규봉동무를 끌어내어 무참하게 총살하였다 놈들의 탄환에 정동무가 쓸어지는것을 본 여섯동무는 결박을 당한채 몸은 움직일수 없어 군중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웨쳤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미국놈들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리승만매국단정을 타도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리나 정동무는 지금 원쑤놈들의 총알에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과 자식이 귀하거든 놈들에 대한 원쑤를 갚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우리인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단결하여 싸웁시다」

「여러분! 미국놈 미국놈을 몰아내고 리승만매국정권을 때려부셔야 삽니다」

놈들에게 욱박질리고 채우고 하면서도 동무들의 피를 토하는듯한 웨침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모여선 군중들에 커다란 감동을 일으키지 않을수는 없었다 더운 피를 흘리며 쓸어진 정동무의 시체에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는 늙은 녀인네, 「옳소! 옳소!」 소리치는 젊은 청년들, 「알겠소 싸웁시다」고 손을 흔들어 보이는 로인네ー점차로 부락민들의 비통과 분노가 높아가는것을 보자 소위 국군놈들은 황겁해서 여섯동무를 다시 여지로 차에 태운채 풍기(豊基)를 거쳐 단산면지서로 왔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놈들은 경관과 합세하여 군중을 강제동원시킨뒤 김제룡 정후진 권령찬 세동무를 끌어내어 총살을 하려하였다 그러나 이때 세동무들은 총부리 앞에 가슴을 내밀면서

「인민공화국만세」
「김일성수상만세」
「로동당만세」를 목이 찢어지라고 웨쳤다 이 만세소리가 끝나기전 세방의 총소리는 젊은 인민영웅들을 차례로 꺼꾸러뜨렸다

이 광경을 본 군중들은 격분과 배통을 참을길이 없어

「대체 저놈들이 무엇때문에 생사람을 이처럼 죽이는것이냐」고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놈들은 소란한 군중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나머지 권병모 정윤진 그리고 도민청에서 온 올그 이렇게 세동무를 끌고 호젓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총살하여 버렸다

앞서 정규봉동무가 영주읍 상줄리에서 총살당한뒤 현장에 모였던 군중들이 시체를 둘러싸고 흐느껴 비통의 눈물을 흘릴때에 정동무의 어머니는 분함과 슬픔에 떼쳐오르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의연히 시체앞에 나서며 「여러분 조금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은 오래전부터 인민공화국 세우는

떼 바쳤소 우리들은 슬퍼할것이 아
니라 원백성이 일어나서 미국놈과 그
앞잡이 리승만매국단정을 뚜드려 부
십시다 내 자식은 옳은 일에 영광
스럽게 죽었습니다」하여 만장을 숙
연하게하면서 흥클어진 아들의 머리카
락을 자꾸만 쓰다듬어주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하룻동안에 일곱사람의 우
리인민영웅의 뜨거운 피가 조국의 통
일과 자유를 위하여 공화국 남반부
의 땅을 적신것이다 과연 그들의 육
체는 쓸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
은 직후 영주 봉화 안동 레천에 걸
쳐 인민무장항쟁이 날로 치렬하게 일
어났으며 오늘에 와서는 놈들이 빨
래야 빨수없는 공고한 유격지구가 되
어 있으니 이 동무들이 뿌린 선혈
이 그 방울마다 꽃을 피운것이 아
니고 무엇일 것이냐
시인의 한분은 이들이 경찰에서
고문과 갖은 악형과 싸우며 조직의
기밀을 사수하는데 바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이
육체의 고통이
삶에의 유혹이
누구에게서나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함부로 뽑을수 있다고
믿는 원수를 생각할때
동무들이여 어찌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후회 할것이냐
참을수 없는 통고와 박해가
각각으로 엄습하던 지난 몇주일
죽음보다 잔혹한 순간속에서도
가슴마다 도도히 흘러
끊이지 아니한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一〇월영웅의 당의 당원이다
우리는 五·一〇용사들의 당의 당
원이다



(1)『빨갱이 한놈만 잡아도 출세한다니까』

(2)「옳지 좋은수가 있군… 아무놈이고 붙잡아 빨갱이라 하면 그만이지」

(3)「제발 내 목숨만 살려주―」

귀 기울이면 스며드는
동무들의 가쁜 숨결
어둠속에 떨어지는 흰 눈송이
다시 들려오는 무거운 신음
아 이 단 하나를 위하여
전력으로 살아있는 순간은
얼마나 황홀한 것이었더냐
인제 차가 고개를 넘어
비탈을 내리면
숲 그윽한 「굴포」마을과
사시로 물소리 맑은「산출」부락이
좌우로 널려 있고
락동강 긴 물줄기 가운데로 흘러가는
산기슭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놈들은
가슴에 총을 겨누고 우리의 얼굴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찾으려 가까이 올
것이고
사랑하는 조국의 땅우에 우리들이
이마를 부비고 넘어지면 또 다시
우리의 죽음을 믿으며 허리를 굽
힐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감기전
공포에 떠는 놈들의 얼굴을 볼것
이며
놈들의 굽혔던 허리가 펴지기전
저 이깔덮인 골짝에
고푸라 늘어선 냇가에
울음소리 들리는 마을 마늘에
저 눈 덮인「소백산」「도솔봉」
기적 울리는「죽령」고개에
우리들의 노한 눈이 앞으로 앞으로
발을 구르며 총을 메고
이리로 올것이고
우리들의 피에 어린 땅우엔
해마다 오곡이 우거져
불행하였던 동포를 위하여
물결처럼 이삭질 것이다
동무들이여 어찌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후회할 것이냐―



(4)「자! 옷을 바꾸어 입자」

(5)「경찰본서로!」

(6)『지서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무기를주십시오』

(五八페―지에계속)



백 인 준

一、우리 여기 왔노라

의거입북한 「국방군장병」을 맞이
하여

「보지마라 듣지마라 말하지마라」
영창의 담벼락 하늘에 치솟고
헌병놈 고무호―스 무푸레작대기
칭칭 감기어 살점을 뜯어내도
「죽여라 불질러라 빼앗아내라」
오직 학살로 때려모는 역적의 호
령소리
포성보다 사납게 귓전을 치고
피에주린 군화소리 누리에차도
祖國이 밝히는 빛은 가리우지못하여

인민이 부르는 소
리는 막지 못하여
오늘 우리는 여
기 왔노라
공화국기 휘날리
는 북조선으로
三八선 험산준령
에 눈보라치고
피에주린 놈들의
보초막
살륙을 휘몰아 앞을 막아도
조국으로 달려오는 우리앞에는
한줄기 크고도 넓은길 인민의길이
북으로북으로 걸음마다 밝았노라
성조기(星條旗) 거만히 펄럭이는
부산항 부두
침략의 검은구름 현해탄을 뒤덮고
갈매기도 길잃어 설레이건만
조국찾아 달려오는 바닷길 엔
무지개도 북을향해 뻗치어있었노라
아 이제
삼색도 아름다운 공화국기밑에서
우리들 머리위에 재생의 태양
인민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칭호

신생의 맥박은 조수처럼 구비친다
떠나와 보니 원한도 새로운
남천을 향하여 고함치노니
들어보자 역적들아
어느때 어느놈이
인민의 가슴에서
조국의 두 금자(金字)를 오려낼
수 있었더냐
어느때 어느놈이
인민의 눈동자를
망국으로 먹칠하여 메꿀수 있었더냐
물으라 역적들아 매국노들아
우리 온길을 다시 가리라
조국통일의 크나큰길을
인민의 대열속에 어엿이 끼워
망국의 종살이하던 그 원한을
재생의 충성으로
물결같이 질풍같이 달려가리라
남산 북악에 공화국기날리고
원쑤를 처부시는 심판장으로
우리 가리라
다시 가리라

二、돌려라 총부리를 원쑤들의 가슴에

그대들 비록
미국놈 작업복을 몸에 두르고
망국의 종살이에 발목을 매웠건만
가슴에 손을얹고 숨소리 낮추어
고요한 한밤에라도 귀 기울여보아라
인민의 숨소리는 그속에 들리리니
듣느냐 그대
바로 그대의 늙은 어버이
땅을 내라 웨치며 앗가슴 벌리고
카빙총 향하여 달려드는 소리를
바로 그대의 나어린 아들딸들
고사리같은 열손가락 움키어들고
밥달라 목쉬어 우는 소리
또한 듣느냐 그대
바로 그대의 형과 아우들
『군경』을 쳐부셔라 아우성치며
호밋날 높이들고 달려오는 소리를
그렇거늘
그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원쑤놈의 총자루를 잡고섰느냐
똑똑히 보아라 눈이 있거던
그대의 발뿌리
미국놈이 팔아먹은 그 군화뿌리에
누구의 백골이 밟혀 구느냐?
아들들이여
조선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에게도
어린날 어머니 젖가슴 매만지던 손
이 있거던
방앗쇠를 잡은 손바닥을 뒤집어
햇볕에 똑똑히 밝히어보라
지금 누구의 선지피가 저기묻어
있느냐
아들들이여
조선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에게도
어린날 어머니 젖당을 빨던 혓바
닥이있거던
한번만 입을 열어 대답해보라
오늘 남조선 하늘밑 산과 들에
나날이 커져가는 통곡소리가
누구의 목을찢고 나오는 소리냐?
오늘 그대들에게
제 부모를 죽여라 호명하는놈이
그 어느놈 그 어떤놈 누구 누
구냐?
그대
이나라의 아들이거던
그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거던
총부리를 돌려라
원쑤에게로
그대의 원쑤 조국의 원쑤
리승만 역적들의 목구멍을 향하여
놈들이 사들인 미국제 총부리를
돌려라 돌려라 한결같이 돌려라
바로 그대의 아버지가 부르는대로
바로 그대의 어머니가 부르는대로
바로 그대의 안해 동생들이 부르
는대로
돌려라 총부리를
원쑤의 가슴에로

새로 창립된 우리들의 청년공장

공화국 전체청년들의 환희와 감격속에 지난 一월九일 본궁화학공장 청년공장이 새로 창립되었다 이 청년공장의 창립은 우리 공화국에서 처음보는 청년들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청년들이여! 생각해보라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청년들의 로력을 가혹하게도 착취하던 그때엔 불러보지도 못한 이름이 아니냐 청년공장―이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의와 보다 훌륭한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준다

영웅적 쏘베트군대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그 은혜와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청년들의 영예의 장이신 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올바른 령도를 받들고 정부와 그리고 로동당의 지도밑에 경제건설에서의 혁혁한 로동청년들의 성과를 기초로한 토대우에서 청년공장은 창설되었다

이제 창설된 청년공장은 공화국경제건설 분야에서 선진적인 증산경쟁운동형태와 작업방식을 창의창안하여 전체 공화국의 로동자들과 로동청년―에게 증산경쟁운동을 고무추동시키는 첫대열의 선구자가 되며 모범적 역군으로 될것이다 또한 쏘련 로동청년들의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섭취하여 새조선산업발전에 광범히 적용하게 될것이다

창립식에 모인 一、○○○여명 청년공장 로동청년들은 모두 가슴 벅찬 새 결의로써 새환경과 새조건에서 보다 새롭게 일할것을 맹세하였다

× ×

청년공장은 일제시대에는 본궁화학공장 공작과라는 극히 적은 존재로서 전공장의 보수부문을 담당하였다 종업원들의 약 三○%는 일본사람들이며 그들만이 기술을 장악하고 조선청년들에게는 기술을 배워주려고도 하지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 공장 전체 로동청년들은 집단적인 로동생활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새로동관념으로 무장되었으며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는 새 기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지나간 四년동안 선진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으로 빛나는 성과들을 쟁취하였으며 실로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준것이다

× ×

이제 새로 청년공장으로 발족된 그들은 자기들의 전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억센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들이 지금 내세운 기본목표는 로동생산성을 一六○%로 제고하며 구체적인 로력조직으로 청년작업반을 개편한 기초우에서 一·四분기 보수공사를 기한전에 완수할것이 예견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四八○분 로동규률강화와 기계를 애호하며 모든 자재를 절약하자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럼으로써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기술교양 및 정치문화교양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며 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영광이며 반드시 이 요색을 점령하여야 된다는 고상한 자각성과 책임감을 높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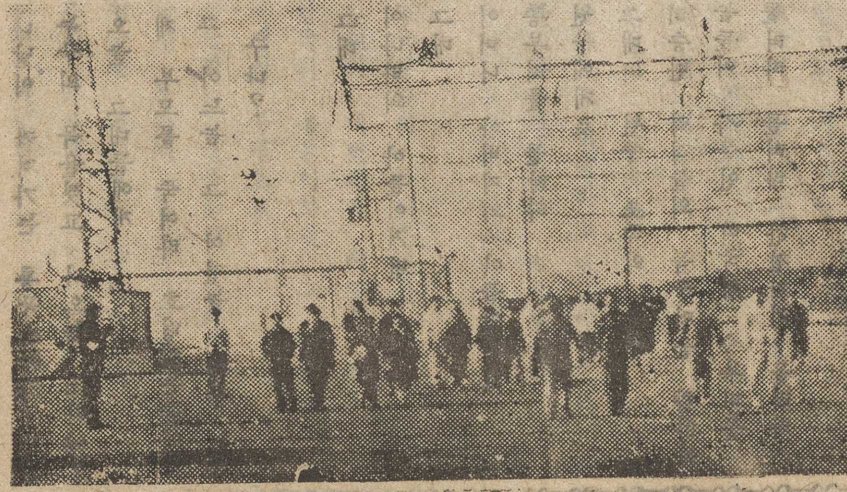
특히 청년공장의 기구가 확장되면서 각시군 농촌청년들이 새로 三七二명이나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에게 기술을 배워주기위해서 이미 일하던 기능자들이 각각 그들을 담당하고 약 三개월동안에 초보적 기능공으로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각부서들에서 기계의 부속품명과 조작(造作)에 대한 리론적 기초 및 운전에 들어가기위한 기초를 배워주고있다 그들은 이제 오는 四월부터는 기계의 주인이 될수있는 기능공이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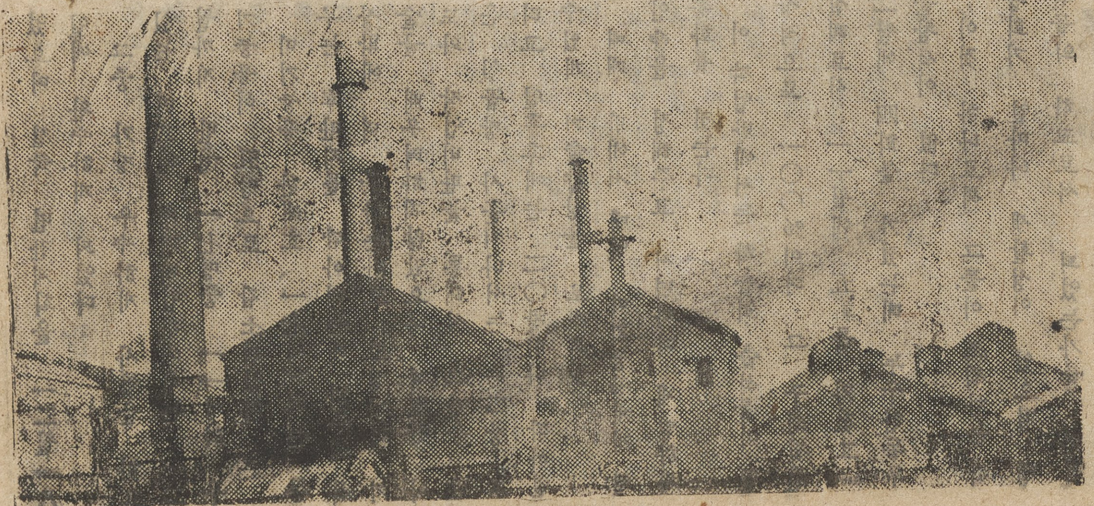
× ×

청년공장은 그 이름 그대로 모두다 청년들의 힘과 청년들의 기술로써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문화사업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체육단을 비롯하여 악단 각종써클이 조직될것이 예견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손으로 청년문화회관과 청년운동장이 봄에 나가서 신설되며 공장앞주택가는 청년거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리 비 형





모범 청년작업반이 될때 까지

‖청년공장 선반과청년작업반‖

청년공장 선반과 청년작업반은 우리동맹중앙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고있는 모범 청년작업반이다

작년 七월까지만 하여도 아직 한 청년작업반에 三五—四〇명의 반원들이 망라되어 있어 실지 그 운영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못했다

즉 한반에 四〇명 가까운 반원들이 망라되었기 때문에 기계의 단속이 분산적이며 작업행정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지도상에 애로가 있었다

특히 미기능공을 기술전습시켜주는 사업도 성과가 적었다

이와같은 애로들을 실지 사업에서 체험한 선반과 초급단체위원장 정인교동무와 작업반장 리보현동무는 시급히 청년작업반을 환경과 조건에 비추어 개편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해 九월부터는 한 작업반을 一五—二〇명 단위로 구성하여 과내에 일곱개의 작업반을 만들었다

그 결과 로력분공이 째워졌고 그 통솔이 매우 쉽게되고 작업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지도를 할수있게 되었다

반원들은 반생활에서 흥미를 가지게되었으며 책임감이 높아지게 되었고 출근률이 우선 현저하게 달라졌나

즉 七월에 九三%였다면

一〇월에 九九•一%

一一월에 九九•三%

一二월에 一〇〇%로 높아졌다

생산계획에 있어서는

一〇월에 一四五%

一一월에 一四七%

一二월에 一八五%

이와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되였으며 결국 년간계획을 一二월一八일에 완수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하고있는 리보현 청년작업반에서는 一二월까지 반원 一七명중 一一명의 무기능공이 五명으로 감소되였다

미기능공 한태호(一七세)라는 동무는 후란지를 깎아내는데 하루에 석장밖에 더 못깎는다고 고집하며 기술을 배우려하지않았으나 세밀한 지도와 작업비판을 통해서 그다음 날은 일곱장 사흘지나서는 一二장 그리고 열흘후에는 二〇장이나 깎아낼수있게 기술향상을 보게되었다

매개 반에서 매일 미기능공에게 책임량을 정해주고 저녁마다 세밀하게 총화를 짓는다

이 작업반에서는 학습회 출석률이 일상적으로 一〇〇%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一一월에 五회를 가졌고 一二월에 四회를 가졌는데 누구한동무 불참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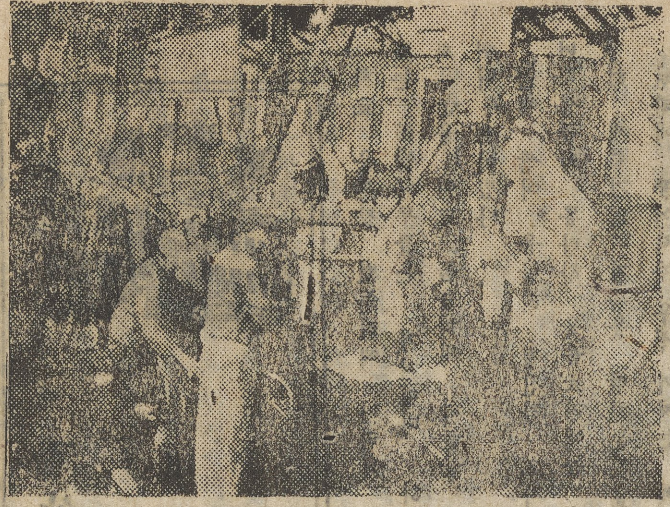
이것 하나로써 그들이 조직하는 학습회가 얼마나 생활성이 있으며 맹원들의 학교로서 되었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하루는 반원 한태춘동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조퇴할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다른동무들의 불꽃튀는 증산의욕과 작업반규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반장앞에서 그는

「내가 잘못생각했어요 그렇게 조퇴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다시 일을 계속한 것이다

이와같이 반원들은 서로 동지애와 우정애에 굳게 맺아졌다 그렇기때문에 결근같은것은 좀처럼 하지않는 아름다운 기풍이 서 있다



☆선반과 청년작업반 작업광경 일부☆

그들은 서로 개인맹세와 호상간의 호소와 호응으로서 민주주의적인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내에 서있는 게시판과 경쟁판에는 개인맹세문들과 경쟁체결에 대한 도표와 조목들이 게시되어 반원들의 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기계와 물자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

물자절약에서 특히 들어야할것은 마신유를 매 선반에서 매일 한홉五작을 사용하던것을 한홉씩 사용하게 함으로써 매월 一八두씩 사용하던것이 一一두씩 사용되게되었다

그리고 마신유로써 손을 씻던 비경제적인 자실들이 근절되었다

그리고 인원이 많지않은 이 선반과내에서 많은 창의고안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중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데 표적인것이 다섯건이나 있다

실례로서 종전에는 가소로 기야를 해결못하였으나 주일순동무의 창안으로 해결되었으며 박운룡동무는 산소조정기를 창의적으로 바이트의 가공으로써 해결했으며 기타 많은 실례들이 있다

이것은 창의고안반이 잘 운영되는 결과이다

이 선반과에 들어서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내가 명랑한 분위기로 조성되어있으며 청소가 잘 되어있는 것과 미화공작이 잘 되어있는 점이다

마치 어느 깨끗한 실내안 같다 초급단체 위원장동무 말에 의하면 그들은 우선 실내안 벽에다가 어떤 색으로 칠해야 실내의 조화미가 나오겠는가 하는문제까지 연구했던것이나 그리하여 꺼먼 선반기와 대조되는 명랑한 색으로 뼁끼를 칠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 선반과 청년작업반원들은 모두 모범적인 작업반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그들은 금번 이 선반과가 청년공장으로서 재 발족함에 감격하여 더욱 자기들의 애국적인 증산의욕과 모범성을 높일데대한 역심 결의들을 가지고있다

일림

고상한 학습 분위기에서 준비되는 새 인재들

—평양녀사전에서—

최 윤 경



학교 운동장 변두리에 나라니 서 있는 백양나무들은 가지마다 하얗게 눈을 이고 늠늠하게 하늘을 향하여 솟아있다

눈에 쌓여 유달리 청신한 교사—녀학생들의 류량한 웃음소리에는 새우히 새학기의 기쁨을 말하는듯싶다

현관에 들어서자 우선 기자는 이런 것을 직감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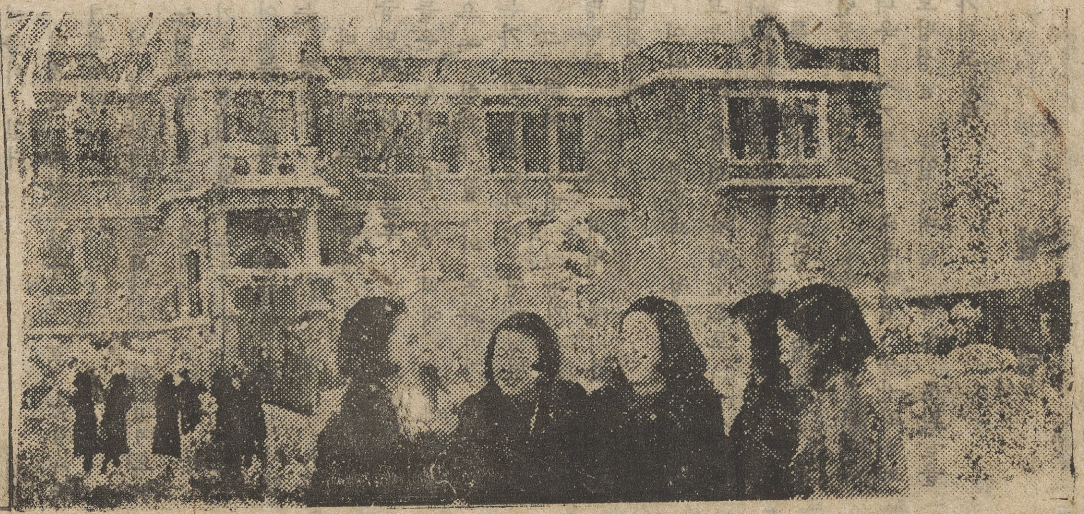
학실내가 깨끗이 정돈되었고 말숙히 닦아놓은 유리창문과 말하며 그러고 녀성다운 솜씨가 빛나는 벽보들어며 모두가 새학기의 새분위기를 말해주는듯 이것만으로써도 가히 그들의 학습분위기를 짐작할수있은 그것이다

벽보 에는 「五계단에의 길」「민청반사업을 강화하자」「나의 로여학습에서」 라든가 「나반부 학생들에게 드린다」 등등 학생들의 주장과 결의와 아름다운 생활들이 반영된 기사 시 수필들과 많은 사진화보들이 보기좋게 창의성있게 나 붙어있는것이다

× ×

「우리학교에서 민청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하고 겸손하며 침착하게 말하는 민청위원장 리신주동무는 계속해서「우리는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이후 특히 고상한 학습분위기를 창조하기에 노력했지요」하고 자기의 사업경험을 말하는것이다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민족간부로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은 반드시 고상한 학습규률을 강화하며 매과목별로되는 분석적지도에 그 고리가 있다는것을 가르침에 비추어 민청간부들은 이에 적극 노력하였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

一학년四반학생들의 사업은 락후한 형편에 처해있었다 지각 결석등 학생규칙 학습규률을 문란히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었으며 락제생들이 있었다

이는 이 초급단체간부들이 민청사업 경험이 없는데로부터 사업조직이 서툴으며 더우기 학생들의 학업에대한 영예감을 높여주는 정치사상적 교양을 미약하게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학교위원회는 맹원들의 실생활을 료해하는데로부터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며 애로를 해결해주는한편 간부들에게 사업을 배워주고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부장 김옥주동무의 개별적 사업지도는 효과적이었다 또한 쏘련교원들의 영예로운 생활과 투쟁모습을 소개하는 강연회는 一학년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북돋아주었다 이리하여 차츰 새로운 학습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생규칙은 준수되고 학습규률은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이학교전체출석률은 九三%로부터 九八●五%로 높아졌다

학교위원회는 또한 학생들의 락후한 과목을 퇴치하는사업에 나섰다

학교위원회는 교원초급단체 행정측과 긴밀한 련계밑에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보충강의 학과토론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이에 적극 참가시키게하는 것으로부터 매과목별로되는 분석적지도를 매개초급단체 민청반에서 진행할것과 매개인에대한 옳지못한 학습 경향에대한 동지적학습비판을 강화할것을 중요시하였다 학교위원회의 이와같은 고려는 매개 초급단체 민청반의 구체적실정에 의하여 실천되었다

二학년 조원희동무의 민청반은 자기반내 조기복동무가 수학문제의 해답만을 암송하고 이러저러한 공식을 기타 응용문제에 적용할줄 모르는데 대하여 시정하여 주었다

침착하고 분석적인「조원희동무의 모범민청반의 뒤를 따르자」는 구호는 전학급에 파급되었다 이리하여 二학년四반의 전체점수는 一학기에 三·八로부터 四·五의 우수한 성적으로 높아졌다

二학년 리지옥동무가 자기취미에 맞는 음악에만 치중하고 자연과학과목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초급단체는 시정하여주어 그가 제일 락후했던 물리를 四계단으로 높이게 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게하였다

이러한 학습에서의 동지적 리해와 원



☆민청학습반의 학과 토론회☆

조를통하여 새로운 학습기풍 더욱 아름다운 학습도덕이 수립되었다 학습에서 호상원조와 협력에서 오늘 二학년 二반은 二二명이나되는 락제생을 근절하였다

이학교에는 예능과목이 많기때문에 타의 학교에비하여 학과가 많은편이다 그러나 二四과목이나 되는것을 학생들은 조리있게 진지한 태도로써 학습하여 각방면으로 발전된 새인재가 되기위하여 노력한다 「낮과 밤」「무지개」「농토」「땅」 등 신간서적을 매월 五권이상씩 정독하고있는 박정숙 양배용동무나 전국적학생체육선수 이름을 가지고있는 이학교 체육부장이나 다 二四과목중 四계단이하의 점수는 하나도없다는것이며 모두 우등생들이다

이러한 학습실력제고를위한 투쟁에서 학생들은 맑쓰—레닌주의로 자기들 튼튼히 무장하며 선진적세계관을 확립하면서있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학습한것이 고귀한 과학적지식이며 선진적 리론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실생활에 침투시키기에 노력한다

그들은 실습에서 또 지난 동기방학간 정의재교육사업에서 사회측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지식이 인민의 실생활에서 실지 유용한것을 느꼈을때 우리는 더욱 학습할 결의를 다졌다는것이다


☆학생들은 선생에게서 항상 개별적 지도를 받는다☆

이와같이 그들은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 새력사를 창조하는 힘찬 새인재들로 준비되고있다

특히 공화국의 력사적 교육정책으로 되는 一九五〇년도부터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를 앞두고 이학교학생들은 자기학습에서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국가적임무임을 더욱 가슴에 아로새기고 새나라 새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의 영예감에 불타고있다

전체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결의도 새롭게 공화국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훈사를 높이 받들고 「전실하고도 견장한 전투적기풍을 수립」하기위하여 총직군하고 있으며 더욱치렬한학습분위기에서 자기의 삶의기쁨을 느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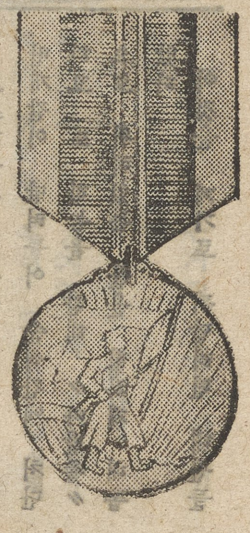
고상한 학습기풍— 이는 자기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국사상의 발로이며 과학의 요색을 점령하려는 젊은이의 치렬한 투쟁의욕이라는것을 기자는 그들과의 담화에서 더욱 느꼈다

기자가 교실을 나올때 어떤 인민학교학생들이 이학교 학생을 만나다정하게 「선생님」하면서 무엇인가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지난날 교수실습에서 친해진 어린이들이 찾아온것이다 「어떤때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에까지 찾아와곤난하지요」하고 민청간부들은 웃음진 얼굴로 말한다 —이윽고 기자가 백양나무 선 정문밖에 나왔을때까지도 학교내 음악써클원들의 합창소리는 더욱 아름답게 울려오는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군공메달을 받았는가





안동규 동무

공화국 경비대의 위력있는 전투력과 백절불굴의 투지 드높이 리승만괴뢰군경들을 철저히 소탕하는 가렬한 전투속에서 불철주야의 투쟁으로 혁혁한 군공을 세운 수많은 젊은 용사들가운데에는 三八경비대 ○○부대 직속중대 부소대장 안동규동무가있다

그는 일찌기 강원도 통철군 학일면 마차리의 빈농가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 가혹하게도 지주에게 시빨리던 그는 조국해방과함께 영원한 땅의 주인이되었으며 기름진 땅 二천五백여평을 분여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북바쳐오르는 감격도 새로이 해방된 이나라 청년으로서 더없는 영예인 조국보위의 초소에 작진 나섰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용감하였다

수다한 전투가운데서도 특히 지난 七월 이북지역을 불법 침입한 「호림부대」를 포착 섬멸하는 투쟁에있어서 기민하였고 대담하였다

우리 경비내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산산히 흩어져 패주하여다니던 「호림부대」일부 잔존도당들을 포착하여 놈들을 소탕할 과업이 안동규동무에게 하달되었다

그는 교묘한 의상으로 가장 한다음 대원을 다리고 수색하던중에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서 지냇가를 끼고 나라니선 五、六호의 농가를 발견하게되었다

주위깊게 사방을 정찰하였으나 집안은 아무 인적도 없는것 같았다 얼만가 더 가까이 갔다 돌연히 우측숲속으로부터 뛰쳐나오면서 집안으로 뛰어드는 원쑤 한놈을 발견하고 그의 신경은 온몸에 집중되었다

필경 이 부근에잔존도당이 숨어돌고 있다는것을 확신하면서 주의깊게 북보진진하였을때 놈들이 이북농민들로부터 쌀을 강탈하여가지고 「빨리 짐을 나르라」고 밉살스럽게 호통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보초

그는 어떻게 군공메달을 받았는가

二명까지 발견하였다
또한 더 주의깊게 사방을 정찰한 결과는 약二〇메-터 후방에 한무리의 이리떼같은 원수놈들이 서리맞은 풀대처럼 늘어져있는 것을발견하였다
그는 불리한 지리상 조건하에서도 도리어 놈들을 일순에 소탕해버릴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보초와의 거리는 불과 五메-터!
「무슨 인적이 나지않니?」
주고 받는 놈들의 소리가 빤히 들려올때마다 그의 가슴은 주저앉았으나 대담하게 숲속을 기어 더 접근하였다
놈들의 빈틈만 엿보는 지리하고 안타까운 순간!— 몇시간이 흘러 어느듯 황혼이 다가왔다
보초한놈의 빈틈을 찾아낸 그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처단하고 또 한놈을 향해 〃따발총〃으로 위력있는 불을 힘차게 내뿜았다
이것을 계기로 뒤달리던 대원들이 미친듯이 달려드는 개무리들을 한놈 남김없이 처단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그후 수차의 전투에서 침착하고 과감하게 침입하는 적들을 영용하게 무찌르는 빛나는 군공을 세워 지난 一二월二五일 영예의 군공메달을 수여받았으며 계속하여 인민들의 평화로운 창조적 노력을 초소에서 믿업게 지키고 있는것이다

채기남 동무

그는 정치 군사학습에 우수하며 소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역활을 놀고있다
짬있을 때마다 자기 분조와분대 혹은 소대내에서 배운문제들을 전체동무에게 알려주며 학습한 선진적리론을 실지 생활과 전투행동에서 실천하며 빛나는 공훈을 세우고 있다
그는 부대 감시병으로서 전투시마다 나타나는 적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보고함으로써 놈들을 왈전 소탕하게하여 공화국 경비대원으로서의 영예를 지니고 있으며 그는 가장 곤난한 전투적 환경속에서 조국과 인민이 준 자기의 자랑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그는 부대감시병으로서 또한 조창으로서 자기 조원들을 옳게 장악하고 배치하여 〇〇방면의 전투시에 뛰어난 용감성과 침착성을 나타냈다
어느날! 새벽 四시! 적은 약 一개소대의 병력을 가지고 살인귀와같이 침입하여왔다 이동무는 부근지점에 잠복하여있다가 적을 약三〇메-터까지 접근시킨 다음 적을 완전 소탕하였으며 약 반시간이 지나 다시금 접근하여오는 二〇명의 적을 五〇메-터까지 인입하여 이놈 소멸 격퇴시키고 계속 잠복하여있을때 적은 다시금 二개소대의 병력으로 반격하여왔다
그때도 역시 그는 적을 六〇

그는 어떻게 군공메달을 받았는가

메-터까지 접근시켜 놈들을 완전히 소멸 격퇴시켰다
약 一시간후에 적은 또다시 二개소대를 모아가지고 약 五〇메-터의 거리를 두어 二명의 감시척후를 앞장세워 七〇메-터 가까이 접근하여왔던것이다 채기남동무는 우선 적의 감시척후 二명을 四메-터전방에서 사살한후 적을 격퇴시켰던것이다
그결과로 M·1보총 一정과 탄환 二〇〇발을 전리품으로 로획하였다
그날 밤에도 그는 숨들일 사이도 없이 잠복하여 감시를 계속하다가 이틑날 아침 四시경에 또다시 一개소대의 력량으로 반돌격하여 오는 적을 역시 五〇메-터지점까지 유인한 다음 적을 완전소탕한것이다
이와같이 채기남동무는 잠복전투로서 六차나 되는 적의 박격을 용감하고 기민하게 소멸시켰고 감시병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부상당한 동무들을 포탄이 비오듯하는 가운데서 혼자서 용감히 구급처치하여 위생처까지 재빠르게 운반하였다
채기남동무는 이와같이 침입하여 들어오는 반동원쑤들의 악랄한 습격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여 혁혁한 군공을 세웠으며 전체군무자들의 모범으로되였다
조국은 그의 가슴에 영예에 찬란한 군공메달을 달아주었다
앞으로도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길을 영용하게 달려나아 갈것이다



☆ 군공메달을 수여받은 영예의 전사들



기업소내에 있어서의 공청반

그·뽀따뽀브

김 창 천 역

공청반은 공청초급단체의 기본적 고리이다 공청반은 전체 초급단체의 사업성과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범위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 공청구루빠에서 매개 공청원의 교양문제들과 그를 적극적인 사회사업에 끌어넣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때문이다 기업소내의 공청원들과 청년들앞에 제기된 제과업들이 공청반을 통하여 생활속으로 침투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청반의 적극적 활동이 없는 전초급단체와 사업이란 무의미한 것이라는것을 실제가 보여주고 있다 조직되고 결속된 공청반— 이것은 공청원들과 청년들을 교양적 영향을 줄수있는 커다란 힘을 가진 전투적 공청집단이며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업과 유효한 계획착수의 발의자이며 조직자이다 공청반의 불충분한 사업과 그에대한 전련맹 공산청년동맹 위원회 시 공청 구역공청 및 직장지도부의 부주의는 공청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들을 초래하게 하며 공청단체의 위신에 커다란 손상을 주며 전련맹 공산청년동맹 맹원의 교양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등한하게 하는것이다

지난 二개년동안에 류브리노시 공청단체들에 의하여 공청반을 강화하며 그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보급시키는 주요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나는 이 론설에서 이에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과거에 있어서 까가노비츠공장 공청위원회는 공청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四七년말에 모쓰크바공청위원회 지도부는 공청단체사업을 극히 약화(弱化)시키며 그의 전투성을 상실하게하며 청년들속에서 위신을 저하시키게한 공청반에대한 불충분한 지도에 대하여 공장위원회에게 엄중히 지적하였다 공청위원회는 그때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 모쓰크바시위원회의 이 엄중한 비판을 옳게 리해하였으며 一九四八년에 있어서는 당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정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공장에 있어서 공청반은 전투적이며 조직적으로 강한 단위로 되었다

작년에 있어서 까가노비츠공장의 공청원들은 적지않은 성과물을 걸우었는바 그들은 저명한 사업들의 저격수(狙擊手)로 되었다 모쓰크바주(州)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장중의 하나인 이 공장에서 경제절약 실시를 위한 투쟁에 공청이 적극 참가할데 관한 발의를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작업반 축적계획제도와 인명절약계시(人名節約計示) 제도에 관한 제의를 한 주강(鑄鋼) 직장의 우수한 조형공(造型工)인 왈렌찌나 포미나의 작업반의 유명한 창의(創意)가 탄생되었다 공청원들은 공장 전체 집단원들가운데서 자기의 위신을 훌륭하게 제고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은 공청반의 대다수가 공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 사업을 한 결과라는 것을 확신있게 말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력기계공장과 기관차 차고(車庫) 공청단체들의 사업경험이 완전히 확증(確證)하여준다

이와 반대로 화물차 차고 공청지도기관의 례는 공청반의 비활동성은 불피코 공청사업의 쇠퇴를 가져오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소내 공청 지도기관 공청위원회 및 직장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공청반으로 하여금 자기가 할 주의의 중심을 확고하게 틀어쥐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반 활동의 약간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근거위에서 공청반을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원칙이 그의조직기초로되어야겠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도시에 있는 기업소들은 생산의 성격에 의하여 매우 많이 구분되어있다 그들가운데는 주형공업기업소 시립 식료품종합공장 기업소 철도분구기업소 및 기타등등이 있다 우리도시의 경험은 주형공업기업소들(까가노비츠공장 동력기계공장)에서는 공정별 부문별 또한 교대작업을 고려하여 조직하여야 하며 철도분구기업소들에서는 직장별 기관차 차고별 및 기타등등으로 조직해야한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청반은 반드시 교대작업을 고려한 생산단위로써 조직해야하는 것이다 각이한 교대로 일하는 공청원들을 그 성원으로 하는 반들은 사업에 있어서 비생활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가 보여주고 있다 기업소의 성격에 의하여 반조직의 기초를 각종생산단위로 잡아야 된다는것을 고려해서 각기업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시위원회나 구역위원회에 적절(適切)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초급단체의 제의를 매우 주의해서 대하여야 한는 것이다

반의 성원을 확정하는데 특별하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이다 기업소의 공청위원회 특히 공청의 직장지도부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따라서 반과 반의 공청원들의 이동(移動)에 의한 실제홍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비창조적(非創造的)인 경우와 많이 부닥치게 되었다 우리들께 있어서 이것은 특히 철도분구기업소와 시립 식료품종합공장기업소에서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 二년반이나 되는 반의 고정성원은 견고히 조직결속된 집단을 이룬다 그의 성원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새로 공청에 가입하거나 혹은 새로 공장에 들어옴으로 의해서만 증가하는 그런 근로하는 전투적 반이 얼마나 규칙적이며 훌륭한 것인가! 그렇기때문에 공청위원회와 직장지도부는 제일먼저 반원에 대하여 심심한 주의를 돌려야하며 당단체의 원조밑에 또한 경리일군들을 통해서 소정 작업반 부문 및 교대반에 있는 공청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청반원은 다소 고정해진

것이다 박원들은 공청초급단체 위원회가 비추하는것이 합목적적이다 공청단체들에서 때때로 반의 총결—선거회의실시기간들에 대한 완전한 비체계성이 허용되고있다 한직장에서 반의 총결—선거회가 지나가자 다른 직장에서는 二、三개월후에 하고 세째직장에서는 다만 그의 실시를 예정하는것과 같은것들이다

이것은 무엇을 초래하는가? 그와 같은 경우에 공청위원회와 직장지도부는 이미 끝맞추어버린 다른 모든 지나간 사업들에 머뭄으로써 반의총결과 선거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지못하고 그를 멋대로 집어치우는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그들(공청위원회와 직장지도부)은 누가 반장으로 선거될것인가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못하는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반장이 훌륭한 젊은 생산자이며 위신있는 집단성원이어야함은 중요한것이다

각단체는 반의 총결—선거회의실시에 대한 소정된 전기간을 설정하여야하며 나아가서는 그를 굳게 엄수하여야하는것이다 시 원회나 구역위원회는 각기업소의 공청반들에서 총결기간준수에 대해서 주의깊이 검열하여야한다

공청반은 무슨일을 하여야하는가?

어떠한것들이 그의 기능이며 임무인가? 공청반의 활동성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조직앞에 또한 기업소에 제기된 과업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청반을 통해서 모든 계획들과 조직의 모든 결정들이 생활속에서 침투되어야 하는것이다

생산계획완수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것은 반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하나로 된다 공청반의 의무는 공청원들과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 경쟁으로 더욱 광범하게 인입, 키며 젊은 로동자로 하여금 사무상 책임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의 수행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주의를 돌리며 자기들의 회의에서 누가 앞으로 나아가며 누가 뒤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며 락후자를 앞선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로동규률을 강화시키기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함에 있는것이다 우리도시의 기업소 공청반들이 생산계획을 기한전으로 완수하기위한 사회주의 경쟁에 적극 참가한 많은 례들을 들수있다 례를 들어 까가노비츠공장에 있어서 콘스딴찐 완뉴슈낀의 공청반은 계획을 위한 또한 五개년계획을 위한 얼마만한 창의와 고안을 하였는가?… 이반에서 락후자와 「보통—로동자에 대한 선구자들의 지도에 대한 유명한 창의가 탄생되었는바 반장인 와뉴슈낀동무자신이 이의 발의자인것이다 동무들에 관한 고려 자기기업소 모든 집단원 및 생산계획의 운영에 대한 훌륭한 공청적 배려가 이 창의에 기초하고있다. 기관차 차고에있는 아나뚤리 차브낀의 공청반은 청찬의 명성을 받게되었다 그들의 공청—청년호 기관차는 四분기마다 공청 모쓰크바시위원회와 모쓰크바현 위원회의 이동「적기」(승리의깃발…역자註)를 쟁취하고있다 이 기관차의 집단원들은 매 왕복시에 있어서의 수익성과 경쟁조직 五〇〇키로메—터의 매 일주야 주행거리를 위한 투쟁의 발의 의 하나로서 진출하였던것이다 기업소의 공청단체들은 사회주의 경쟁에 참가하면서 경제절약제도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까가노비츠공장의 공청단체는 공청반을 통해서 전체청년 로동자들

을 경제절약제도를 위한 사업에 인입시킬수있었기때문에 현저하게 이루쟁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걷우었다 공장에있어서 공청반에는 참으로 규칙적인 공청검열지점들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반들로 하여금 랑비를 반대하며 수익성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게 하였다 와로와라 오로비바야의 우의적이며 결속된 공청반에서는 왈렌찌나 포르머나야 작업반의 유명한 창의가 나섰다

화물차 차고에서는 안나 유라스바야의 공청반의 기관차 차고에서는 나따샤 리조바야의 공청반의 경영계산의 전변에 대한 발의자들로서 나타났다

이직장들의 공청—청년집단들은 매달 많은 자재 및 자금의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청반은 청년들을 경제절약제도를 위한 투쟁에 인입시키면서 이 중요사업에서 자기의 위치를 관정하며 경제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자기에 지우는데 있어서 매개청년로동자들을 원조하며 채택된 책임수행 제시를 조직하고있다 양호한 로력조직 생산기술교육 및 청년들의 물질—생활조건에 관한 고려와 같은 문제들이 공청반의 시야에 항상 제기되어야 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책임자 관리자 그리고 기업소 지도자들과 반장과의 면회를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공청위원회들의 실례는 주목할 가치가있는것이다

공청위원회들이 공청반들을 심중하게 일상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나 교양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매우많은 성과들을 내고있다 그와같은 조직들에 있는 공청원들은 자기의 정치적 및 일반교육적 지식을 높이며 모든 사회정책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례를 들면 슈르 막심모부가 지도하는 기관차 차고 석정직장의 공청반이 그런것이다 이반에는 一二명이 있다 그들은 모두 스따하노비쯔들이며 정치구르쇼크와 로동청년학교에 참가하고있으며 모두들 도서관의 열성적 독서가들이다 이반은 자기들의 결속되고 우의적인 집단임을 보여주고있다 공청원들은 같이들 영화관 또는 극장에 가며 직맹—공청대항경주회에도 같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제三인터내쇼날구락부 근방 광장 운동장건설에도 우의적으로 협조적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까가노비츠공장 주강직장의 안나 라자레바야공청반과 동공장 김야주쉐브의 공청반 그리고 많고많은 기타 공청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것도 얼마간 흥미있고 교훈적이라 할수있다 공청위원회의 과업은 각공청반까지 파급되어 모든 공청반이 결속되고 전투적이며 생활력있는 반이 되게끔—이와같은 공청반은 우리의 전위대이며 그에대하여서는 언제든지 신임할수있으며 그에의하여 공청사업의 다른 문제들도 손쉽게 해결한다—하기위하여 노력하는데있다

공청위원회와 직장지도부는 공청반사업을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공청원들을 로동과 자기직책에대한 애착심과 규률과 조직성으로써 교양하는데로 지도하며 청년들에게서 숙련기술을 높이며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열의(熱意)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공청반은 일반교육적 및 정치적 지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공청원들을 도와주며 청년로동자들의 생활과 조리있는 휴식에대해서 배려하며 공청원들에게서 생산에있어서 뿐만아니라 작업외에서 특히 기숙사

에서 집단주의적 및 동지적 감정을 교양주고있다

마리야 브크레예바가 공청반장인 그 공청반의 례는 대체 아무 모방할 가치가 없는가? 어느날 이반에서 공청원 쉐스따꼬브는 중병에 걸며 그를 병원에 눕혀놓았다 그는 혼자 남아있지않았다 공청원들은 매일같이 그를 방문해서 그를 주의깊이 간호하였으며 병원에 꽃과 선물을 가져다주었다 그와같은 배려는 쉐스따꼬브와 반의 동무들간에는 끊을수없는 우정의 반쇠(絆鎖)가 맺아졌다

상호하고 협조적이며 성과있는 공청반 활동의 제一 첫조건은 전체공청원들을 사업에 이끌어 넣으며 일상적인 실행정열을 조직하는데있다 훌륭한 공청반들에 있어서는 항상 매개공청원의 책임이 명확하고 조리있게 규정되어있다 례를들면 까가노비츠공장의 꼰스딴찐 와뉴슈낀공청반에 있어서는 책임들이 이와같이 나뉘져있다 즉 공청원 꼬를레브는 체육위원 졸따에브는 대중문화위원이며 찌도린에게는 생산사업계산의 실시가 맡겨져있으며 슈웨드와 이그나젠꼬는 절약에대한 공청검열지소의 위원이며 모로노브는 신문보고자이며 지노브낀은 공청회의의 출석자 계산과 정치구르쇼크의 과정시간수를 조사한다

공청반장은 위선 조직자이며 그의 임무는 전체공청원들을 사업에로 인입시키는데있다 그는 자기반의 매개공청원과 그의 능력과 취미를 잘 알아야하며 공청원들간에 위임분담을 옳게 해야하며 그리하여 각자가 진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직장과 기업소에 많은 리익을 가져올수 있게끔 하여야한다

상시적(常時的)위임과함께 공청원들에게 림시적 성격을 띈 위임 시기적위임을 줄것이 필요하다 반사업과정에있어서 그와같은 문제들은 매일 매시마다 일어나는것이다 공청원들에게 부리가―다를 쓰는것을 위임하는것 박물관견학을 조직하는것 게시판을 기입하는것―이와같이 복잡하지않고 평시적(平時的)위임들은 역시 거대한 교양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공청원이 그 위임을 완수하면 그에게 다른것을 주어야한다 광호한 사업과 완수된 과업을 게시하여야하며 공청원의 발의와 창의를 지지하여야한다 이와 반대로 반의 위임에 대해서 배만적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과업을 완수못한 모든 경우에는 전체집단원들의 비판대상으로 내놓아야한다

나는 반사업의 계획화에대하여 많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계획작성은 전반년들의 문제이다 반사업의 목표를 세우는것은 다만 반장이 매개공청원들과 상담하여 그의 제의와 의견을 심중히 청취하며 당조직과 직장공청초급단체비서의 승락을 부탁한후에야만 행해진다 사업계획은 반회의에서 심의되어야한다 지정된 사항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을 분담시키며 집행시간을 결정하며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고있는가를 규칙적으로 검열하여야한다

반의 공청적운영에대하여 몇가지말한다면 몇몇공청단체에서는 공청맹원들의 등록방법에있어서 중대한 결함들을 갖고있다 례하면 까가노비츠공장에서는 약 六〇명의 공청원들이 등록으로부터 제거함이 없이 있었다 이에대한 원인의 대부분은 공청반장에게 지어지는바 왜 그러냐하면 공청반장들이 자기반의 공청원들을 등록하지않았으며 제때에 반으로부터 공청원들이 퇴거하는데대하여 직장지도부와 공청위원회가 편성을 하지않았기때문이다 반장은 자기반의 명단을 가져야한다 반운영에서의 둘째 서류는 사업계획이다 결국 반장은 공청반의 전체활동을 주의해보아야 하며 일반화해야한다 어에대하여 일지를 쓰는것이다 일지에는 반이 실행한 전체취급정형을 기입하게된다 여기에는 공청원들의 감상과 그들의 의견 및 제의들을 상세히 기술(記述)하게된다 일지에는 반사업계획수행에대해서 기입하여야한다

직장지도부로부터 공청반들에대한 일상적인 고려는 공청반들의 성과적사업에대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중의 하나이다 직장지도부는 반전원들의 문제에대하여까지 집중하게 취급하여야한다 특히 내가 이미 말한바와같이 사업교대와 이러저러한 고정적인 생산단위에 기초해서 반을 조직할 의무등의 제요소들을 고려하여야만된다

중요한 문제는 공청반장들의 구성문제이다 공청반장은 훌륭한 생산일군중에서 선발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많이 말할 필요가없다 그의 위신은 청년들속에서 높아야한다 언제나 청년들과 같이있으며 그의 리익을 위해서 생활하며 그들의 요구와 곤난을 아는 사람만이 공청반장으로 될수있다

반사업계획을 도와주는것은 또한 직장지도부의 의무인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을 수행하기위한 반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하여서는 직장위원회가 그를 적절하게 비준하여 정기적으로 그의 수행에 관한 반총결을 로의하여야한다 직장지도부는 공청반반장들의 사업경험교환을 조직할데대하여서도 고려하여야한다 반장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이러저러한 문제들에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청기관의 결정들로써 그들을 가깝게하며 재대있는 론설을 연구할것을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등등―이 모든것이 내생각갈내서는 공청반 지도에관한 직장지도부의 책임범위에 들어간다고본다

직장지도부의 물샐틈없는 검열밑에 놓여있는 반들은 가장 성과적으로 사업한다는것을 경험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검열은 그것이 체계적성질을 띄며 반사업을 깊이 탐구하며하며 공청원들로 하여금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돌리게하며 계때에 그에게 방조를 주는 의향을 설열의 기초로 되어있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실한 지도수단으로 되는것이다

공청반 지도사업에있어서 기업소의 공청위원회에는 중대하고 책임적인 과업들이 놓여있다 위원회의 의무는 공청반사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며 자기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사업을 틀어쥐며 꾸준하게 공청반장들의 학습과 교양에 방조하는것들이다 위원회는 공청반의 조직적강화에 관하여 매번하여야하며 직장단체의 구조와 각직장에 있는 공청반의 성원을 리준하여야한다

적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직장공청책임자들에게 공청반지도경험을 가르치는 것이다 공청위원회는 이에 관해서 배려하여야한다 우리의 기업소들에서는 「직장단체 비서 소집일」제라고하는 사업형식을 모두 실시하고있다 이 형식은 공청반사업에대한 많은 공청적인 직장지도부의 지도를 보편화시킬수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것이다 반의 사업경험은 반드시 신문 라디오 쎄미나르나 협의회의에서의 우수한 공청반장들의 연설을

족해서 광범히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공청반장들의 체계적인 학습조직은 공청반지도에대한 공청위원회사업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로된다 많은 공청단체들은 규칙적으로 한달에 두번씩 「공청반 학습일」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는 례를들면 「어떻게 반에서 공청회의를 진행할것인가?」 「공청반과 사회주의 경쟁소적」 「모든 공청원들에게는 공청적 위임을 줄것」 「반에서 집단주의교양에 관하여」와같은 문제들을 해명하게된다

공청위원회는 매개 기업소에서 지배인과 공청반원 과의 정기적회합(會合)을 조직할데대하여 배려할 필요가있다 그러한 회합에서는 반사업의 많은 일상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있는것이다

공청 시위원회의 반지도사업에대하여 약간 주의를 돌리려한다 우리에게는 사업을 잘하는 공청반들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공청위원회들과 직장지도부들의 반사업지도에관한 좋은 경험들이 있는것이다 공청반사업의 경험 또는 시위원회에 반사업지도 실제경험들을 일반화하기위해서 공청위원회비서 및 직장의 공청책임자들의 협의회를 六월에 소집하였으며 다욱과같은 문제들어 토의되였다

一、꼰소반전 와뉴슈낀공청반의 사업경험

二、주강 직장지도부의 공청반 사업지도에관한 실제경험

三、공청위원회와 공청반

우리는 이와같은 협의회를 앞으로도 소집할것이다 공청반 사업은 다양(多樣)하며 흥미있는것이다 복잡도한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사업실행에 대하여 공청반장에게 항상 가르처주어야 하는것이다 그의 중요한 학습장소는 공청위원회와 초급단체인것이다 공청반장들의 학습조직에있어서 공청 시위원회는 례를들면 공청반장 전시회의(全市會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 회의의 목적은 공청반장들의 전안계(全眼界)를 높이며 그들을 우리당과 정부의 주요서적과 또한 국제정책문제 및 기타에 가깝게하는데있다

금년二월과 三월에 공청 시위원회는 공청반장들을 위하여 쓰딸린동지의 략전에관한 강습회를 진행하였다

공청 시위원회는 공청초급단체들이 어떻게 공청반들 지도하고있는가를 항장 검열하는것이다 우리는 二개월내로 각 기업소들에서 공청반 · 사업에관하여 상세히 연구할것을 과업으로서 자기앞에 제기하였다 기관의 전체일군들과 시위원회의 대다수위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사업하고있으며 공청단체측으로부터 그들에대한 지도실행이 여하한가를 면밀하게 또한 깊이 연구하며 필요할때에는 그들과접촉해서 그들을 방조하기위하여 초급단체와 공청반으로 들어가게될 것이다

공청 제一차대회는 모든 공청기관들 앞에 각초급단체에까지 침투할 과업을 내세웠으며 모든 공청초급단체앞에는 각계공청원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침투할 과업을 내세웠다 공청반에대한 일상적인 주의가 없이 공청반의 조직적 정치적강화가없이 이 과업을 해결한다는것은 무의미한것인바 이공청반을 통해서 공청위원회는 매개공청원과 매개청년로동자들에게 자기의 영향을 실현시키게되는것이다

(필자는 전련맹 레닌그 잔청년동맹 모쓰크바주 류부련노현 위원회 비서임)



식민지 예속국가청년들의 투쟁과 단결

—二·二一식민지 예속국가 청년들과의 단결의 날에 제하여—

석 파

인류의력사에있어서 오늘과같이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평화와 자유와 독립을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있어서 철석같이 단결된시기는 없었다

오늘 민주진영에는 용감한투사의 새로운 부대들이 날로 합류되어 그의 대오는 더욱 증가되어간다

이와같이 장성강화되는 민주주의전선의 선두에 세계청년들은 견결히 나서고있다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것이 청년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중심적 착취대상으로 되는것이 바로 청년들이기때문에 전세계청년들은 평화와 독립을위한 전인류적 투쟁에 용감히 나서고있는것이다

무한한 희망을 가슴에품고 승리의 해로만드려는 굳은 결심으로서 一九五○년도를 맞이한 세계청년들은 二월二一일 "식민지예속국가 청년들과의 단결의날"을 투쟁과 승리의 날로서 맞이할 굳은 결심에 불타고있다

一九四六년 인도해군들이 영국식민지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식민지 통치배들의 리익을위하여서는 더는 동족상잔의 수치스터운 길에 나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던 二월二一일은 식민지예속국가 청년들의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것이다

一九四七년二월二一일에 에지트 애국청년학생들은 인도해군폭동을 기념하여 영제국주의침략군대 철거를 요구하며 영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일대시위를 감행하였으며 월남에서는 월남공화국은 지지하는 수많은 청년시위가 조직되였다 그후 一九四八년 二월 력사적인 동남아세아청년대회시에 이날은 식민지청년들과의 단결의 날로서 결정되어 이후 년년히 세계각국청년들과 식민지예속국가 청년들과의 단결을 표명하며 식민지화 정책을 반대하는청년들의 투지를 더욱 높이 시위하는 날로써 맞이하여 왔다

더우기 금년도의 "식민지예속국가청년들과의 단결의날"은 쏘련을위수로한 민주세력의 계속적 절대적장성과 특히 동남아세아 식민지 반식민지국가 인민해방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국인민들과 중국청년들의 위대한 민주승리로서 특징되는시기에 맞이하고있다

쏘련청년들과 세민주주의 여러나라 청년들앞에 열려진 광활한 전모의길 그리고 중국청년들의 빛나는 승리에 고무격려된 식민지예속국가 청년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민족적독립을위하여 더욱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 ×

三五○년래의 화란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고 민족독립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민주청년들은 전

재인민들의 대오에서 더욱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五五만七천여평방키로메터의 광대한 지역과 七천만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야는 수많은 자연부원을 자랑하고있으나 이는 오직 화란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같은 략욕의 대상으로 되어왔던것이다 인도네시야는 석유생산에있어서 세계제五위 고무생산에서 세계제二위 차생산에서 세계제三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키니네 사탕 철 석(錫) 끄루타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풍부한 부원은 전부라하여도 좋을만치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수탈로서 빼앗기고말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야 인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스카르노 핫타를 수반으로 하는괴뢰정부를 수립하였다 一억四천만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미제국주의자들이 화란제국주의 자들에게 넘겨준것도 그들의 침략적『원조』의 상투수단을 잘 말하여 준다

미국 화란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전대미문의 학살과 탄압으로써 대하고있다 단지 一九四八년도만하여도 놈들의 마수에 三만여명의 청년 학생들이 쓸어졌다 중세기적 야만적 고문은 미국에서 수입된 최신식 전기고문기계로서 보충되고있으며 작년 一～二월간에 전기고문으로 쓸어진 대학생수만하여도 六○명에 달한다



☆ 인도네시야의 청년빨찌산 ☆

그러나 화란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탄압과 학살이 제아무리 심하여도 인도네시야청년들의 열화같은 투지를 꺾을수없다 그들은 화란제국주의자들의 마수로부터 조국을 다시찾기위한 전인민적 투쟁속에서 전체 청년들의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그들의 유일조직인 인도네시야 청년련맹산하에는 二五○만의 민주청년들이 결속되었다 一九四七년七월 화란제국주의군대 一○여만의 침공과 一九四八년말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청년군단과 대학생군단은 그 이후 시기에있어서도 더욱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특히 최근에 조작된 인도네시야 합중국의 어리석은 희극을 폭로분쇄하기위하여 수많은 청년군중대회 파업들이 조직되고있다 인도네시야 내전을 반대하여 화란의 민주청년들도 자국의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파업과 파견군 참가거절등으로서 싸우고있다 작년一월 二三일 인도네시야 파견군대에 참가를 거부한탓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월반켄펜은 재판장앞에서 "나는 나자신과 싸우는 과같이 느껴지기때문에 인도네시야인민들을 반대하여싸우지못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병사는 "모든사람은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가지고있다 나는 이원칙을 버리기보담 감옥에 가치는것을 더

낫게 생각한다"라고 자기의 정의로운 결의를 표명하였던것이다

× ×

조국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용한 월남청년들도 월남공산당과 그의지도자 호지명박사의 지도하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쌀과 (세계三대 수출국의하나) 목축업과 석탄으로도 유명한 이나라도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一○○여년간의 야수적 탄압과 가혹한 착취의 대상으로 되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쌀과 기타 부원을 략탈하여 가기위한 도로망을 광범히 건설하여 놓았으나 월남인민들의 계몽기관은 하나도, 건설하지아니하였다 제二차대전이 민주승리로 끝난 이후시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월남공화국이 수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계속하여 주인노릇을 하려고 기도하여 내전을 도발하고있으나 그는 오직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뿐이었다 죽장을 가지고 개별적 그루빠로부터 투쟁을 시작한 빨찌산들은 오늘날 최신식무기로 장비된 一一만여명에 달하는 정규군으로 창성되었으며 이미 자기조국의 九五%를 해방시켰다 미국기자 안두투루―스가 쓴바와같이 불란서는 一二만의 군대를가지고 겨우 사이곤 하이퐁 하노이등 몇개기지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것이다 동남아세아 청년대회에 참가하였던 월남청년대표는 『월남청년들의 결사대는 적의 전차와 기관총에 대항하여 싸우고있으



☆ 월남의 완전한 해방을위해 싸우는 월남청년들 ☆

며 까소링액 적신 자기옷에 불붙여 적의 전차에 뛰어들어 간다』고 그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말하였다 오늘 그들은 경제및 문화건설사업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놀고있는바 다만 一년간에 전국 경지면적을 一五○%로 증가시켰고 인민학교 二, 一二四교가 개설되고있으며 문맹자의 비률은 九○%로부터 二○%로 저하되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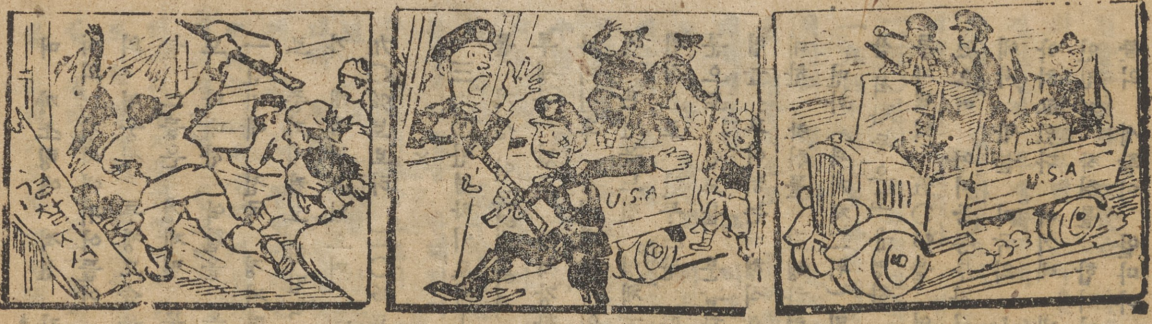
三六○만평방키로메―터에 三억인구를 가진 인도에있어서도 민주청년들의 투쟁은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다 제二차대전후 종전대로 인도를 통치하기에 곤난을 느낀 영제국주의자들은 인위적으로 힌두스탄 파키스탄의 二부분으로 인도를 분할하여 형식적 독립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계속인도에 대한 착취를 감행하려하고있다

면화(세계제二위) 및 (세계제四위) 삼 석탄등으로 유명한 인도에서 전체 투자액의 五○%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영미공동투자에 五六억딸라중에서 반을 미국의 七○대기업이 장악하고있다 여기에 네―루정부의 반인민적 착취를 합하여보면 인도인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를

농히 추측할수있다
 반동적 네-루정부는 전체예산의 五〇%를 군사경찰비로 지출하고있는 반면에 얼마안되는 교육비는 매년축소되고있으며 그결과 마드라스에서만하여도 一九四八~一九四九학년도 기간에 四、八七〇개의 초급학교가 폐쇄되었다
 인도정부와 영제국주의자들의 죄악적 정책을 반대하여 인도인민들과 청년들은 반대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궐기하였다 一九四八~一九四九학년도 기간에 연인원 二백만이상의 학생들이 전인도재학생련맹지도하에 대중적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五六만六천여명이 동맹휴학하였고 二一만五천명이 시험제도 개혁 요구시위와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一七만九천여명이 교의 민주화를 위한 파업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 경찰은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운동에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있다
 최근 하이다라바드에서 네-루의 졸도들은 만명의 농민을 투옥하고 三〇명의 청년애국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一一세의 소년에게 四六년이란 장기징역을 언도하였다
 이상과같은 정부의 탄압도 세계민주세력의 계속적 앙양의 파도속에서 더욱 장성하는 인도 민들과 청년들의 투지를 꺾지는 못한다 이미 하이다라바드에서는 二、五〇〇여부락이 해방되었으며 농민위원회가 조직되어 四백만에-카의토지를 농민들에게 분여하여 주었다 이상 모든 투쟁과 사실들은 인도인민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민족독립과 민주주의를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증거를 주고있다

× ×

 一三만八천평방키로메-터에 五五〇만인구를가진 마래에있어서도 마래신민주주의 청년동맹의 깃발아래 굳게뭉친 수십만 민주청년들이 영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내전을반대하며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一〇〇여년간의 영제국주의 통치의결과 영제국주의자들은 고무 석(錫) 꼬뿌라 금 철 망강등 주요자원을 전부독점하고있다 고무재배농원과 석광산의 로동자들의 임금은 一九四一년도 수준에 고정되어있는데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수배나 등귀되었으며 계속등귀 하고있다 영국식민지성의 발표에 의하면 아동사망률은 런던에서의 아동사망률보담 三~四배나 높다 교육형편은 전형적인 식민지교육 정책을 보여주는바 영국인학교에는 매년一인당 一一七딸라의 경비가 지출되는데 마래인학교에는 四、五딸라가 지출된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반면에 마래의통치에 필요한 괴뢰인물양성에는 많은 보조와



(7)「자! 운전수! 빨리 몰라구」
(8)「이놈 꼼짝말구 있어!
무기는 농민에게!」
(9)「힘을 합하여 무기를 들고 지서를 소탕하자!」

(三五페지에서 계속)

록전을준다 그들은 영국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하며 류학가기위하여 영국가는 배를타기도전에 이미 취직자리가 결정되는것이다
 공산당 마래신민주청년동맹 범마래직업련맹등은 지하에서 공작할수밖에 없게되였다 마래 민주청년동맹위원장 리승에게는 一五、〇〇〇파운드의 상금이 걸려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마래에서의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을 진압하기위하여 영국군 파레스치나경찰군 보르네오식인종군 쿠르카종족군(아파안족과 몽고족의 혼혈인 야만족)에다가 폭격기해군을 종합하여 一九四八년六월이후 반공작전을 실시하고있으나 마래의 민주청년들은 용감한 빨찌산투쟁으로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고있으며 이미 광활한지역에서 주동권을 잡고있다
 근八〇년간의 영제국주의자들의 탄압하에서 신음하던 비루마의 인민들과 청년들도 전비루마청년동맹과 비루마 대학생동맹에 굳게 결속되어 이미 자기조국의 七〇%를 영제국주의자들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켰고 해방구에서의 문화계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기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있는 중동 근동 라틴아메리카등에 있어서도 청년들의평화와 민주독립을위한 투쟁은 더욱 치렬히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다

× ×

 이상과같이 식민지예속국가청년들의 민족독립과 보다 훌륭한 장래를위한 투쟁은 력사상에서 보지못하던 격렬하고 강력한 기세로서 전개되고있으며 평화를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을 반대하는 전인류적 투쟁의 튼튼한 부분으로되고있다
 전세계인류의 민주와 평화를위한 장엄한 행진속에서 식민지예속국가청년들은 자기들의 투쟁이 가지는 국제적 련결성을 똑똑히 알고있으며 쏘베트 청년들을 선두로한 전체세계청년들의 지지성원을 깊이느끼면서 승리와영광에 빛나는 래일을 자신있게 내다보고있다 력사는 승리가 오직정의와 인민의리익을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二월二一일에 제하여 식민지예속국가 청년들의 형제적 지지하에 평화와 민족독립을위한 투쟁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로서 자체를빛낼것이다



(10)지서장「아이구 응원을 청해야지」
(11)서장「뭐? 또 위협하다구 네놈이 가짜로구나! 엣다 받아라!」
(12)「자! 인제는 빨찌산으로」 그리하여 그들은 산으로 갔다

희랍의 자유 독립을 누가 방해하는가

영 춘

유·엔총회 제四차회의에서는 희랍문제를 역시 토의했는데 이번에도 미영블럭들은 쏘련의 결의초안— 희랍의 내전을 중지시키며 희랍인민들이 자유롭게 국회를 선거하며 희랍과 북부린접국간의 관계를 조정하는동의—을 거수기로써 부인하고 미국을 비롯한「四개국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희랍문제는 어떻게 되어왔는가?

제二차세계대전이 터지자 一九四○년一○월 팟쇼 이태리가 희랍을 침공했으며 一九四一년 四월六일에는 히틀려독일군이 침공하여 四월二九일에는 아테네에 진주하였다 당시 희랍국왕인 게오르게二세와 그의 정부는 런던에 망명하여 외래의 적의침공을 방관만 하고있었다 그러나 희랍인민들의 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되었다 그결과 一九四一년九월二七일에는 희랍공산당의 제의로써 민족해방전선(에암)이 수립되었으며 팟쇼침략자들을 반대투쟁하기위하여 에암의 군대 인민해방군(애타스)이 탄생하게되었다 그니고 쏘련군대가 히틀러군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시작한 그때부터 애타스는 반공신(反攻戰)을 시작했으며 一九四四년九월 아테네와 조국을 해방시켰다

이와같이 희랍국내에서 팟쇼군대들이 격퇴되자 비겁하게 망명하고있던 런던의 파판드레우정부가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전 一九四四년九월에 에암과 파판드레우 망명정부간에는 「레반협정」을 체결했는데 이협정에 의하여 에암과 파판드레우정부는 반팟쇼투쟁에 통일을 가져올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판드레우정부는 영국군대들 희랍에 상륙시키는 밀약을 영국정부와 체결했으며 이리하여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희랍내정간섭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파판드레우정부는 희랍국내의 진보적분자들을 박해했으며 애타스와 기타 딸찌산부대들을 무장해제하는데 있어 영군의 원조를 얻었다 一九四五년 二월一二일의 당시 프라스찌라스정부(파판드레우와 교체한)와 "에암"간에 에암이 주동이되는 신군대창설에 관하여 「발카즈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영제국주의자들의 사수에의하여 프라스찌라스정부는 이를 리행하지 않았다 그후 一九四六년三월三一일에 희랍에 「총선거」가 실시되이 왕제를 확립했으나 유권자들은 이선거에서 四七%뿐이 투표했다 이선거에 뛰이어 동년 九월一일에는 반동적 왕당파정부가 탄생했다

이때부터 희랍인민들이 외국 제국주의와 왕당반동파들을 반대하는 치렬한투쟁이 격화되었다 동시에 소위 반팔찌산 토벌작전이 미 영군사전문가들의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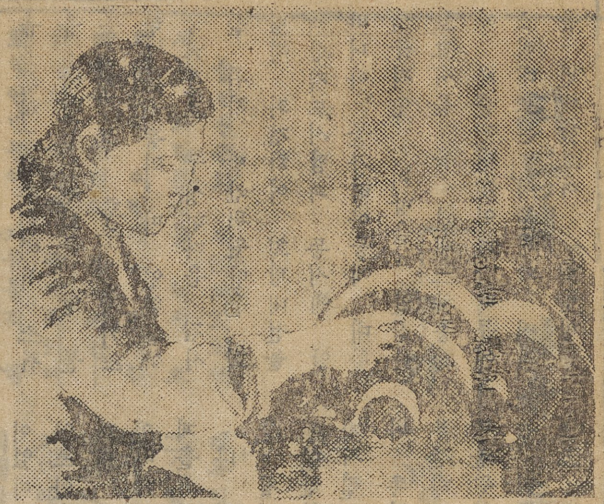
참가밑에 진행되어 희랍의 참혹한 내전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미국은 一九四六년가을에 「대토·희원조」를 성명함으로써 희랍침략은 더욱 로골적이되었다 뿐만아니라 희랍내전에대한 책임을 희랍북부린접국들 즉 알바니아 불가리아등이 희랍빨찌산들을 원조하여주는데있다는 구실을 내걸고 유·엔제二차총회에서 소위 유·엔빨칸위원회를 영국 멕시코 호주 파키스탄 화란등의 미 영앞잡이국가들로 구성한다음 감시를 위한 빨칸위원단을 희랍에 파견하여 희랍내전을 직접지도시킴과 동시에 알바니아 불가리아등에 대한 허구적인 비방을 일삼은 보고서를 유·엔제三차총회에 제출했던것이다 때문에 쏘련대표는 이문제의 심의를 반대했으며 「희랍민주림시정부대표를 초청」하자고 주장했으나 거부되고 말았다 미국은 빨칸위원단사업에대한 결의초안으로서 (가) 알바니아 불가리아에 희랍내전의 책임을 전가시킬것 나) 빨칸위원단의 사업을 앞으로 더 계속시킬것(다) 빨칸위원단에·유·엔소총회와 임의로 교섭할 권한을 줄것 등의 침략적의도를 로골히 하는것이었다 그리고 쏘련측 결의초안은 (가) 일방으로는 희랍 타방으로는 불가리아 알바니아와의 간에 외교관계를 설정한것을 권고할것 (나) 희랍에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케할것 (다) 유·엔빨칸위원회의 사업을 중지시킬것 등등이었다 그러나 총회는 쏘련측 제안을 부결하고 악명높은 유·엔빨칸위원단사업을 계속시키는 미국결의초안을 강압적으로 채택하고말았다

그리하여 미 영제국주의는 희랍에대한 빨칸위원단사업을 또一년더 계속시켰던것이며 이번 제四차 유·엔총회에서 역시 이위원단의 허위에 가득한 보고를 심의했으며 여게 의거하여 미 영 중(국민당)호 四개국의 결의안을 통과하여 희랍에대하여 앞으로 영구히 내정간섭을 계속할 구실을 만들어놓았다

특히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희랍내정에 간섭해왔을뿐아니라 四억七천二백四六만여딸라의 대희랍원조와 군사사절단과 기타의 모든 수단 로 희랍을 식민지화하며 군사기 화하는데 약기하고있다 최근에는 희랍을 침략적 북대서양동맹의 보조수단인 「지중해동맹」의 성원으로 만들기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 영제국주의와 희랍왕당파들의 이와같은 책동 공세에도 불구하고 희랍인민들는 영용히 궐기하고있다 一九四八년에만 하더라도 왕당파군에 九二,八○○명의 손실을 주었으며 기타 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그리고 一九四九년의 전반에 있어서는 九二八회에 걸친전투에서 적군 二七,六九九명에게 손실을 주었다 민주군은 그람모스 뎃살리 펠로포네수스 살로니카 등지에서 련전련승하고있으며 七○%나되는 해방지구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인민정권들을 수립하고있다 희랍인민들은 희랍의운명이 그들자신의 손에의하여 결정되는것을 잘알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자유희랍민주림시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치어 미 영침략자와 왕당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궐기하고있다



그날의 맹세

리 형

엄중선동무가 선반공이 된것은 자기의 평생소원이 이루어져 된것은 아니다 一八세를 먹던 가을 그는 당시 본궁화학공장으로 다니던 선반공 김태민동무하고 결혼을 하였었다 엄중선동무는 퍽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선반공이면서도 어떤 묵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유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선반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같은 녀자가 무슨 선반공이 될까? 그보담 방적공장같은 데가 가장 알맞지!」하고 자기 의견을 남편께 말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 김태민동무가 소작농의 자식으로 겨우 소학교 문을 나온뒤 공장에서 십부름군에 지나지 않는 견습공으로 갖은 학대와 멸시를 받아오다가 해방이되자 인민의 공장에서 과거 배울래야 배우지 못하던 새기술을 배워 七급 선반기능공으로 되었다

이 동무는 그 어느날 「나는 인민군대에 나갈테야… 내가 입대하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공장에서 일해주겠지! 그렇다면 나는 인민군대에 나가서도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자기대신 선반공이 될것을 남편이 말할적에 엄중선동무는 「념려 마십시오 당신을 대신해서 공장에 나갈 결심예요 하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힘껏 배우고 또 배워서 우수한 기능공이되지요」 이렇게 남편앞에서 맹세하였다 엄중선동무가 이렇게 맹세한 것은 一九四八년 가을 바루 결혼한지 만一년이 지난 때였다 남편은 일차 영광스러운 길을 떠났다 남편을 인민군대로 보낸 엄중선동무는 곧 자기남편이 일하고있던 그공장 선반공으로서 들어가게되였고 남편이 다루던 바루 그 기계에서 기술을 배우게되었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일부선반공들은 엄중선 동무를 퍽 반가이 대해 주었다

그러나 엄중선동무의 공장생활에는 수다한 난관과 시련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어떻게 아직 기계라군 손에다 쥐어본적이 없는 이 손으로 이렇게 육중하고 여러가지 속도도 회전하는 복잡한 공작기계를 운전해 내겠는가?

처음 얼마동안은 기계에 부속품이름들을 일일이 배웠고 그다음으로 구조에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않았다 혹은 고장도 났다 그러나 엄중선동무는 꾸준히 노력했다 남편 김태민동무에게 「하면 못할일이 있겠습니까 힘껏 배우고 또 배워서 우수한 기능공이 될 작정입니다 당신과같이 七급기능공이 되지요」한

그날의 맹세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이를 악물고 자신을 격려해 가면서 자기를 배워주는 기능공의 개별적 기능전습을 열심히 받았다 그리하여 기계의 구조 기계의 성능을 완전히 통달한 다음 기계의 표준조작법을 실제작업에서 배웠고 차차 계산법 혹은 바이트 제작법 기계설계도면 보는 법에 이르기까지 선반공으로서의 초보적 기능을 모주리 배웠다 기능공들은 엄중선동무의 보통아닌 열성과 그 배우려는 완강한 의지에 감복하였다 초급단체 위원장 전인교동무는 특히 엄중선동무의 기능전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각별한 방조를 주었다 엄중선동무의 치밀한 근면성은 야간기술학교에서 남보다 항상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민청기술 전습회에나 행정에서 조직하는 기능 강좌에는 한날도 빠지지 않았다

공장에 들어온지 불과 두석달만에 엄중선동무는 첫 기능꾼으로 되었다 자기직업에 완전히 자신을 갖게된 엄중선동무의 공장생활은 보다 행복하고 명랑해졌다 기계와 함께 매일 생활할 것이 더 없는 기쁨으로 여겨졌으며 기계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이리하여 지난해 가을 五급선반기능공으로 되었을때 엄중선동무는 민청 초급단체위원회에 자기를 청년작업반원으로 해 줄 것을 자진 요청했다 자기맡은 六척선반을 솜씨나게 움직일 수 있게된 엄중선동무의 영예스러운 임무는 언제든지 동무의 꾸준한 로력과 창의로써 훌륭히 완수되어갔다 매일 그날의 작업이 끝나면 엄중선동무는 자기기대를 정밀히 돌본다 기계의 치차가 혹은 기타 회전부분에 항상 기름이 적당히 쳐있는가 기계내부에 먼지나 쇠가루가 들어가지 않았는가를 세심히 검토하며 소제한다

지난해만 해도 엄중선동무는 자기의 작업능률을 一二○%로 보장했었다 뿐만아니라 한개의 오작품도 내지않았던 것이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엄중선동무에게는 매일 〃호이루기야〃 五개를 깎아야 할 책임이 지워졌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오작품이 나오기 쉬운 까닭이다 원만한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또한 도면을 세밀히 연구검토하지않는 경우에는 오작품이 나오게 되는이만치 엄중선동무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사업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이루기야〃를 깎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기구들을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하루 한분이라도 기계를 멈추지 않을뿐더러 돌아가는 기대에서 잠시라도 떠나지않고 도면에 그려진대로 규격에 맞는 〃호이루기야〃를 완성하는데 모든 정열을 바쳐 一일 四개의 책임을 五개 완성해 냈다 다음날에는 七개를 만들어냈다 엄중선동무는 「조국과 인민의 초소를 지키는 남편의 열성에 못지않게 일하며 배워서 보다 훌륭한 기능공이 된다」는 새해의 재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앞으로도 면 검토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연구로써 계속 오작품을 없 하겠다는 재결의를 동무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남편 김태민동무에게 맹세하기를 「나는 그날의 맹세를 보다 새로이 다지면서 금년 一·四분기내로 六급기능공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二·四분기에는 七급으로 그러면 당신과같이 꼭 二년만에 七급기능공으로 되는 셈입니다」라고 그날의 맹세를 다시 한번 굳게다지는 것이다

한 성인학교 강사의 手記

─ 평양특별시 조왕리에서 ─

박 형 수



×월 ×일

어젯밤 첫시간을 치른 다음에 찾아왔던 리민청초급단체 위원장동무의 말이 생각난다

『…해방직후 우리 북반부만 하여도 문맹자수가 실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一九四八년 三월말까지에 우리청년강사들이 동원되어 八○% 퇴치계획이던것을 실로 八三·四%로 초과달성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문맹에서 벗어난수는 二、一二○、○八五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입니까…』 우리 리에서 진행되는 성인학교 사업을 보장하기위한 마을 초급단체의 성의있는 배려는 전체 학재들의 감격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 성인학교에서 일요일마다 조직되는 영화감상등은 모두 민청초급단체에서 조직해주다싶이 보장해주고 있으며 강연회도 드믄드믄 나와 조직해준다

전체학생들이 누구할것없이 지난해 七월까지만 하여도 겨우 한글을 소득한 정도이였다

오늘 이들이 정확한 철자법에 의하여 각과목들을 학습하게 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사실이며 내가 이 학교에 온 보람을 더욱 느끼게된다

지난해 一二월달에 수업을 끝마치고 지금 곡산공장에 가 있는 장재운동무께서 편지가 왔다

지금 초급단체 교양강사를 맡아보고 있으며 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할으로써 우리 장에 부과된 국가계획량을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조선 인민군대창립 두돐맞이에 대한 정치시사 보고회를 조직하는 등 자못 바쁘다는 이야기—

×월 ×일

오늘밤부터 반이 하나 더 뿐셈이다 물론 수준의 차이점이 있는것도 한가지원인으로 된다 그러나 좀더 학생들의 진도를 나 자신이 장악하기위한 탓도 있다

모두들 열성이 지극하다

아들을 평양기관구에 보내고 있다는 리션의씨는 그중에서도 열성이 비상한 분이시다

이 분은 두달포나 되는동안에 결석이 한번도 없다 오늘저녁에 검열들을 실시해보았는데 이분의 노트가 제일 깨끗하고 나의 교수안을 모주리 기록해 두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구 우리 아들이 늘상 그럽데다—

이분은 지금 잔수에 취미를 가지고계시다

×월 ×일

채점 결과가 퍽 기뻤다 전원 四

二명중 五계단이 二五명 四계단이 一八명 이다

이렇게 모두 중간시험채점결과가 좋은 성적들을 낳고있다

오늘 저녁 시험을 끝마친다음 시육부에서 나온 동무가 나에게 하는말이

『참으로 성적이 우수하며 시내에서 제일 모범성인학교가 될것입니다』

나의 낯이 붉어질만치 찬사의 말을 주신다

×월 ×일

박금실동무가 오늘밤 나왔다

이동무는 그동안 일개월 남직이나 결석하였고 이동안 민청에서랑 리에서 수차 가정방문을하여 권고하였었는데 좀체로 나오질 않았다

우리들 모두는 오늘밤에야 나오게된 그사연을 물었다

『—못나온게 모두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노력을 배나 더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마추겠서요! 정말 추절한 학생이 되겠서요!』

퍽 학습열에 불 고있는 젊은 부인이다

그는 다시 계속하여 그동안의 결석리유를 말했다

—물론 학교에 나오군 싶었다 그러나 어린것도 어린것이어니와 자기가 성인학교 입학할당시엔 남편은 출장중이였다 그러나 리 인민위원회에서와 마을 민청에서의 친절한 해석과 권고로써 입학은 하였다

막상 입학을 하고보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음속이 밝아지면서있다 모든 궁리하는것이 새로워졌다

차츰 학습에 정력이 붙고 보름하고 스므날쯤 지나선 신문이라든가 잡지들이 손에서 떠날사이가 없어지게끔 글을 읽는데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되었다

그러던차에 장기출장중이던 남편이 돌아왔다 어쩐지 남편에게 성인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았다

물론 남편이 어느때나 집에 들어오면 신문 기타 시사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주군 하였다

그러나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새삼스레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좀체로 떨어지질않아 잠잫고 학교에를 결석하고 심지어는 며칠전 은근히 단념까지 하였었다 결국에있어서 주부로서 성인학교에가서 공부하는것이 퍽 어색하여 보였고 흉칙스러워 보였다 더우기나 어린것 다리고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바루 며칠전날밤 남편은 쓰딸린선생의 젊은시절의 이야기를 옛말처럼 하여주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쓰딸린선생의 학습태도와 학습지도에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남편에게 출장중 약 二○일간 성인학교에 다녔다는 이야기며 배운것에 대하여 말했고 특히 당신이 돌아온 다음엔 단념했다는것을 말했다 한편 부끄러운 감이 치밀었으나 역시 나는 더 학습하고 싶었기때문이다 남편은 나의 말이 떨어지자

『그런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더욱 부끄러운 것이오! 왜 어제야 와서 말하우 벌써 그러지! 념려말구 어련것은 내게 말기구 학교엘 가보우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에게도 공부할수있는 고마운 길을 열어주었으니까!』—하며 그날밤부터 당장 가라고 말하는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나는 내생각이 즉 주부가 성인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뭘하리 하는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것을 뉘우치고 이렇게



전사들이 부르는 노래

조 학 래

몸을 조이는
추위도 안다
뺨을 여이는
칼바람도 안다

그대여
밤을 지새우며
눈보라 하늘을 덮는
백화나무 산중턱에
나와함께 싸우는 전사여

어두움을 뚫고
눈동자는 앞을 쏘아본다
한마음으로 고동치는 심장
생사도 함께노눌 전우애로구나

전우여
우리 알지
똑똑히 알지
이나라 어진 겨레
부모 처자를

기아와 한살의 구렁으로
몰아넣는 리승만 역도를

그대여
이사실 뒤타서 참으랴

금수강산
조국의 하늘아래
밤을가며 낮을가며
원쑤의 목숨 겨누고
이나라 지키는
그대여

가지를 휘날아 부시며
탄환이 귓전을 스쳐도
나는 조국을 지켜 서있나니

국토를 완정하고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공화국 기치
아침해 동터오는
창공에 높이 날린다—

다시 나오게 되였다

더우기나 그동안 민청동무들이 여러번 권고오신데 대하여 부끄러운 감을 금할수없었다—

내가 맡은 학교엔 이런분도 계시다

×월 ×일

마을 민청동무들의 열성으로 확독이 하나 더 생겼다

오늘 마을민청에서 매개학생들에게 노—트 한책씩 보내왔다

어떤 부인네들은 공책은 아직있으니 이것들을 모아 인민군대에 보내자는 의견을 제출한다 모두들 찬성했다

또한가지 오늘저녁에 반가운 일이 있었다 마을내의 고녀중 학생들이 어머니학생들을 도우려찾아왔다 한동무가 한학생씩 맡아선 노—트정리라든가 복습에 직접지도를 해주었다

래일은 이 학생들이 직접 어머니학생들의 집에가서 어린애들을 보아주겠다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한사람도 락오생이 안나도록 해야겠다

미신과 과학 (二)

유 춘 록



二, 신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신이란 아무데도 없으며 그것은 결국 사람의 머리속에서 조작되어 어떤사람들의 머리속에만 남아있다는것은 이미 증명된지 오래다

사실에 있어서 신이란 어떤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한개의 관념(觀念)이며 환상(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뇌(腦)가 발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아무런 의식(意識)도 관념도 가지지 못하고 다만 감각(感覺)과 본능(本能)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동물(動物)들에게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다는것으로서도 증명된다

이렇게 볼적에는 신을 조작 해내고 신을 믿고 하는것은 마치 사람으로서의 영예이며 자랑끼리인듯도 하다

그러나 사람가운데서도 뇌가 더욱 발달하고 과학사상(科學思想)으로 무장된 사람은 역시 신을 알지못한다 이렇기 말하면 또 신을 믿으며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나무랠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시 홍수(洪水)를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하며 번개를 천벌(天罰)이라고 하여 무서워 떠는 사람들 보다는 산에 나무를 심고 제방을 튼튼히 쌓아 그 홍수를 방지하며 번개를 쇠줄로 잡아 땅속에 몰아넣으며 또한 전기(電氣)를 리용하여 전등 전화 라디오 전차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않을수없다

그렇기때문에 미개한 나라 락후한 민족일수록 여러가지 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식한 사람 우매한 자일수록 더욱 많이 신을 섬기며 더욱 깊이 미신에 빠져있음을 볼수있다

물론 우리는 소위 문명한 나라 개명한 민족들 사이에서도 미신을 많이 보며 재산이 많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신을 믿으며 신을 섬겨야 한다고 떠드는자들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다 자기들의 죄악과 착취행위를 감추어보려는 음흉한 기만술책인 것으로 이자들은 자기자신들은 믿지도않는 천당(天堂)이나 지옥(地獄)으로써 근로인민들을 협박하며 공갈하며 그들의 반항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것이다

본래 자본가나 지주들은착취를 위하여 신을 리용하며 미신을조장하기는 하지만 이자들이 신을 처음으로 만들어낸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전에 우선 주의해야 할 은 신이 어느 한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 생활속에서 발생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또 신은 어떤사람들의 생활속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대하여 과학은 그것이 원시인들의 생활속에서 발생되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옛날의 신화(神話)나 전설 그리고 오늘에 남아있는 미개인들의 생활풍습 또한 여러가지 미신과 종교등을 력사적으로 고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알수있다

그러면 원시사회에서 신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원시인들의 머리속에 신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찾아보기로 하자

원래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것도 아니며 또한 신이 만들어낸것도 아니다

사람은 동물 즉 유인원(類人猿)으로부터 진화(進化)되어 나왔던것이다

즉 그는 오랜 자연과의 투쟁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로동을 통하여 자기를 가장 우수한 동물로 발전시켰으며 사람으로 진환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어느 한곳에서 한사람이 먼저 생겨나 그가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되었던것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생겨났던것이다

류인원이 떼를 지어 사는것처럼 사람들도 처음부터 무리를 지어 살았으며 공동으로 로동하였다

그것은 사람이 동물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존재로 되었지만 아직 자연의 폭위앞에서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폭풍우와 홍수 설한과 질병 지진과 해일 등 천변지해(天變地害)나 여러가지 맹수들의 습격 또는 다른 종족의 침략등으로부터 자기생활을 안전히 보장하기위해서는 한곳에 모여 무리를 짓고 살며 서로 협력해나가야만 했으며 또 그들의 생산력(生産力) 즉 그들의 힘과 지혜와 로동도구는 아직 대단히 유치한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으로 로동해야만 되었었다

이렇게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집단적공동로동(集團的共同勞動)으로 해 나갔지만 자연의 힘을 극복하거나 자연을 지배할수는 없었다

그들은 도리어 자연의 지배를 받았으며 자연의 위력앞에 무서워 떨었다 천변지해는 그들의생활을 끊임없이 위협했으며 그들의 생명을 무참히 떼앗군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공포심과 자연의 위력에대한 복종심이 일어났으며 나아가서는 자연을 무섭게 섬기며 또한 무서운 힘을 가진 이 자연앞에 빌며 절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또한편 자연이 주는 여러가지 혜택 즉 먹을것을 베풀어주는 산(山)과 들(野) 어두움을 밝혀주는 태양 가물을 추겨주는 비(雨)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도 결부되어 있었던것이다

원시인들은 자연속에는 어떤 힘과 의지(意志) 즉 혼(魂)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관념은 그들의 유치한 생활경험과 결부되어 더욱 견고해졌다

먼곳에 있는 사람이나 죽은사람이 꿈에 보였을적에 그들은 이것을 그

사람의 령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육체(肉體)와 령혼(靈魂)은 서로 떨어져 있을수있으며 육체속에 령혼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같은 생각이 결국 자연속에도 령혼이있다는 즉 산에는 산의혼 바다에는 바다의혼 땅에는 땅의혼 나무에는 나무의혼 태양에는 태양의혼이 있다는 그들의 관념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들의 신앙(信仰)즉 원시인들의 종교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또한가지 말해야할것은 사람 그자체가 본래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더우기나 그들이 로동도구를 만들고 또 그 도구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었을적에 그들은 모든것이 「만들어진것」 따라서 자연도 자연계에있는 모든것도 결국 「만들어진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던것이다

그리고 또한 밤과 낮이 바뀌고 춘하추동 사시(四季)가 바뀌고 또 그 사이에 만물이 났다가는 반드시 죽어가는것을 본 그들은 자연이나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재간이 많은 어떤 혼이 즉 하늘과 땅과 자연과 사람을 만들어냈으며 또한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위대한 령혼이 따로 있다고 믿게되었다

이와같이하여 원시인들의 머리속에는 자연과 사람을 만들어 냈으며 또한 그의 운명을 지배하는 령혼 즉 신이 생겨났다

신은 또한 씨족(氏族)과 종족(種族)에 따라서 각각 다르며 원시인들의 인척관계와 같은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신족(神族)의 족장(族長)이 생겨났는데 이신은 신의 수령으로서 다른 신들을 지배한다 이것이 원시사회제도와 족장제도의 반영임은 더말할 필요도없다

그리고 이 신은 또한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조작하며 사람에게 도움과 벌(罰)을 주는것이 었는데 계급사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배계급의 편에 서게되었다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그가 무슨 죄(罪)를 져서 신벌(神罰)을 받았기때문이며 잘사는 사람은 신호(神護)를 받기때문이며다 또 왕은 신의 명령 즉 천명(天命)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며 따라서 왕이 갈리우는 것은 이 천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봉건사회의 계급관계와 사회제도를 반영한것으로 드디어 민족국가가 완성 되었을적에 이신은 만물을 떠나 영원히 존재하며 모든것을 만들고 모든것을 지배하는 단하나의 전능(全能)의 신으로서 지배계급의 신이며 통치자들의 비호자로 되어버린다

이상과같이하여 신은 원시사회의 생활환경속에서 원시인들의 머리속에 발생하여 인류사회의 력사적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되고 순화(純化)되어 내려왔다

자본주의사회에 와서는 신도 자본 즉 돈앞에 복종하며 돈으로 매매되게되었다 돈은 말하자면 자본가들의 신이며 여기에서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또는 황금숭배주의(黃金崇拜主義)가 나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단계에 와서는 신이 발생할 근거와 더부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만다

과학앞에서 신은 말살된다 그리고 우리에게있어서 그것을 믿는것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모두 미신이다



생산과 분배

—사회발전사를 공부하는 동무들을 위하여—

인류의 사회적 생산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다섯개의 생산체제(生産体制)가 있다

생산의 사회적체제라고 하는것은 생산과 분배(分配) 교환(交換) 소비(消費)등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있는가 하는것을 통틀어 말하는것이다

그리고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서로 뗄래야 뗄수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생산이 없이는 분배도 교환도 소비도 있을수없으며 또 분배가 없이는 소비가 없으며 교환이 없이는 만족한 소비를 할수없는 것으로보아 명백하다

이중에서도 제일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생산이다 분배 교환 소비도 모두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활을 놀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물건을 만들어 놓지않고는 이것들이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사회의 생산양식(生産樣式— 이것은 그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이다)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갱된다

례를들면 자본주의적생산양식 밑에서는 그생산물이 자본주의적 착취법칙에 의하여 자본가들에게는 많이 로동자들에게는 적게 분배되며 따라서 소비도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쓰고도 남아서 허랑방탕하는 대신에 로동자들은 기아임금(飢餓賃金)에의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또한 자기 부양가족의 생활과 교육을 보장할수 없을만큼밖에 소비하지못한다

그리고 교환도 역시 자본주의적 시장법칙(市場法則)에 의하여 상품(商品)의 형태로 실시되는데 기아임금에 쪼들린 로동자들은 구매력(購買力—물건을 살수있는 힘 즉 돈)이 극히 미약하여 요구되는 물건을 사기 곤난하다.

그러면 이제 「분배」가 사회발전의 각 계단에서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하는것부터 보기로하자

동무들이 아다싶이 원시공동체(原始共同体)적 사회에서는 생산 그 자체가 그 사회성원(社會成員—즉 주민) 전체의 공동로동(共同勞動)에 의하여 실시되었던만큼 분배도 역시 사회성원전체에대한 공동분배(共同分配)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아직 생산수단(로동대상과 로동요구)에대한 사적소유(私的所有— 즉 개인소유)가 없었던 이 시기에 있어서는 다같이 알해서 다같이 논아먹는 원칙밖에 알지못하였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내것 저것은 네것하는 일도 없었고 이만큼은 내가 벌고 저만큼은 내가 털었다는 계량도 없었다 따라서 누구나 다같이 일하는 원칙밑에 일을 남보다 적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또는 늙거나 어리거나 병든사람이거나 모두 고루이 직접분배를 받았다

물론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았다 즉 다같이 분배에 참가는 하나 일을 많이하고 잘한사람의 차례로써 더많이 분배받게 되었다

이것은 생산물에 좀 여유가 생기게되었던 까닭이며 그것은 또한 생산력이 좀더 발전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을적에는 생산물의 축적(蓄積) 즉 먹고 입고 쓰고남은것을 쌓아두는일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새인재산이 생겨났다 이것은 결국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個人所有)를 더욱 강화시켜나갔,으며 나중에는 일하지않고도 더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동로동과 공동분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평등하던 원시공동사회는 무너져 나가고야만다

그리하여 드디어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 즉 한편사람들이 다른편사람들의 로력을 착취하는 계급사회가 초래되었다

계급사회에서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착취관계와 일치된다 인류력사상에는 세개의 계급사회과정이있고 그 맨첫과정이 노예사회 즉 노예소유제제임은 동무들이 이미 아는바이다

•••노예소유제제사회의•••

기본적 생산관계는 모든 생산수단과 함께 직접 생산로동을 담당한 노예 그자체에대한 노예주의 완전소유(完全所有)였다 노예주는 모든 생산수단을 독차지했을뿐만아니라 노예들을 또한 자기의 재산과같이 취급하였다

이와같은 형편에서 노예들은 생산자이기는 하였지만 직접생산물의 분배에는 전혀 참가하지못하였다

노예들은 한개의 가축과같이 자기로동의 결과를 전부 노예주에게 박탈당하였고 노예주들은 다만 역수(役獸—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듯이 일을 시키기위해서만 노예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였다 그러기때문에 겨울이 되어 일을 하지못하게되면 노예들은 굶주릴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방앗간에서는 노예들이 가루를 훔쳐먹을수없게 입에다 굴레를 쓰고 일하였다

이시기의 생산체제에서는 노예주와 노예사이에서 일정한 분배형태를 찾아볼수없었다 억지로 말한다면 노예들이 일을 하기위하여 얻어입고 얻어먹고하는것을 가지고 간접으로나마 생산물의 극 소부분을 분베받은 젬이라고나 할수있을 것이다

••다음 둘째번 계급사회로서의 봉건••

사회의 분배형태는 어떠하였는가?

역시 동무들이 아는바 봉전사회의 경제는 농업생산을 기초로하는 자연경제였으며 이때에있어서의 기본적생산관계는 령주(領主)들에의한 생산수단(주로 토지)의 소유와 농노(農奴)들에대한 그들의 불완전소유(不完全所有)였다

농노들은 령주의 토지를 경작해주면서 농장한구석을 자기의 것으로 경작하였다

이농업경리에서 령주 즉 지주는 농노가 생산한 농장의 생산물을 전부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농노에게 맡겨준 한조각땅에대한 로력지대(勞力地代)이였다 즉 농노는 한조각땅을 가진 대가(代價)로서 령주의 토지를 전부 경작해주는것이였다

여기에서도 아직 직접 생산물에대한 분배는 볼수없다

농노제가 철폐되고 농노들이 해방되어 토지를 논아가지게 되자 로력지대는 현물지대(現物地代)로 바뀌게되고 여기에서 비로소 생산물의 직접적인 분배가 생겨났다 그후 이는 다시 금납지대(金納地代)로 변하였는

참고자료

인류력사는 계급과 계급과의 투쟁 력사이다 (一)

신 구 현

맑쓰선생은 일찌기 유명한 「공산당선언」 가운데서 「지금까지있은 모든 사회의 력사는 계급들의 투쟁력사이었다」라고 가르쳤다 곧 원시공동체가 문어지고 사회가 서로 적대되는 계급으로서 분렬된이후의 인간사회발전의 법칙을 말한것이다.

알려져 있는바와같이 계급이라는것은 어느시기를 물론하고 항상 있지않으면안될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계급은 일정한 력사발전의 계단에서 일정한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또한 이것은 일정한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력사적 조건우에서 반드시 없어지고야 말 그런 운명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인류력사의 첫 사회제도인 원시공동체제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급이라는것이 없었다 왜그런가하면 여기에서는

1 기본적인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가 아직도 없었으며

2 인간은 협동(協同)하여 로동하면서 생산수단과 로동생산물을 사회적 공동소유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대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없었으며 부자(富者)와 가난한 사람 즉 빈자(貧者)와의 구별이 생겨나지않았으며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와의 구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은 어느때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않고 나날이 발전되어갔다 이와함께 목축업이 떨어져나왔으며 또 그다음에는 농업에서 수공업이 갈라졌다 다른말로한다면 대규모적인 사회적 분업이 발생한것이다 인간이 이전보다 더많이 생산할수있게 됨과함께 그자신이 먹고남은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간직되게되었다 인간이 이전보다 몇배나 넓은 범위에서 일할수있게된 조건은 로동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죽이는대신에 먹여살려서 강제로동을 시키는것이 가능할뿐만아니라 필요하게 만들었다

인간사회에서 처음인 계급— 착취하는자와 착취받는자— 즉 노예와 노예소유자는 이렇게 생겨난것이다

남의 로동을 착취할수 있게 됨과함께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 소유는 없어졌으며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었다

노예소유제도의 발생과 발전은 이렇게 함으로써 원시공동체의 토대를 파괴하여 버렸다 즉 무계급사회를 대신하여 계급사회의 시기가 시작된것이다

인류력사는 그이후로 세가지의 기본적인 계급사회제도를 보게되었다 그는 노예소유제도 봉건제도 및 자본주의제도이다 쏘련에서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은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는 위대한 공산주

데 이것은 모두 명주들의 착취방법을 바꾸었을뿐 분배원칙에서 볼적에는 생산물의 대부분이 명주의 손에 들어가고 농노에게는 겨우 먹고 입고 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자료도 잘 분배되지않는 것이었다 그나마 때로는 많은 농민들을 굶어죽게하였다

과거 우리조선 농민들은 수확고의 七할 내지 八할까지를 소작료로서 바쳤는데 이것이 곧 현물지대였으며 봉건적 분배형태이었음은 더 말할필요도없다.

계급사회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자본주의사회의 분배형태는 가장 교묘한 자본주의적 착취방법에서 우러나온다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손에 독점되어있다 그리하여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인격적(人格的)으로 해방되어 형식상 자유인(自由人)으로된 로동자는 아무런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부득이 자본가들에게 자기의 로동력을 팔아서만 살아나가게되였다 이 로동력의 대가(代價)가 곧 임금(賃金)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면만을 본다면 자본가는 자본을 내고 로동자는 로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쌍방이 서로 평등하게 협력하는 셈이다

그러나 생산품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는 이 평등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만다 즉 로동자는 그 생산품 또는 그생산품의 가격절반을 차지하여야할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을 따름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비밀이 상품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착취의 비밀은 이 임금속에 들어있다

임금은 로동자가 지출한 로동력의 대가이다 따라서 하루의 임금은 로동자가 하루에 몇시간동안 자기의 머리와 몸둥아리에서 짜낸 로동력의 대가인것이다

그런데 로동자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위하여 즉 래일 또 일하며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위하여 필요한 로동이 여섯시간일적에 자본가는 그에게 여덟시간 또는 그이상의 로동을 시킨다 그리하여 로동자는 두시간 내지 그이상동안의 로동을 착취당한다

또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가령 그로동자가 하루에 一〇〇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어내었을적에 자본가는 그에게 六〇원밖에 주지않고 나머지 四〇원을 떼어먹는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분배형태속에는 자본주의적 착취가 들어있으며 모든 계급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불공평하며 불렴치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모든 생산자들이 공정한 분배를 받게되는것은 모든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이 다같이 생산에 참가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이다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하지않는 자는 먹지말라」는 철칙밑에 모든사람은 자기의 능력에다라 일하고 자기가 일해놓은 성과에따라서 분배를 받는다

이것은 그얼마나 공평하고도 정당한것인가!

그리고 다시 한걸음 더나아가서 공산주의단계에서의 분배원칙은 「각자는 그의 능력에따라 일하고 그의 요구대로 분배받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시 공동체사회에서의 공동분배와는 원칙적으로 다르며 이때에가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왕국」에서 살게된다

의사회건설을 모든 인류의 현실적인 과정으로 내세웠다 「우리는 모든것이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세기(世紀)에 살고있는것이다」 라고 몰로또브선생은 말씀하셨다 계급사회는 종말(終末)에 림박하게 된것이다

(二)

그러면 이 계급이라는것은 무엇인가? 그 특징는 어떤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레닌선생은 다음과 같이 가르첬다

—계급이란 인간의 큰 집단(集團)을 가리키는데 이는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의 단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 의하여서와 생산수단에 대한 그 관계(다부분이 법률로 고정화되며 규정되는)에 의하여서 또 사회적 로동조직에서의 그의 역할—따라서 그들이 분배된 사회적 부(富)에 참여하는 방법및 그 소득의 비중에 의하여서 구별된다 계급이란 이러한 인간의 집단들인데 일정한 사회적 경제제도안에서의 그들의 지위에 차별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가운데 한계급은 다른 계급의 로동을 횡령할수있게 되는 것이다—(방점은 필자가 적음) 즉 레닌선생의 이 말씀은 계급과 계급을 구별하는 다음과같은 네가지의 점을 밝혀주고 있는것이다

1 계급이란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양식에 있어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의하여」—구별되는 사람들의 큰 집단이다

사유재산에 기초를둔 노예소유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에 있어서는 생산에 있어서 대립하는 두개의 기본계급이 있다 그가운데 한계급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며 착취자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예속되어있고 그들에게 착취받는 생산로력자이다 즉 생산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의 차별이 계급과 계급의 첫번 차의점으로 되는것이다

례를 들어보자

노예소유제도 사회에있어서는 노예소유자들은 지배계급이었으며 생산에대한 소유자였다 이와반대로 노예는 착취계급에 예속된 생산로력자였다

봉건사회에있어서는 봉건령주들이 지배계급이었고 농노적 농민들은 착취계급에게 예속되여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있어서는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이고 로동자들이 피착취계급이다

2 —생산수단에 대한 그들의 관계(다부분이 법률로 고정화되며 규정된다)에 의하여」—구분된다

계급사회에있어서는 한계급이 개인소유권에 근거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이와반면에 다른 한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례를들면 봉건사회에서의 농노적 농민같이) 소유하는것이다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는 법률로서 확인되며

보호되는데 이법률이란 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것이다

례를 들어보자

노예소유자들이 생산수단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노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봉건령주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었으며 농노적 농민들은 불완전하게 소유하고있었다 농노적 농민들은 생산도구와 자기의 개인경리를 가졌으나 기본적 생산수단인 토지는 가지지못하였다 이것은 봉건령주들의 소유로 되어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지는 생산수단을 가진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이것이 없는것이다

3 「사회적 로동조직에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역할에 의하여—따라서 그들이 사회적 부(富)의 분배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소득의 비중에 의하여」—구분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들는 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이들은 보통 자기자신이 직접 로동하면서 생산에 참가하는것은 아니다 그대신 그들은 자기에게 예속되어있는 피지배자들을 일시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물질적부(物質的富)를 생산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은 그사회의 로력자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자기것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종속되어 살고있는 계급은 피압박계급이며 피착취계급으로서 자기자신의 직접로동으로써 사회전체의 부(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부의 가장 적은 부분밖에는 차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곤궁(困窮)과 락탈과 고난에 헤매지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력사적 실례로서 노예소유자계급 봉건령주계급 자본가계급같은 지배계급들은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생산의 조직자로서 나타났으며 피압박계급들을 강제적으로 로동시켰다 그들은 사회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노예 농노 로동자들은 자신의 굶주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자료밖에는 얻을수 없었던것이다

일정한 계급적 사회제도에 있어서 계급들 사이에는 그지위에 차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가운데 한계급은 다른 계급의 로동을 횡령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국가의 힘으로써 생산수단에대한 자기의 개인소유를 유지한다 이와반면에 다른 한계급은 아무러한 생산수단도 가지지못하였거나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을 가지지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밑에서 한계급은 다른계급의 로력을 횡령할수있게되는 것이다

례를들어 노예소유제도의 경제형태는 노예소유자들에게 압박받는 노예의 강제로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노예소유자들은 노예의 로동을 횡령하였던 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봉건령주들는 또한 농노적 농민들의 로동을 횡령하였다

자본주의제도는 자본가들에게 착취받는 로동자들

의 임금로동에 기초한 경제형태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의 로동을 횡령하는 것이다

이런것들이 계급의 기본적 특성이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반대하는 다른 계급들을 억압하며 예속시킬 목적에서 자기의 주권기관을 만들어낸다

「국가—이것은 한계급이 다른 계급에대한 지배를 유지하기위한 기계다」 이렇게 레닌선생은 썼다

지배계급은 자기에게 유리한 또 편리한 사회제도를 강화하기위하여 국가를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낸다 법률은 지배계급의 한개 중요한 강제수단이다

이것이 적대되는 계급으로서 구성된 그러한 사회의 국가및 법의 본질인것이다

(三)

계급사회가 발전하여온 모든 계단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들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졌다

노예소유제 사회에있어서 노예소유자들의 노예에대한 비인간적인 착취와 가혹한 대우는 노예혁명을 일으켰다 이혁명들은 노예소유제도의 기초를 밑으로 부터 흔들어 놓았다 이결과 노예소유제 국가는 약화되었으며 수많은 외적(外敵)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여 하나씩 둘씩 없어져버렸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착취받는 농노들과 지주—봉건들사이의 계급투쟁이 중요한 력사의 내용으로 되었다 봉건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전쟁들과 농민혁명들이 또한 봉건국가의 토대를 동요시켰다 이것은 봉건사회안에서 생겨났고 발전된 새로운 계급—부르죠아들이 주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을 리(利)롭게 하였다 농민들의 방조를 받아서—또한 봉건들의 박해밑에 시달리던 수공업자들의 방조도 받아서 부르죠아지는 국가주권을 봉건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따라서 봉건제도는 끝을 맞추게 된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들 사이의 투쟁은 더한층 첨예화 된 형태로 나타났다

「봉건사회가 멸망한데서 생겨난 현대의 부르죠아사회는 계급적 모순을 처업새지 않았다

이사회는 낡은것들 대신에 다만 새 계급들과 새압박조건과 새투쟁형태를 내세웠을 따름이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시대 즉 부르죠아지 시대는 여러가지 계급적 모순을 단순하게만든 그것으로써 특이하다 전사회가 적대되는 두 큰진영으로 즉 서로 직접 대립되어있는 두 큰계급—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로 더욱 더욱 분렬되고있다」

이렇게 맑쓰선생은 「공산당선언」에 썼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트는 인류력사가 가지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는 다만 자기자신을 부르죠아지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시킬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근로인민들을 동시에 해방시키며 계급을 없애버리며 새로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 사명을 가진 계급이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농민과의 튼튼한 동맹을 맺아가지고 전체 근로인민의 공동한 원수인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도하는 것이다 위대한 로씨야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은 전세계 六분지一의 지역에서 부르죠아—지주들의 주권을 뒤집어엎고 력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확립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一〇월혁명이 지난날의 모든 혁명들과 차이있는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혁명은 보통으로 국정(國政)의 추기(樞機)를 잡은 한 착취자들의 구루빠가 다른 착취자들의 구루빠로 바꾸어지는것으로서 끝나고 말았다 착취자들은 바꾸어졌으나 착취제는 남아있었다 ……一〇월혁명은 원칙적으로 그러한혁명보다 다른것이다 그는 한 착취형태를 다른 착취형태로서 바꾸어 놓으려는것이 아니요 한 착취구루빠를 다른 착취구룹빠로서 바꾸어놓으려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온갖 또는 모든 착최구루빠를 타멸(打滅)하여 버리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즉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모든 피압박계급중의 가상 혁명적인 계급의 주권을 세우며 계급없는 새 사회를 조직하려는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는것이다」(밑점은 필자가 찍음)

쏘베트사회주의국가에는 착취자적 계급—자본가 지주들이 없고 계급과 계급사이에 상용할수없는 모순이 청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계급은 형제적인 로동자와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는 농민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적 경제체계와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 소유로서 구성된다 생산물은 「일하지않는자는 먹지못한다」 「각자에게서는 기능에 따라서 각자에게는 로력에 따라서」라는 원칙으로써 분배된다

사회주의국가의 인민경제는 유일한 국가계획에의하여 발전된다 생산력은 나날이 끊임없이 발전되어가는데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알맞는 생산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기 때문이다

볼쉐위끼당 령도밑에 쏘련인민은 쏘베트주권을 공간(지리때)삼아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혁을 성과있게 수행한다 쏘련인민들은 쏘베트국가주권으로서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을 막으면서 보다더 높은 공산주의 사회에로 점점 넘어가고있는것이다

(四)

계급사회의 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라는 맑쓰—레닌주의의 규정은 조선사회의 현실에서도 명백하게 증명된다

조선의 신화전설—단군신화 三국건국신화는 조선사회의 고대적 원시적조직으로서의 가장 새롭고 그리고 최후의 단계인 농업 공동체가 공동소유에 기초한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소유에 기초를둔 사회제도에로 넘어가던 시기의 사실들을 말하여준다 그런데 이 농업공동체가 노예소유제도사회로 되었는지 혹은 농노제도 사회로 넘어 갔었는지는 조선력사에 있어서 아직 해명되지 않아서 단정을내릴수없으나 그시기의 력사적 환경이 말하여 주는바에의하면 조선은 기원 五세기경에는 이미 계급분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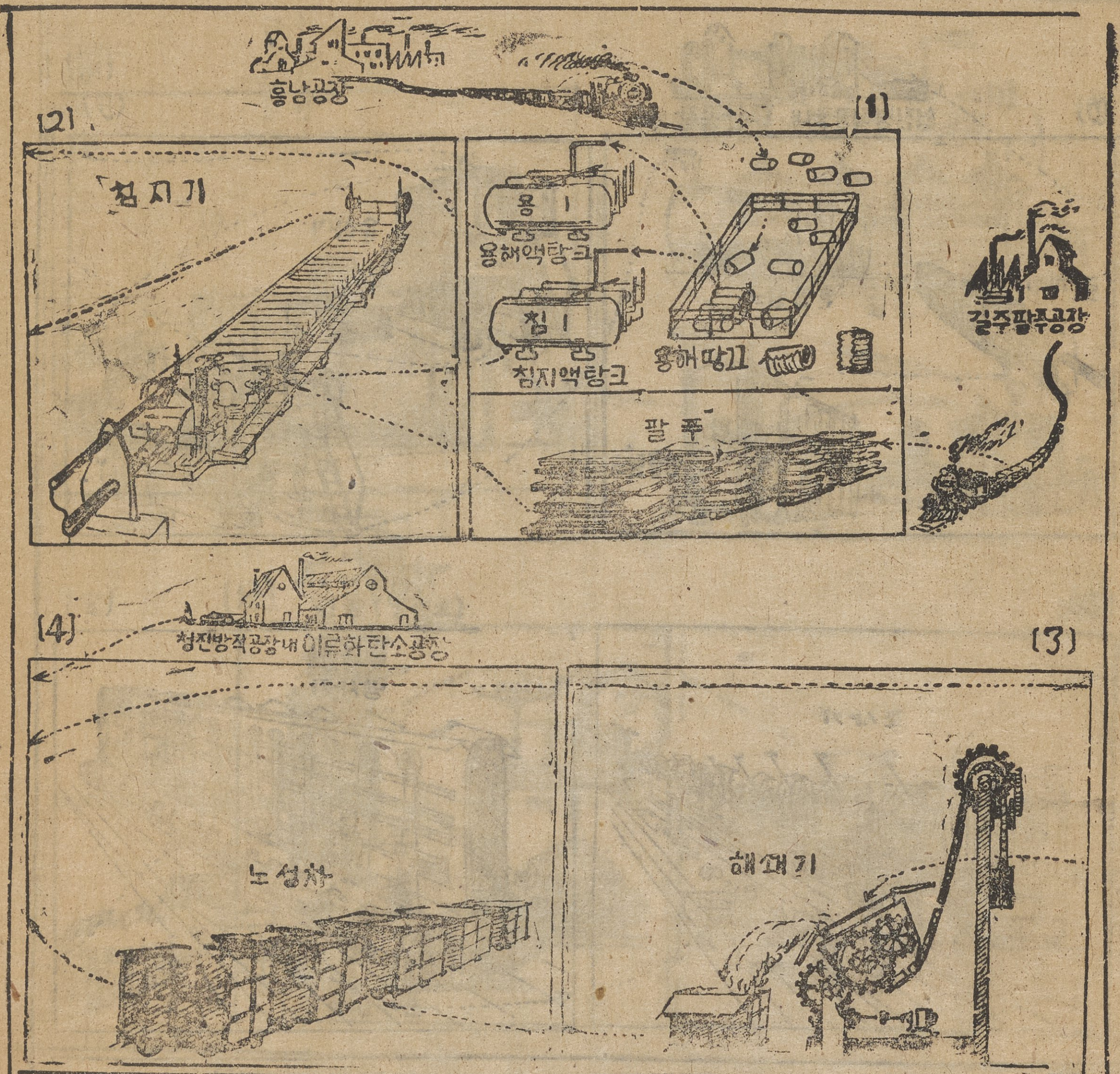
있는 종족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 종족국가들은 계급과 계급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내포하고 호상 대립가운데서 혹은 소멸되고 혹은 발전되어 결국은 신라(新羅)라는 통일적인 계급국가로 형성되게되었던것이다 조선 봉건사회의 력사를 본다면 고려 리조의 전체시기를 통하여 봉건지배자들에게 대한 농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진행되었었다 특히 중대한 사회적변동이 있을때라든가 또는 봉건통치자들이 바꾸어지는 그런때에는 반드시 농민들의 폭동이 그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 되었었다 一二세기말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폭동이라든가 기타의 모든것은 고려의 봉건지배자들의 토대를 동요시켰으며 리성계가 낡은 지배자들대신에 주권을 잡을수있은 가능한 조건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물론 리조봉건의 지배기에 있어서도 농민과 봉건자사이의 투쟁은 의연히 계속되었다 리조통치의 마지막시기 즉 一八九四년의 농민폭동은 특히 봉건제도의 지반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농민은 어느때든지 다른 혁명계급의 령도를 받지않고서는 자기자신의 힘만으로는 봉건사회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길을 열만한 힘을 못가졌다 이리하여 농민폭동으로 약화된 봉건지배계급의 국가권력은 일본제국주의의 강한 근대적무력의 공격앞에서 견디어낼수 없었으며 그들앞에 무릎을꿇고 허물어져 나가지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하의 조선에있어서는 계급투쟁은 일본 금융 독점자본가들의 지배와 조선인민의 변절자로서 그들과 야합한 반동적 지주=자본가층을 반대하는 반일 해방투쟁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투쟁에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핵심으로 있었다

쏘베트군대가 일본제국주의를 처부시고 조선을 해방시켜준 이래로 조선인민의 투쟁은 국제 국내의 온갖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고 부강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조국건설의 투쟁으로 나타났다 이투쟁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기본적인 적대대상은 미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의 침략정책과 그주구(走狗)인 친일과 민족반역자들! 반동적인 지주 자본가들이다 이투쟁에서 기본적인 동력(動力)은 로동계급과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있는 농민이며 민주주의적 또는 애국적인 조선인민의 각계 각층이 여기에 련합되어있다

우리의 승리의 열쇄는 조선로동계급의 강력한 령도적 역량과 근로인민을 핵심으로한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력량을 더욱 굳게 함으로써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가일층 강화하는 사업이다 조선인민은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새해의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조국의 민주건설의 토대를 가일층 공고화하며 인민군대와 경비대 보안대― 인민의 무력을 강화하며 남반부 인민유격대를 성원하며 확대시키는 사업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인견사를 만들때까지

—청진 방적공장—

(1) 上 흥남공장에서 생산된 양잿물로써 침지액 및 용해액(溶解液)을 (이액은 용해실에서 二硫化炭素와 같이 〃아루까리세루호―즈〃를 용해시키기위한것) 여기에서 조제(調濟)한다

(1) 下 팔프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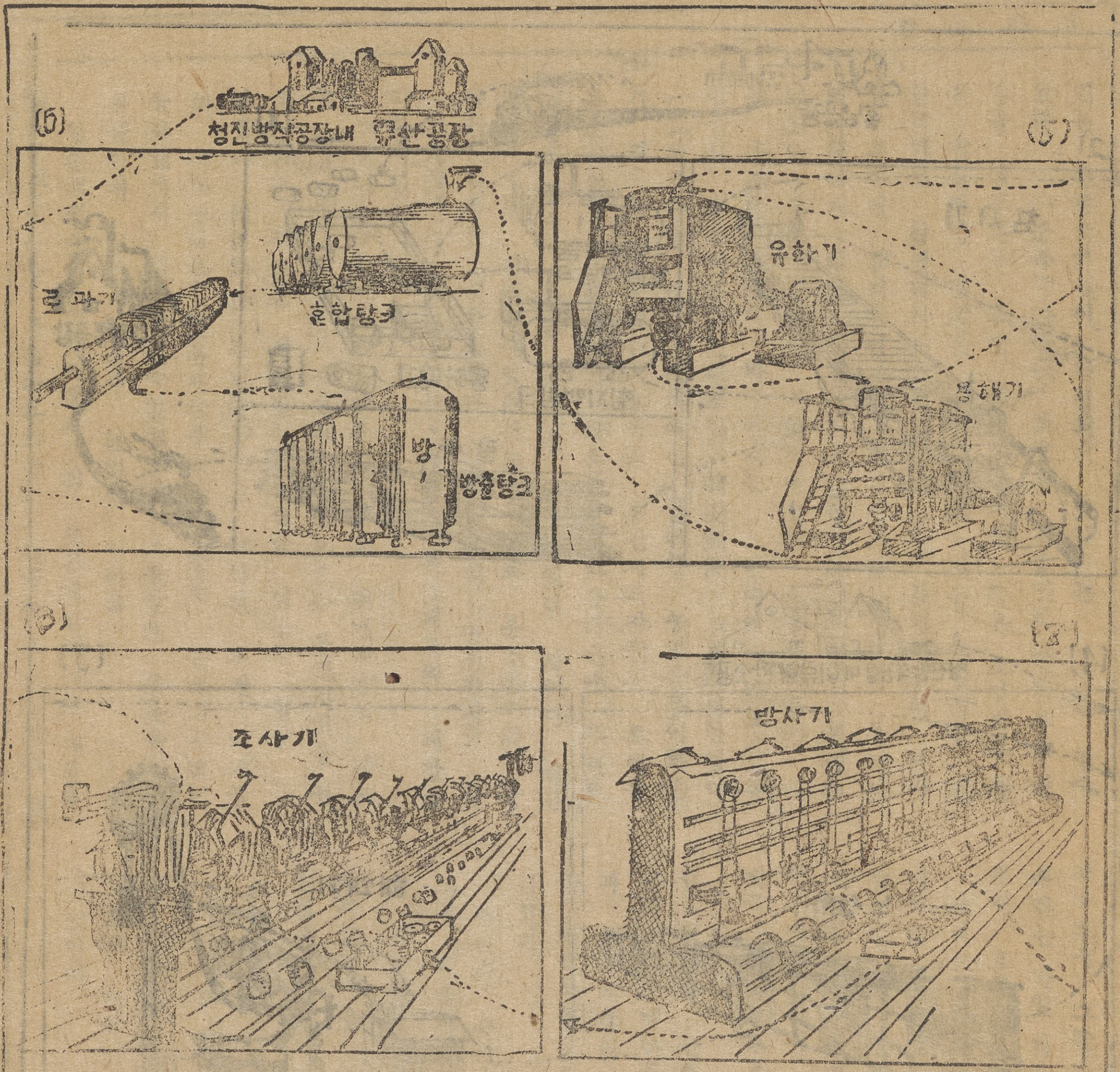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길주 팔프공장에서 생산된 팔프를 180kg씩 각각 선별한다 (180kg은 선별기 1台분이다) 이것은 오손된 팔프라든가 규격이 맞지않는것을 고루기 위해서이다

(2) 침지실

선별된 180kg의 팔프는 침지기에 넣어 1600의 침지액으로 두시간 침지한 다음 505kg으로 압착한다

이것은 침지액을 분리시키기위한것이다 여기에는 공기 압축기를 사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침지하는 목적은 〃아루까리세루〃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아루까리 세루호―즈=아루세루)



(3) 해 쇄 실

압착된 아루세루를 해쇄기(분해기)로 一시간五〇분 동안 해쇄한다음 이를 로성차에 넣는다

(4) 로정차에 넣은 아루세루를 24°C의 온도로 六六시간 방치한다

(5) 용 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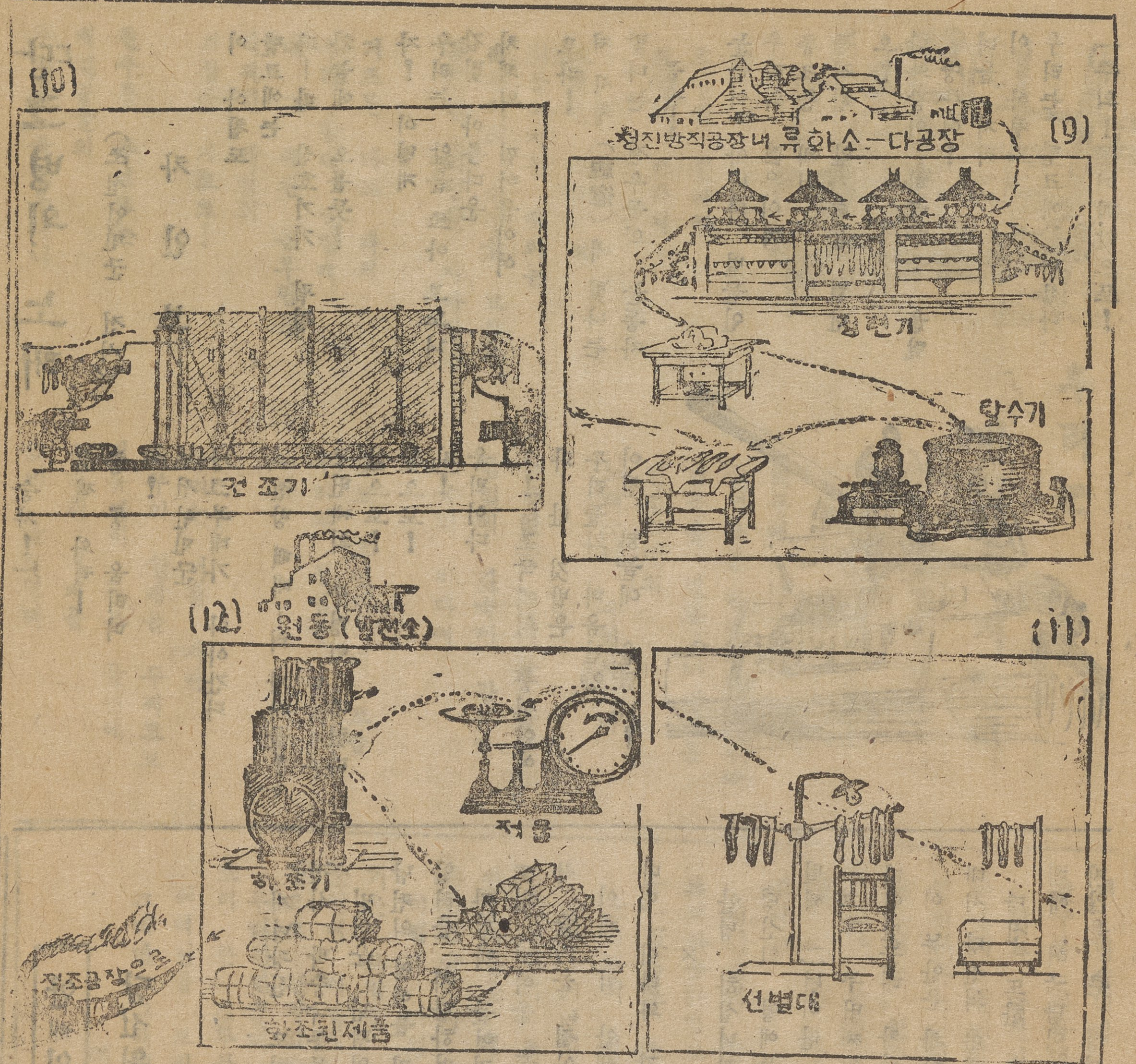
로성차 二대분을 류화기 一대에 넣고 二류화탄소(CS_2) 120kg을 넣어 18°C~28°C의 온도로 두시간一五분 류화한 다음 다시 이를 용해액 10°C) 2000l를 넣고 二시간三〇분 용해하여 기야뽐프로써 숙성실로 액을 옮긴다

(6) 숙 성 실

용해실에서 옮겨진 비스코스를 혼합땅크에서 호합하여 三회 려과한 다음 방출땅크에 넣어 一八시간 탈포한후 에―야로써 방사에 방출한다

(7) 방 사 실

비스코스는 피스톤 뽐프를 통하여 노―즐를 지나 산욕에 의하여 실이되어 포트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 가서 이것이 감기게되면 케―크가 된다

(8) 조사실 造絲室

케―크를 조사기로 감아서 여기에서 비로소 실태를 만든다

(9) 정 련 실

조사에서 감겨진 실타래를 정련기로써 처음 류화소―다로 탈류하고 표백분(漂白粉)으로 표백한다음 류산으로 산처리(酸處理)를하고 다음 비누(洗濯用비누)처리하여 탈수기(脫水機)로 탈수한다

(10) 건 조 기

여기에서 탈수된 실(絲)이 건조기에 의하여 건조된다

(11) 선 별 실

건조된 실을 각데닐별(실의 굵기)과 등별로 선별함

(12) 하 조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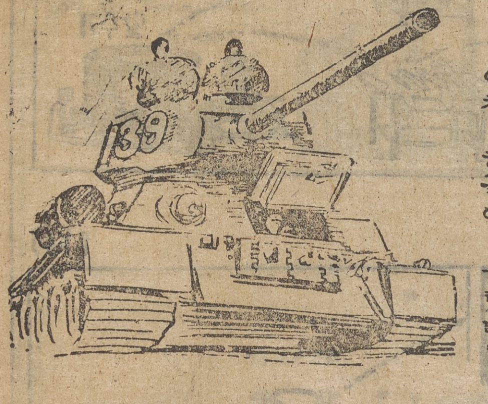
선별된실은 공기압착기에 의하여 一가마 수○○척 하조하여 각 직조공장에 수송하게된다

땅크병의 노래

(조선인민군 전사)

차 인 보

이 아침도
빨크에는
파—란 신호기가 펄펄
하늘에 오를듯…
자! 이렇게
우리는 앞을 쏘아 보노니
감빛 아름다운
차체의 믿어움이여
보라!
저 시창(視窓)에 빛나는
빛나는 전우들의 눈동자
들을…
눈들이 아니라 별들인
우리의 젊은이여
류크를 제쳐
듬직한 앞가슴을 펄린
오!
나와같이 하늘땅을 울릴
땅크여!
너를 지켜
이 아침도
우리는 빨크에 나섰다
「주의! 기계앞으로!」
「승차!」
와쩍 와쩍—
쿵 쿵 울리며
자!
조선인민군
땅크부대가 나아간다
「전방 백메—터 장애물!」
두번째의 구령이 내렸다
앞으로!
앞으로!
자!
육박이다
오! 조국에의 충성이여
파—란 깃발은
우리들의 마음인양
아침 하늘에 울랐다!



안해의 편지

당신의 영예를 지키고자

재령광산 모범로동자 김의순동무는 우리 인민군대 전사 박충국동무의 안해이다

믿어운 남편의 모습을 생각할때마다 이 동무는 남편의 영예를 지켜 자기일터에서 힘껏 기대를 사랑하며 일터를 사랑하며 새 생활의 희열을 창조하면서있다

가정에 들어가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한 귀여운 동생들을 다리고 박충국전사의 안해로서 즐거운 집안일에도 자못 충실하다

이제 이 안해가 남편에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다

× ×

안녕 하십니까!

당신이 영예롭게 우리 인민군대에 입대하신지도 벌써 二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후 두번째의 새해를 맞게되었으며 두번째의 우리인민군대 창립기념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안은 참말로 우리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가운데서 당신의 안해인 내자신의 성장을 보게 하였습니다

당신 또한 우리 온 집 어른들의 기대와 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학습과 군사상학 습득에 적지않은 큰 성과와 기쁨들을 쌓아올리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믿는 마음은 날이가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지고있답니다

저도 당신의 영예를 지키기위하여 당신의 영예를 당신의 안해인 나 자신도 입기위하여 나의 적은 힘이나마 나의 일터에서 온갖 있는 열성과 성의를 다바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모든 생산투쟁이 우리나라와 우리인민을 위함이거니 생각하니까 참으로 못견디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에 있어서도 저는 매일책임량을 一二〇%로 초과완수하였고 지난 一一월一五일까지에 년간계획을 一一五%로 초과 실행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위대한 쏘야사회주의 一〇월혁명 三二주년 기념일에는 지배인으로부터 표창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청 녀맹에서도 이날을 계기로하여 원호사업을 더욱하여주어 우리들의 뜨거운 감격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활이 풍성한 가운데서 나날이 즐거운 보람을 느끼게 된것도 모두 당신의 영예때문이며 이렇게 생각할때마다 당신의 안해된 기쁨이 참으로 한량없습니다

우리인민군대 창립 두돐을 맞하여 나는 당신의 보다 큰 전투를 축원합니다 이달말에 휴가가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면회하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재령 광산 김 의순 올림



우리는 바다를 지킨다

(조선인민군 전사)

차 덕 화

국토의 三면을
후연히 둘러싼
조국의 바다여
그넓은 가슴파에
휘몰아치는 백파는
젊은이의 심장을 고동쳐
무한한 희망을 자아낸다
거츠른 파도 헤쳐
우리 함대 달릴때
네 그 세찬 몸부림은
씩씩한 해병의
기상을 기르고…
원쑤를 무찌르는
백절불굴의
투지를 북돋우나니
해풍에 나부끼는
슬기로운 함대기와 더부러
밀물을 밀고 나아가는
인민함대의
노래소리 우렁차고나
한량없은 깊이와 담력을
람빛에 깊숙이 간직한
조국의 바다여
맑고 후연한 네 모습
우리의 정열을 불태우누나
우리는 너를 지켜
원쑤의 함대를 무찌르고
거울같이 푸른 물위에
승리의 기치를
높이 올리련다



「앞에 총」 자세로 서서

(군무자) 오 동 수

따발 총
탐탁한 총가목의 쥘맛이여
믿음직한 탄창의 무게여
거짓없는 총신의 곧음이여
너 내 가슴에 안겨
너 내 어깨를 타고
나와 함께 자랐으니
꿈속에서도
네 어느 구석 나삿뭇하나가 얼른
거리고
캄캄한 밤에도
내 겨냥에 너는 어긋남이 없어
눈동자와 같이 아끼어 그지없는
—따발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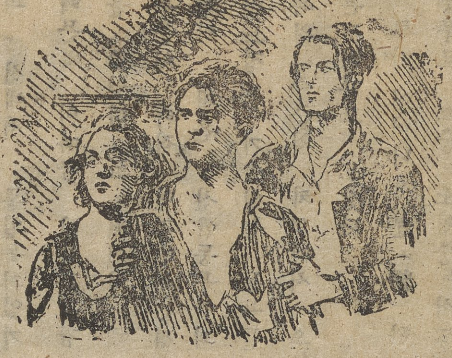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창립
두돐맞는 이 아침에
저 주름 잡힌 할머니도 우릴맞아
저렇게 기꺼워 하시니
우리 큰목소리로 응대해 드리자
그래서 내가
흔연히 너를엎고 나설량이면
땅크는 지축을 울리고
폭음 우람찬 습격기 하늘을날고
공화국기 휘날려 함대는 바다를
타고
아!
우리는 이렇게
조국의 부름에 나섰다

다함없는 인민의 사랑속에 二년
기세도 당당 우리는 성장하였거니
저 주름웃움핀 할머니의 얼굴
다시는 울상지게 않하리
어느때나 총이여
우리는 침해하는
그 악착한 원쑤놈의 앙가슴에
네 총뿌리를 드려대여
방아쇠를 당겨 주마
그렇다 총이여
내손때배어 다담된
너 내 따발총 사랑하는 벗이여
배부른 네탄창이 가쁘겠다만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안전쇠를 잠그고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위하여
더욱 힘 돋우어
조국과 인민의 부름을
엄숙히 대기하자

연극감상

청년예술단 창립공연 『청년근위대』를 보고

최 건



나는 이번 새로이 발족한 청년예술단의 창립공연인 연극 "청년근위대"를 큰 감격속에서 감상하였다 청년근위대는 이미 쏘련의 우수한 영화로서 우리북반부 전체인민들한테 절대한 환영과 지지속에 상영되었던것이다.

이영화를 본 우리들은 위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련의 적체인민들이 조국전쟁시기에 파시스트독일을 격멸하기에 얼마나 단결되었으며 특히 쏘베트청년들의 투쟁력과 단결심 용맹성과 쏘딸련의 명도하에 성장된 숭고한 사상성을 다시금 이영화에서 느끼었던것이다 이렇게 그내용이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심오한 작품을 이번 청년예술단이 대담하게도 공연을 가진데대하여 나는 다시금 격찬하지 않을수없다

주인공 일리암 끄세보이(김인 분)쎄루게이 (김선화 분)류바 (조영자)울리야나(정남홍)등 기타 모두 쏘련의 사랑스러운 청년들인것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평화로운 행진을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쏘베트를 불의에 침공한 강도 독일 파시스트들의 략탈적 살인적인 행동이 심해질때 전체 인민들과 더부러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질머진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싸웠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볼쉐위까당의 옳은 지도하에 강철같은 청년근위대를 조직하였다

여게나오는 청년근위원들은 모두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높은 문화적교양을 받은 대원인것이다

세계 그 어느나라 청년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강력한 투지력이 있는가하면 그들한테는 또 노래와 시와 무용등 풍부한 그들의 생활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이번 청년예술단의 공연에서 나는 이러한 점에서 특히 느낀것이 많았다 청년예술단 동무들의 연기든지 또는 전체안삼불이 생기발발한 정열적인 청년예술극단다운 분위기를 찾아볼수 있었다 연극자체가 청년들의 생활을 묘사한데다가 여게 출연하는 동무들이 이를그대로 청년연극인들이었기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더 끌었으며 또 우리한테 산 감정을 주었다

연기자 거의가 아직 기술적으로는 미숙한데도 있으나 그 체계에 있어서 과거 비사실주의적인 기계적인 신파경향연기에 젖어들지않고 옳은 사실주의연기에로 모두가 지향하고 있다는것

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창립초기인만큼 전체적인 안삼블이 완전히 째우기까지도 금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특히 지적할것은 주인공 교세보이로 분(扮)한 김인동무는 그 대사억양에서 다른 동무들보다 아주 동떨어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였기때문에 어색하였다

그리고 연극전체가 일관된 사건에서 일관된 감정의 선에서 통일못되었기 때문에 이따금 지루한 감을 주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이 아직 연기에서 경험이 적은 신인동무들과 어느정도 기술있는 동무들과의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라고 보겠다

특히 어머니로 분(扮)한 동무로 그중 소인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대사의 감정이 없고 무대에서 생활속에 휩쓸리지 못하여 전체 안삼블을 통일시키는데 지장을 주었다 그다음으로 연극분위기에서 아주 동떨어진 감을 주었고 파란스가 째우지못한 실례를 든다면 청년들이 교세보이집에 모여서 춤을추고 노는 장면같은 것은 그것이 청년근위대 동무들의 생활로 흐르는 일관된 사건감지않고 무용에 너무 관심을 돌리어 그 장면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사건을 망각하고 단지 춤 그것으로만 감상하게되는 경우를 낳게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런장면이 몇군데 있었다 그리고 연출자나 연기자가 영화에서 너무도 기계적으로 형상을 떼어왔기때문에 무대우에서의 효과와 영화에서의 효과의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감을 약간 느끼었다

례를들면 교세보이의 할머니같은것은 영화의 할머니처럼 너무 몸이 약하고 체구가 적은 할머니였기때문에 퍽 빈약감을 주었다

무대우에선 육체와 음향과 동작이 통일된 박진력있는 방향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 기타 다른 동무들도 영화에서 동작이든지 분장을 참고하였는데 그것이 생활화 못되고 이따금 의형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감정의 표현에서 표현력이 미약하여 아직 소인연기에 가까운것을 보여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가 이따금 중단되고 그것이 또 과장으로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기에서는 이상 말하면서 연극전체를볼때 이 희곡이 원작에서 각색된것은 쏘련에서 수정하기 전이기때문에 당의 역활이 명확히 못나온것은 연출자도 이점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작품의 탓이라구 하겠다

이번 창립공연으로 보아 전체적인 성과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연기련마가 필요하며 빨리 소인극같은 감을주는 몇몇동무들의 기술을 향상시키어 전체적으로 짜인 힘차고 정열있는 모든 연극의 모범이 되고 선봉대가 될수있는 청년예술단이 되길바란다



남 천

청년이 민족해방을 위한 무력투쟁에서나 공장을 복구하며 생산을 제고시키는 건설투쟁에서나 선봉대적 역활을 놀고 있는것은 조선에서나 중국에서나 마찬가지다 또 청년들이 인민정권의 강력한 전위대요 튼튼한 보위부대라는것도 중국이나 조선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청년들은 「신민주주의청년단」 혹은 「민주청년단」에 집결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 그의 령도자이신 모택동주석의 주위에 강철같이 단결되어 오로지 그의 령도자의 부르심에 의하여 천만사람이 한사람처럼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로동청년들은 적쟁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시설들을 복구하는 작업에서나 생산을 제고시키고 물자를 절약하는 투쟁에서나 다 한가지로 대렬의 핵심이 되어 혹은 돌격반을 조직하여 서로 경쟁하며 혹은 다른 공장에 호소하여 함께 다투어가며 굳건하고 부강한 인민민주국가의 경제적토대를 건립하는 투쟁에 분기하고 있다 많은 공장들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청년단원들의 투쟁정형을 들었으며 또 친히 목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물론 누구나 상상할수 있는 일이요 다 아시다싶이 세계의 모든 민주청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세아 및 대양주제국직맹대회에 참가하여 四〇일동안 중국에 있는동안 비교적 인간적으로 친숙해졌던 몇사람의 청년동무들을 회상하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인상을 여기에 적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대회주비위원회에는 많은 젊은 녀성동무들이 공작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표단과의 련락 안내 전대 같은데에는 거진 스물을 갖넘었을 녀학생들이 나서서 공작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옷은 호텔안에서는 얇다란 푸른 당목의 홑양복이요 외출할때에는 솜을 놓아 듬성듬성 누비질을한 같은 빛갈의 웃저고리를 그우에 걸치는 것이었는데 역시 같은 빛갈로 된 「간부모」를 머리우에 비스듬이 올려놓는것을 그들은 좋아하였다 머리는 단발로 잘랐을뿐 머리카락에는 한줄기의 「인둣자리」도 건너간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영어 혹은 로어에 능숙하였다 명랑하고 친절하고 상냥

[illegible]우에서 해공거조는 면접하고 본[illegible] 대표들과 얼마든지 친숙해지면서도 자기의 립장과 위치는 결코 잃지 않는 사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illegible] 세련된 느낌을 상대자에게 주는 것이였다

조선대표단과의 련락에는 두 녀성동무가 전임으로 배치된 관계로 우리들은 매일처럼 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 조직의 지시로 외국어학교에서 로어를 배운다 하였다 두 동무중의 한동무는 문학을 좋아한다하였고 또 사실 높은 감상안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내 자기의 감상을 정리하는데 유능하였다

그는 미하일 쏠로흐프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의 "고요한 돈"과 "개간된 처녀지"중에서 어느것이 더 동무의 마음에 들었습니까?」하고 내가 물었다

「물론 두 작품이 다 훌륭한 좋은 작품입니다 특색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따져서 어느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다면 어쩐지 "고요한 돈"이 더 마음에 들었던것같습니다」

「그 리유를 문학적으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였다

「한번도 그렇게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무슨 커다란 력사 전체를 그대로 내놓은것 같고 "처녀지"는 한시대의 특정된 과업만을 보여준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처녀지"보다 훨씬 더 고전(古典)에 가까운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의 문학에 대하여 말하였다 로신(魯迅) 모순(茅盾) 곽말약(郭沫若) 등의 작품에 그들은 정통해 있었다 一九四二년 연안에서의 문예좌담회 모택동 주석의 문예로선이 제시된 결과로 조수리(趙樹理)의 「리유재판화(李有才板話)」나 「리가장(李家莊)의 변천(變遷)」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나왔다고 그는 이야기하였다

「"돈"보다는 "처녀지"에 속하는 작품이겠고 또 그 예술적인 높이에 대해선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수 있겠으나 가령 제가 농촌에 가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조수리의 작품을 읽으면 아 그놈은 우리동네의 왕아무개와 같다 저 책속의 지주의 행색이나 거동은 우리동네 아무 지주와 꼭같다 등등으로 무릎을 치며 좋아합니다 작품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원쑤와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을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교육적 가치가 크고 선전적 효력이 큰것은 역시 작품의 우점(優点)으로 되겠지요 또 작품의 영원성이나 고전적 가치도 이 길을 통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닐까요」

× ×

十二월二九일 오후에 북경대학에서 一五○명가량의 동방어문계(東方語文系)학생들을 상대로 조선문학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사실인즉 그전날 나는 북경대학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구경하려 중국녀성동무 한분과 함께 혼자서 반제국주의투쟁에 있어 이름이 높은 이 대학에 들렸던 것인데 그곳에서 도서관장 향달(向達) 교수와 동방어문계의 계(季) 주임교수등의 친절한 안내로 서고와 열람실과 연구실을 구경하고 박물관에서는 특히 그들의 호의로 선사학(先史学)의 귀중한 자료인 五○만년 원인(猿人)인 「북경인(北京人)」의 두개골모형을 선물로 받았었다 계교수는 동방어문계의 열구실을 구경시키면서 그 서고안에 조선말로 된 책이 단 두권밖에 없는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요청했던 것이다

남경과 북경에는 종전부터 동방어문에 관한 전문학부가 있었던바 해방뒤 두개를 정리하여 북경대학안에 동방어문계를 두게 되었다고 한다 동방 제민족 열개의 어문을 공부하고 있는바 조선 몽고 서장(西藏) 월남을 중점적으로 한다 하였고 조선어과에는 특히 열명의 청년학생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다 하였다

강연이 끝난뒤 이들은 나와 좌담하기를 요청하였다

「학문상에 관계된것은 시간이 없어서 묻을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조선어문을 공부하는테 있어서 답답하고 딱한 사정만 호소하겠습니다」

그들은 서적이나 사전이나 하나의 재료 심지어는 교과서 한책 신문한장이 없어서 조선어문을 연구하는테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였다 중국과 조선과의 문화적 교류며 특히 조선의 청년들과 중국청년들간에 밀접한 련락을 취할 길이 없음을 [illegible]하고 [illegible]하였다

조선에는 이미 一년전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또 중국도 여러분들의 투쟁의 결과로 지난 一○월一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두 나라는 모두 인민민주주의 국가다 두 나라간에는 벌써 외교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므로 여 동무들의 간절한 념원이 성취될날이 나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국에 돌아가면 동무들이 조선문화에 대하여 또 조선 청년들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깊은 애정과 열렬한 희망을 내 힘자라는 데까지 선전할것이며 여러 동무들의 열심스러운 모습은 반드시 조선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되며 그들을 감동시킬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눈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북경대학의 교문을 나섰던 것이다

우리 일행이 북경을 떠나 천진 상해로 향하던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있는데 손님이 찾아 왔다하여 로비—로 나가보니 역시 북경대학 학생들이였다 그들은 나와의 리별을 애석해 하며 나를 통하여 조선의 청년학생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인사를 보낸다 하였으며 또 「김일성대학학생들에게」 보내는 그들의 멧세이지를 나에게 부탁하였다

「언제 다시 만날는지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저희들은 아름다운 당신네 나라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뒤 그들은 저저끔 한두마디씩 우리말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청년과 중국청년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많이 힘써 주십시오」

「조선가서 김일성대학학생과 만나고 싶습니다」

비록 말은 서툴으나 애정과 우의와 존경이 스미는 어조였다 나는 지금도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하나하나 내 눈앞에 그려보고는 혼자서 즐거움을 금하지못하는 것이다



소설

三八선 밤나무 밑에서

—한 경비대원의 이야기—

리 춘 진

우리는 三八선 일선에서 경비대원들의 오락회에 참석하였다 오락회는 중대본부가있는 뒷산 중허리 밤나무밑에서 아주 호화로이 열리었다

대원들은 거의 수차에 걸친 적의 침습을 물리친 용사들이였다 군복가슴에는 훈장과 군공메달 모범민청메달이 광채를 내고있다

대원들의 노래와 춤은 긴장한 속에서 질서있게 진행되었나 오락회가 끝나자 나는 「꼬마이」라고 불리워있는 애티가 그냥나는 젊은 대원과 마주앉았다

나는 벌써 오락회에서 젊은 대원에게 주목했다 여흥이벌어졌을때 어린대원은 어깨를 들썽하기도하고 싸리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식타에다가 뚜드리기도하며 소리를 내어웃기도한다

「여흥대장」하고 꼬마이라 부르는 대원은 일어섰다

「一분대에 내가 있는걸 몰라요 내 한마디 하지오단」

하더니 금속성있는 목소리로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꼬마이는 우리 소대 명물이요」 내곁에 앉은 소대장이 말한다

「요며칠전 분대회의에서…… 동무는 비록 떨어진 밤을 주었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우는대원으로 있을수없는 행동이요 하구 비판했드니만…… 저동무가 일어서서 「소대장동무 이제부터 제 우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오」하지 않겠소 하……」

젊은 핏기가 올라솟아 얼굴이 홍조된 소대장이 소리를 내어웃었다……

나는 어린대원에게서 전투이야기를 들으려고 잎사귀가 누런 밤나무를 쳐다보면서 노래부르는 「꼬마이」곁으로갔다

「동무 방해가 되지않을까요」

나는 나즉한 소리를 내였다

대원은 낯선 손님이 자기집에 들어왔을때 어린해들이 하듯이 가는 두눈이 부끄럼과 다소 당황한 기색이 가득찼 밤나무밑에는 누어서 부르는 대원들의 노랫소리와 두세네씩 패거리가되어 이야기하구는 웃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린다 그리고는 이따금 밤송이가 타튀고는 가무스레한 밤알이 철석 떨어진다

「방해라니요?」

어린대원은 서멋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능금처럼 발간 얼굴이 미소로 변하고 부끄럼과 기쁨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것이다

그리고 어린대원은 전투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

「바로 六월七일 오전 세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비상소집이 내린것을 모르고 전호속에서 자고있었습니다」

젊은 대원은 노란 밤나무 잎사귀를 쥐어 이쪽저쪽 뜯으면서 이렇게 말을 끄집어 내였다

이때까지와는 아주 딴판으로 가는 살눈이 동구래 가면서 긴장하여진다

「저— 악독한 「국방군」놈들이 불의 습격해 오잖았겠어요」

젊은 대원은 눈앞에 적을 노리는듯한 눈초리로 앞을 쏘아본다 그리고 벌덕일어나 앉는다

이때 우리앞을 둘러싸고있는 산 저쪽 「국방군」 진지에서 놓는 카—빙총소리 따꿍따꿍하고 들려왔다

우리는 총소리난 쪽에 귀를 도사리었다

「난 감시병으로 교대해 인차입지마 그만 깊은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맨 끝에서 자는 저를 깨우지않고 전호밖에 나갔지요… 제가 너무 작기때문에 보지못했습니 저는 꼬마이니까요」

젊은 대원은 해쑥 웃는다 양빰에 연신 붉으스레한 핏기가 올라솟듯 싶다

「우리 분대장동무가 점검해 보니 대원 하나가 모자라니깐 이내 꼬마이가 없어졌다구들 야단친 모양입니다 다시 전호에가서 찾으라해서 한동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호구석에서 코구르며 자는 저를 요행 발견했답니다 그동무는 저를 깨우면서 「왜 자고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지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역시 소리처 대답했습니다 「자라는 명령에 자는데 동무는 무슨 허튼소리를 지르느냐」고 소리치고는 또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동무가 암만 흔들어도 제가 깨어나지않으니까 제 귀에다 입을 대구 「비상소집이다」하구 소리 치지않았겠어요 저는 그소리에 벌덕 정신을 차렸어요 그만 뛰어나갔지요 나가니까 개들이 (국방군) 퍼붓는 대포 박격포알이 슈—슈 찌찌 하고는 공중을 지나가하면 먼곳에서 탕탕하고는 터지지않겠습니까 그리구는 八〇〇메—터가량되는 벌

판에서는 기관총소리가 귀밑듯이 나지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가슴이 싸늘하고 머리털이 끝끝 해집니다 저는 벌써 여덟번이나 전투에 참가했기에 놀래지않았습니다 전투에는 경험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콧소리와 기관총소리를 듣고 하하 저놈들이 부락으로 쳐들어오자구 하는구나 하구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대장동무에게 달려갔습니다 「분대장동무 저는비상소집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분대장동무는 히쭉 웃고서는 제손을쥐면서 「교마이동무 우리는 근심했소」 하지않겠습니까 나는 전투준비에 대한 점열을 마치고 자기 부서에 가서 다시한번 자기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태세였습니다

「저것봐 이리떼같은 악한들이 하는 짓을!」

제절에 있던 대원이 말했습니다 부락쪽에서는 싯뻘건 불기둥이 하늘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그것을 신호로 하듯이 이쪽 저쪽에서도 불기둥이 하늘에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내 예측은 틀림없었습니다

새벽공기가 짙다는 새크무레한 냄새를 가져왔습니다 대원들은 코를 시룩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놈들이 다짜고짜로 퍼붓는 대포소리와 중기소리에 섞이어 피난하는듯 싶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그놈들한테 찔리워 소래기를 지르는 돼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다 견딜수 없었습니다 모두다 총을 더 힘있게 쥐었습니다

「저놈들을 그저 둘수는 없어」

하고 분대장동무가 말하였습니다

분대장의 눈에서는 밤중에도 치미는 분노에 새파란 불이 칼날같이 번뜩이었습니다

소대장 뿐만아니라 전체대원의 눈이 칼날같이 날싸게 번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오금이 앞으로만 나갑니다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애타는지요

이때! 소대부로부터 소대장동무가 달려왔습니다 지난 五월전투에서 ××봉 앞 고지에서 수一○배의 적을 물리친분이지요 「소대장동무 명령은 어떻게되었습니까?」

대원들은 제각금 재촉하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곧 명령이 있을것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는 분대장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는 바쁜듯이 다른 분대로 걸어갑니다

소대부에서는 주대로 부터 오는 전화소리가 요란합니다 통신원은 말을 속사포처럼합니다

키가 작고 몸집이 똥똥한 련락병이 소대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소대장동무 제二분대 황경호 보고할것을 허가합니까」

차렷 가세로 말합니다 숨이 차서 헐떡대입니다

「보고하시오」

소대장은 긴장한 시선으로 련락병을 뚫어지게 봅니다

「세포위원장 녀맹위원장 집에다가 불을……」

하고는 뒤를 계속못합니다

「가족은——」

「모르겠습니다」

소대장은 몇걸음 앞으로 닥아섭니다

「동무수고했소」

소대장은 련락병에게 악수합니다

련락병이 돌아서서 달음질치자 소대련락병이 다름질쳐 갑니다

세포위원장의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콧대를 가진 얼굴과 녀맹위원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대원들은 부락을 지날때마다 세포위원장과 녀맹위원장집에 반드시 찾아갑니다 어저께도 녀맹위원장은 저한테 감 칠흔개와 손수건을 주지않겠습니까

「동무 수고해요 울라와 쉬어가세요」

언제든지 만나면 꼭 하는 인사가 이것입니다

기다리던 명령은 내리었습니다

「한놈도 남기지 말구」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소대임무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틈에 산을 내려왔는지 저들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동이트기 시작합니다 다첫집은 불속에 덮이었습니다 짙다는 냄새는 코를 쿡쿡 찌릅니다 높이 치솟은 재는 우리에게까지 날아옵니다 목이 매캐해옵니다

우리는 소대장의 지휘로 보리밭을 기어 나갔습니다

이삭이 트기시작한 보리쭐은 와싹와싹 소리를 냅니다 흙과 보리잎사귀의 구스무레한 냄새가 화약냄새에 쉬이어 납니다 나는 퍼뜩 고향생각을 했고 어떤때 보리밭에 뛰어들어 놀던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빨리 기어나가 적을 한놈이라도 쏘아죽여자는 생각이 다른생각을 억누르고 잠겨버렸습니다

한참 기어 나갔습니다 얼마동안 기었는지 그것은 알수없습니다 하시간 되는것같기도하고 두시간되는것같기도하고 一○분되는것 같기도했습니다

적들이 퍼붓는 기관총알은 머리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폭풍이 지나가듯이 보리밭이 쏴—쏴— 소리를 내면서 떨고있습니다

우리쪽에서 냇다붓는 총기소리도 요란합니다 간이 찌롱찌롱 산울림을 칩니다

날은 훤하니 밝아왔습니다 이삭이 금방나온 보리들은 놈들의 발에 짓밟혀 찡크러졌고 포탄에 패운 자리가 군데군데있습니다 악한들의 발자욱이 여기지기보입니다

사방은 먼지 안개속에 덮이고 화약냄새가 코를 콕콕 찌릅니다

부락쪽에서는 대격전이 벌어진듯 포화소리에 귀가 쨍하고 천지가 뒤집힐듯 합니다 가마귀떼가 춤을 추는듯한 비명을 지르며 지나가고 정신을 대일 땅이 지진을 일으킨듯 유직입니다

저도 모르게 몇발자욱 기어나갔습니다 이때 저는 위협하는듯한 말소리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털이 끝끝해지고 온신경이 한군데 집중되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귀를 도사리었으나 맹렬한 포화소리에 아무것도 들리지않습니다 머리를 쳐들었으나 보릿대가 큰 나무처럼 보일뿐입니다

나는 다시 기어나갔습니다 가로나간 길 홈차기에 이르자 몸을 붙이고 길위를 쏘아보았습니다 국방군 세놈이 부락농민 두분을 몰고오는것이 一○○메—터 거리를 두고 보이지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걸어오는것은 녀맹위원장 앞집 영감이었습니다 키가 길쭉하고 얼굴 역시 길

쪽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긴 수염을 자랑하듯이 쓰다듬는 영감이었습니다 아들은 인민군대로 나가고 갖난 손자애가 있습니다 요재 그애가 열을 내면서 앓더니 어찌되었는지……

그영감은 공포에 싸여 어쩔줄 모르듯 허둥지둥 걸어옵니다 결엣분은 좀 젊어보이나 모를 분이었습니다 저고리를 헤쳐놓았고 아랫바지가 내려느리워 발에 걸리는것도 모르고 걸고있습니다 이분은 머리를 푹 수그리어서 얼굴은 볼수없었습니다 지게에 들머진것은 보이지않으나 시껌언것이 량쪽에 불쑥 내밀고있습니다 놈들이 죽인돼지였습니다

그리고는 량옆과 뒤에는 국방군 놈들이 서서 걸어옵니다

놈들은 카ー빙총을 겨누고 있지않겠습니까 나는 요놈들을 모주리 잡아치우려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꺼꾸러뜨



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서 오는 양돼지처럼 살이 부등부등 찐놈에게다가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잘못겨누면은 인민군대아버지를 상할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양돼지같은 놈은 얼굴을 찌프리구 질겁한듯이 뒤를 돌아다 보기도하고 좌우를 살피기도합니다

저는 그놈의 상판대기를 뚫을 심뽀로 묘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할때 그놈은 무슨 소리를 중얼거립니다 그때 저는 방앗쇠를 당기었습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양돼지같은 놈은 뒤로 꺼꾸러졌습니다 그러자 두놈은 길넘어 논편으로 뛰어 들어가지않겠습니까 저는 또한놈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논판에 철석하고 뛰어드는 소리마 듣고는 저는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잠복해있던 놈들이 쏘는지 제가 있던곳을 향해 총알이 비오듯퍼

붓지않겠습니까 저는 인민군대 아버지와 부락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심이되나 알아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 기었습니다 그러나 기어 나갈수없었습니다 저는 그놈들의 포위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들한테 처소를 발견 당했습니다 내가 있는곳으로 총알이 콩닦듯 날아오지않겠습니까

저는 이때에야 비로소 아군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지 오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알았지만은 저는 우리 소대 보다 너무 앞서 기어 나갔기에 저한테 련락이되지못했습니다 제가 달리기는것은 우리 소대에서 제일이라는 평판입니다……

저는 그때 소대장과 분대장과 대원동무들이 근심하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견딜수없이 등골위가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어간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해는 벌써 어지간히 떠올랐습니다 등에가 윙윙소리를 내면서 돌고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몇번 자리를 이동했으나 효과를 내지못했습니다 저의 정신상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만 저도 모르는 의식이 자동적으로 저를 움직이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몇번 자리를 옮기고 몇번 기고했습니다 그러다가 홈차기를 발견하자 그 홈차기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전신은 땀이흘러 녹신히 젖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을 퍼붓듯 흘러내립니다 후ー하고 숨을 내 쉬었습니다 혼돈하던 의식과 판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깜박 놀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국방군에게 끌리어 왼쪽편에 서서 오던 부락민이 보릿대 속에 얼굴을 처박고 손은 헤쳐놓은 저고리 자락을 움켜쥐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는 검붉은 피가 벌겋게 물들어있었습니다 아직도 피가 저고리에 감기어든 보릿대를 흘러 잎사귀 끝으로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고있습니다

저는 기어나가 그분을 흔들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세네번 불렀습니다

아무 응대도 없습니다

저고리에는 쉬파리 모기떼가 모여서 피를 빨아먹고있습니다

정면으로 향한 얼굴은 조금도 상하지않았으나 양초같은 빛갈을 하고 두눈은 그냥 부릅뜨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알은 무엇을 노리고있는것같이 보이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는것같이도 보입니다 그냥 벌리고있는 입술은 간신히 떨고있습니다

눈가장자리와 입술에 붙은 등에를 몰았습니다

「저놈들을 잡아주시오」

두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것 같습니다

「여보시오」하고 제가 다시 부르자 부락민의 몸은 꼼지락거리기시작합니다

이때 저에게 새로운 용기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자」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부대장아바이 중대장동무 소대장동무 분대장동무 동무들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 죽으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려 동무들 얼굴과 三년전에 돌아간 아버지와 전번에 면회왔던 얼굴이 납작한 시머니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제가 ××동 전투에서 국방군놈을 쏘아죽일때일이 골속에서 번개처럼 떠득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의 한방울까지라도 바치자」

라는 군인선세의 문구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겨의 골속에 한가지묘안이 생기었습니다

총을 한방 쏘아서 적에게 처소를 알리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어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있던 주위에 총알이 소낙비처럼 퍼붓지않겠습니까

한참 그러더니 점점 포위망을 좁히지않겠습니까 저는 한방도 놓지않고있었습니다 네놈이 일어서서 제가 총놓은 쪽을 향하여 걸어오는것이 보입니다

아마 제가 그놈들 총에 맞아 죽었다구들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총뿌리를 겨누고 가까와오기만 기다리었습니다 五〇메—터 가량 거리가 되었을때 저는 또 한바탕 놓았습니다 키가 큰놈이 총을 내어던지고는 뒤로 꺼꾸러집니다 그러자 두놈은 질겁하여 냈다 빼지않겠습니까

그와동시에 저한테로 집중사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바탕 놓고는 五〇메—터쯤 기어가서는 또 한방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번 쏘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놈들은 여기에 많은 경비대원이 있는줄만 안모양인지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그저 총만 놓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어 포위선을 뚫고 나왔습니다 눈앞에 우리 소대가있는 봉이 보입니다 우리가 늘상 오르내리던 길이 반가이 보입니다 길가에 국방군놈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쓰러져있습니다 놈들이 三〇〇메—터의 거리를 두고 추격하여 옵니다

나는 봉에 올라 소나무와 가둑나무가있는 숲속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소대가 오늘 새벽에 기어든 곳입니다 보리밭골에 나가 봉에 뛰어오르려할때 나는 깜짝놀라 멎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인민군대 아버지가 몸을 웅크리고 누어있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량손을 내어밀고 허위적거립니다 량손은 피투성입니다

「영감님 저는 경비대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은 듣지못했는지 몇발짜욱 더 기어나가다가는 더 나가지 못하고 량손으로 땅을 긁어올립니다 영감은 중상당한 모양입니다

저는 영감곁에 갔습니다 영감은 공포에 찬 절망적인 비명을 내고있습니다 저를 국방군으로 본 모양입니다

「경비대입니다」

저는 영감 귓가에다가 입을 대이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에 영감은 흙과 피투성이된 얼굴을 돌려 저를 보지않겠습니까 영감의 얼굴의 주룩살이 움직이더니 간수염이 떨고 말라붙은 회색입술이 경그려집니다 말하려하나 말이 나가지않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떨리는 손을 겨우 내밉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오」

영감의 모든 동작이 이렇게 애원하듯 합니다

「영감님 안심하시오」

내말이 떨어지자 영감은 까무러쳤습니다

저는 영감을 껴안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니 무거워서 걸

을 수가 없습니다 놈들이 추격하면서 놓은 총은 더욱 맹렬해집니다 저는 영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군복바지가 영감의 넙적다리에서 나온 피에 얼룩지었습니다

「영감님! 정신차리시오 빨리 도망치시오」

저는 연거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방 적에게 총을 놓았습니다 돌아다 보니 중상당한 영감은 새 기운을 얻었는지 움직이어 한걸음 두걸음 기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민군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가기위하여 돌아서서 몇걸음 앞으로 기어나가 총을 쏘았습니다 한참후에 돌아다보니 영감은 놈들이 짓밟아놓은 보리대를 량손으로 긁어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려 애를 쓰고있습니다 지렁이가 기는것보다 더 느립니다

「아버지 빨리 더 빨리……」

저도 가슴에서 불이나듯 소리를 쳤습니다 인민군대 아버지는 손을 허공에 내어둘어 허위적거리면서 한자욱 두자욱 움직이고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때 적이 놓은 카ー빙총과 엠·완 보총소리가 귀가 밀듯이 나자 철갑모가 쨍소리를 내었고 몸에 큰 진동을 받았습니다 땀냄새와 흙냄새가 쉬인 화약냄새에 숨이 막힐지경입니다 전신에는 흙먼지가 쉬인 땀이 흘러내려 눈을 덮어 앞이 보이지않습니다 땀을 씻었으나 포연과 먼지한개가 온 세계를 덮은 듯 보았습니다

이렇게 뽀얀 안개속에 국방군 다섯놈이 달려오는것이 보이지않겠습니까

저는 자리를 이동하려고 기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않습니다 이때까지도 제넙적다리가 총에 맞은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묘준하고 방앗쇠를 당기었으나 탄환이 나가지않습니다 탄환은 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에 떤 수류탄을 끄집어내어 들어쥐었습니다 적이 三〇메—터가량 가까이 왔을때 저는 한개를 힘껏 던지었습니다 탕소리와 함께 흙기둥이 치솟아 오르자 그놈들는 쪼각쪼각 부서져 간곳조차 없습니다

저는 기운이 빠져 누었습니다 숨을 몇번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듯 싶고 코구멍으로 불길같은 김이 나옵니다

「물」

하고 소리를 쳤으나 혀가 말라붙은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이 유달리 푸르러보입니다 그것이 푸른 물이되어보입니다 손을 내어민면 량손에 움키어지울듯 싶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아군의 귀익은 총소리에 저는 바짝 정선을 차렸습니다

앞을 내다보니 식검언 옷을 입은 경찰놈 세놈이 이쪽으로 뛰어오지않겠습니까 놈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와집니다

저는 최후에 쓰려고둔 수류탄 마지막 한개를 오른쪽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놈들거리가 一〇메—터가량 가까와왔습니다

저는 최후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무들!」

온세계가 들리라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후 돌격을 합니다」—

이 소리와 함께 저는 마지막 수류탄을 던지였습니다 흙기둥이 공중에 치솟습니다 뽀얀 안개속에 가까와오는 발자욱소리 구령소리 총소리…… 그제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은 소리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익은 소리가 들려오지않겠습니까

잠시 계속된 침묵을 깨뜨리고 나의 오른편 왼쪽편 앞에서 불연간 일어나는 따발총소리 경기소리 구령소리 말소리가 한데 합치어 일어납니다

—내 눈앞은 불이 아물거리고 번득입니다 그리고 내몸은 불바다의 안개속으로 승리의 만세의 합성속으로 둥실 떠올라가는것 같습니다 그만 저는 까물어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본즉 많은 대원들이 둘러싸고 서는 소대장동무의 가슴에 안기워있었습니다 빙그레웃는 소대장동무의 웃음은 비단보다 부드럽게 저를 감싸돕니다 제눈에는 백양나무가 선 고향땅이 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얼굴이 떠오르고 그것이 소대장의 얼굴로 변합니다

지난번 八·一五기념에 우리 부대가 평양거리로 행진하던때 일이 떠오르고 그때 우리게 박수치고 테—쁘를 던지고 꽃다발을 쥐어준 수천수만의 인민들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때처럼 행복감을 느낀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소대장의 가슴에 얼굴을 처박았습니다……」

이때 국방군진지에서 높은 까—빙총 소리가 따쿵 짜그르르하고 들려온다

밤나무에서는 밤송이가 타 튀고는 새깔한 밤알이 떨어지고 대원들의 합창이 멀리서 들려온다

(一九五〇、一、一〇)



나안 까라와예와

金常午 역

下

—헌데 자네에게 말하지만 그 당시루선 전혀 기대하지두 상상하지두 못한 파종을 했단말일세! 어떤 훌륭한 사람이 「꼴호즈」전체를 살렸다네 글세 그사람은 그런 무서운 시기에 제一급 종자를 보관해두었거던…… 생각나시나 우리가 三九년도에 유명한 옥수수 종자를 만들어두었던일이?

—당신두 생각나시우 경작반장인 내가 전련맹 전람회에 그 종자를 출품했던일을…… 거기서는 우리 옥수수를 황금밑천이라구 불렀지요

—헌데 바루 그 〃황금밑천을〃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보관했단말일세

—기특한 사람이군! 헌데 그게 누구지요?

—사람들을 보러 가세나!— 대답대신 회장은 제의하고 층계에서 일어났다

강쪽으로 뻗어있는 외줄기 고향거리는 오늘 츄마꼬브에게는 어제와 같이 헐벗고 황량한것으로는 보이지않았다 한개씩 서있는 페—치까 굴뚝들에서는 검푸른 연기가 솟아나와 따뜻한 바람결속으로 퍼져갔다 시꺼멓게 거슬린 페—치까의 천정으로부터는 설령거리는 바람결에 붉은 불길이 널름거리고 있었다 페—치까에서는 불이 붙고 그 곁에서는 주인녀편네들이 바빠돌아갔다 훌렁하게 큰 옷을 입은 여윈 녀편네가 불앞에 서서 깨진 철제 후떠이빵조각으로 전을 지어내고있었다 녀편네는 손빠르고도 재치있게 지어냈다 철판조각은 가끔 페—치까위에서 빠지직 소리를 내였다 그리고 아희들손에는 다음다음으로 뜨거운 전조각이 하나씩 들며지는것이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닿는대로 주어입은 아희들은 유쾌하게 혓바닥을 데면서 먹을것이 있는데 만족하여 또 무어라고 저희들 어린이 다운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야기들을 종알대는 것이었다 페—치까 근처에는 녹이 쓸은 함석인 토막이 주프리고있고 거기서 멀지않은 곳에도 역시 깨어진 흐릿한 유리가 끼워있는 창으로 둘러진 너절한 토막이 어렴풋이 보였다

모든 자소한것들이 날카롭게 츄마꼬브의 눈동자속에 박혀들었다 모든

것을 주의하여보는 습관이 백인 군인의 예민한 눈으로 그는 사람들이 입고있는 모든것과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것이라는것을 보았다 녀편네들과 늙은이들 그리고 어린아희들의 얼굴에조차 츄마꼬브는 잔인스러운 독일놈들에의 죽음으로부터 붉은군대에 의하여 구출된 사람들의 얼굴에서 언제나 그가 부딪쳐같은 그러한 무서운 죽은사람같은 창백한 빛을보았다 츄마꼬브가 一七년전에 결혼식때 가서 논 일이 있는 이웃집 녀편네는 뻬—치까전에 서서 나이들지않은 자기아들을 재촉하고있었다

—먹어라 빨리 먹구서 밭에 가자!

츄마꼬브는 이 핏기없이 불이 꺼져든 녀편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그 녀자의 결혼식때 가서 춤을 춘 그 행복이 가득하던 젊은 안해를 알아볼수없었다 녀편네는 마치 그의 생각을 알아 채린것이나처럼 엄한 조소를 띄우고 말했다

—죽었다 되살아올 낭모양입네다 할말이 뭡니까…… 얼굴들이야 말아니지요 허지만 우리는 살아갈것입니다!

츄마꼬브는 갑짜기 까쩨리나가 자기에게 보낸 그의 편지가 그러고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라고한 그 말이 생각났다 그는 갑짜기 자기자신 그에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것을 귀둥으로 흘려버린것같이— 그리하여 지금 뒤떨어져서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는것같이 느꼈다 이웃 녀편네는 돌연 까쩨리—나와 비슷하게 보였다 그리고 또 그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아,

척부터 한번도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않은 까쩨리—나의 서글픈 얼굴을 상기시켰다

—지옥에 떨어질 독일놈들은 백성들을 모주리 파괴해 놓았지…백성들은 굶구 병들었지 허지만 무섭게 살려구하거던!

—뻬뜨로위취는 맑은 하늘빛 눈을 번쩍이면서 심술 굳게 그리고 유쾌한듯이 중얼거렸다

츄마꼬브는 말없이 대답대신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전선에서 모든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고향의 이 새로운 가렬한 정경과 여러 낯익은 얼굴들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은 전에없은 아픔으로 조여들었다 마치 심장을 게 뚫리는것같에 뚜렷이 츄마꼬브는 촌탁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거리와 집과 수목들을 할타버렸다 그러나 바로 그 폐허들위에는 이미 새로운 건물의 골격들이 일어서고있었다 츄마꼬브는 그것들을 일찌기 한번도 본일이 없는것같은 후광을 쓰고 새집들이 일어서는 것같은 느낌으로써 바라보았다 가사 그가 자기의 경제적 안식으로써 이 건축공사를 극도로 성급한것으로 판단한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모든것이 천지개벽의 기적으로 그리고 찬란한것으로 느껴졌다 기둥들에는 채 벗겨지지않은 껍질들이 거뭇거뭇 붙어있었다 재목들을 햇별에 말릴 사이가없이 걸 치지 같은것을 고려하지않고 성급히 깎아버린 거 이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이 새농가들과 나라니해서 등사뻐

가 울룩불룩한 토막들이 거무테테하게 보이고 뻬치—까 굴뚝들은 집씨—들의 천막곁에서 피우는 우둥불처럼 연기를 내뿜고있었다 바라보즉 또 실지로 여기저기에 있는 집씨—들의 천막에서 소동과 혼란이 떠오르고있었다 그러나 츄마꼬브는 전선식으로 이 곤난한 생활이 이미 자기의 궤도에 올랐으며 사람들은 그 생활을 지배할줄을 배웠다는것을 관찰하였다 이 오래전부터 잘 아는사람들 하마을의 한 꼴호즈원들이 오늘은 츄마꼬브에게 전혀 다른 여느때와 다른 사람들로 보였다— 그들은 그들에 틀림없으면서도 또 그들이 아니었다 츄마꼬브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한마디의 하소연을 듣지못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아주 단순하기 짝이없고 많이 이야기하지않았다 그러나 자기들의 슬픔과 파멸에 대하여 상기하는것을 대단히 신중히하였고 또는 피하기까지하였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 슬픔이 하루속히 과거지사로 사라져버리게 하기위한 일들을 의론하였다 이른 四월의 아침은 이폐허위에 마치 달음질치듯이 바삐 지나갔다 츄마꼬브는 다만 여기저기서 녀편네들이 아궁뚜껑을 닫는 소리를 들을수있을 뿐이었다 농가와 새집들속으로부터 별써 사람들이 점심을 싸담은 봇다리를 끝에다 떼룽떼룽 매어단 삽자루를 어깨에 둘러메고 나왔다

—삽— 이것은 우리들의 어머닐세— 쎄르게이 뻬뜨로위취는 석숙하게 웃었다

—삽으로부터 꼴호즈살림을 부흥시키는것을 시작했거던 기계도 속은 글쎄 독일강도녀석들이 깨끗하게 부셔버리질 않았는가! 기르던 짐승들은 우리가 완전히 철퇴시킬수가있었지 일부분은 우리 저 꼴호즈가 숲속으로 몰아갔을때 데리구 갔었구 그런데 기계들은 건져낼수가 없어서 보시는바와같이 우리 꼴호즈건물들은 괜찮아 우물 장을 짓어놓았구 돼지우리두 만들었지 깨진 벽돌은 대장간으로 보내구 독일놈들이 다 꾸부려놓은 보습들은 우리가 도루 펴놨지… 우리게선 못한나 쇠붙이 하나두 괜히서 내버리진 않했다네 모든 무엇에던 썼지 놓구 지금와 회상하기야 수월하지만……빨찌산의 위험스러운 생활을 치른 뒤에 우리들은 모두 지쳐버렸어 젊은이들이 모두 백발이 됐다네 헌데 꼴호즈살림은 부흥시켜야 허잖어 거기에 모든 우리의 목적과 살림이 있으니까!……팔다리와 드허린 짐이 무겁지 그러나 마음속은 거뿐하단말이야 그게 좋거던 우리는 광명을 향해 간다는것을 알고있었구 또 그로해서 견디어냈지!

쎄르게이 뻬뜨로위취는 다 헤여신 모자를 다시 쓰고 머리를 들어 벗어진 이마를 햇볕에 내놓았다 그리고 맑은 하늘빛 눈을 빤짝이면서 심술굳고도 유쾌하게 말했다

—머지않아 독일놈들은 소탕될게고 명년에는 두구보게 五개년계획이 나올테니 우리두 그걸 맞이해야지!

그리구 나서 츄마꼬브의 어깨를 탁뚜들기고 회장은 결정적으로 끝마치었다

—자 이젠 그만하면 자네는 대강한 형편을 알았으리라고 믿는데…… 그렇잖은가?

—확실히 형편을 알았소이다— 츄마교브는 동의하였다

—저녁에 내가 또 자네에게 빠—뜨르 이와놋취 좀더 우리네 사정을 이야기하지 나는 말일세 새로운 힘이될 자네를 나의 대리에 임명하기루 결정했네 아니 거절할 생각을랑 애써 하지두 말게!… 그라구 또 자네부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것을 보여준뒤에 자네가 우리들의 커다란 사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것은 말이안되네!… 이런 자네집까지 또 왔네그려 그런데 나는 자네에게 아직 제일중요한 것을 말하지않었군 우리를 위해서 종자를 보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까쩨리—나라네!

—까쩨리—나가?— 츄마교브는 되뇌이고 두손을 호주머니속에 집어넣었다 그의 몸이 몹시 떨리기 시작하였다

—독일놈들이 처들어왔던 四一년은 무서운 해였지 수림 사람들이 정신적 타격으로 머리가 혼란했었지 허지만 살림살이는 구해내야되거던 그래서 까쩨리—나는 자기 생각대루 행동허기루했단 말이야 아무에게 한마디 청탁두 없이 제자식들과 함께 이 귀중한 종자를 날라서 숲속에다 감추고 그 자리를 메웨두었단 말일세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때 그 우리를 더 기쁘게해주었다네 제일 좋은 종자가 모주리 그대로 있잖은가! 그뒤에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지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일에 생각이 미쳤소?" 하니까 그가 대답하지않는가 "뭐 그저 생각했지요 우리 큰나라가 틀림없이 독일놈들을 이겨낼것이니까 때가 오면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할텐데 빈 손으로야 어떻게하겠느냐"구 그가 생각한거와같이 일은 그렇게 됐지 이일루해서 우리 끌호즈에서두 그를 제일 먼저 도와주었지 집을 지어주었단말이야 그는 인민에게 복무했구 인민과 함께 싸웠으니까!… 그를 다시 또 제일먼저 빨찌산패장과 훈장에 취천했다네……… 그는 아마 이 모든 사실을 자네께 벌써 이야기했겠지?

—아 아니 아직 못들었소이다— 츄마교브는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허 저것봐 글쎄 그런 사람이라니까— 알았다는듯이 쎄르게이 빼뜨로위취는 웃었다

—헐일은 하구서두 이야기하는건 급해허지않구……… 자 이만하면 종자보관에 대해서까지 말했으니까 모든것을 다 자네께 이야기한셈이지!… 그럼 잠간실례하겠네

츄마교브는 자기집 층계위에 깊은 생각과 부끄러움에 압도되어 오랫동안 움직이지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아마 이 모든사실을 자네께 이야기했겠지?……" "홍 언제—그—아무것도 안해에게 묻지않지 않았던가 제—기 그게 병사의 대가리냐 그때 대체 녀 혼자 싸웠단말이냐? 그녀자두 역시 싸우지않았는가—녀자의 몸으루 어린것을 다섯이나 데린 어머니의 몸으루말이다!… 그가 저 숲속으로 날려간것이 무엇이든가 너는 그의 고난을 알아줄려구두 안했구 또 알지도 못했지!… 그래 과연 이러한 재난과 고뇌속을 거쳐난 커다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면한 꼴으루 너를 만날수가 있단말인가? 에 너는 그녀자의 정신을 보았던가?… 아니 본것은 다른사람들이다 다른사람들은 네식으루 평가허지않구 높이 추켜올

됐다 네가 그와 적잖이 함께 살아오긴 했지만 너는 너의 까쩨리—나를 알지못했다 너는 그녀자를 네집의 살림군으로밖엔 볼줄을 몰랐지 허지만 보아라 그 녀자는 커다란 살림군이란 말이다 홍 회장이 너에게 두엇이 고귀한가를 설명해주지만 않았다면 너는 아마 너의 안해 까쩨리—나가 어떤사람인지는 알지못했을 것이다!… 너는 아마 아직두 오랫동안 장님처럼 어정대면서 어젯날을 찾구 있었을게다. 허지만 四〇이 넘은 사내녀석이 자기 어린적 생각만 좇구있는것은 이전 수치스럽구두 우스운 일이란말이다!… 어찌된셈인가 이사람 대포조준수 三개훈장패용자 자네가 사람의 가치를 모른단말인가?……

바람이 숲속을 설렁거리며 지나가는소리가 츄마교브의 명상을 깨쳤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고향의 강변을 따라 서있는 이 숲이 얼마나 몹시 엉성하게 드물어졌는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또 강변 역시 옛날 그대로가 아니었다 그는 성급히 깊은 도랑으로 갈라진 언덕빌으로 내려갔다

"여기로 땅크가 지나갔군" 이전에는 빽빽한 개버들숲이던곳에 생긴 급한 벼랑과 웅뎅이를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죽은듯이 땅에까지 닿은 그 많은 가지들은 이미 모래와 잡초와돌이 섞인 흙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어떤 숲들은 그 가지들이 마치 무쇠잇발이 달린 몽둥이로 호되맞은것처럼 꺾어졌기는 했으면서도 그래도 남아있었다 이 부러진 가지들중의 하나가 츄마교브의 외투자락에 걸렸다 그는 그것을 떼어내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돌연 조그마한 가지우에 가느스레하게 맺혀있는 싹봉오리를보았다 조그마한 그러나 굳은 이 매듭은 겪기운 가지에 견고하게 돋아있고 그가지 끝은 벗겨진 껍질과함께 벼랑을 이룬 강 언덕위에서 힘없이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우에도 탄탄하게 맺힌 봉오리가 돋아 었다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으로써 츄마교브는 장차 잎사귀가 돋아날 그 조그마한 싹들을 바라보았다 츄마교브에게는 갑자기 이숲이 칼날처럼 작고 가름한 시록색 잎사귀들로 묻혀버린듯이 느껴졌다

언제나 다름없는 계절의 개화를 기다리는 마음은 오늘 츄마교브의 가슴속에는 깊은 인간적 희열로써 열렸다 오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이 풍성하지못한 봄을 그리워하였던가 얼마나 사모치게 이 개버들숲을 꿈속에 그리었던가 그리고 또 상처를 입고 근심에 싸인 이 고향의 끌호즈의 땅이 얼마나 그에게 귀중한것인가를 명백히 깨달았다…… 그의것인 미래가 머지않은 제일에 그의 머리위를 사랑스러운 새처럼 따뜻한 날개로 그를 스치며 그의 눈속을 들여다보며 나르는것같았다 가므스레한 싹이 돋는 숲이 바람에 설렁거리고 츄마교브는 다시금 무쇠조차 멸살하지못한 삶의 힘을 생각하였다 그는 갑자기 무슨까닭으로 이 꺾어진 나무가지의 모양이 그를 감동시켰던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그에게 까쩨리

―나를 상기시켰던것이다! 이 무서운 몇해가 그녀자를 짓눌러버리지않았던가 그리고 꺾어버리지않았던가!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남편인 그가 준 예기치않은 타격을 받은뒤에 그녀자는―홍 그녀자는말이다!―다시는 허리를 굽이지않고 그에게 아무것도 애원하지않고 자기를 평가해주고 리해해주는 사람들에게로 가버린것이다

츄마끄브는 자기집 층계결에 섰다 그집은 까쩨리―나가 자기의 용감하고도 순결한 삶으로써 획득한것이였다

그러나 그녀자없이 이 재집은 무슨 의의가 있는가? 까쩨리―나없이는 공허와 랭기가 생소한 곳으로부터와같이 그집으로부터 흘어들었다 대체 어떻게 끄―트르 츄마끄브가 그녀자로부터 얼굴을 돌리고있을수있겠는가? 그를 찾아내자 빨리 만나보자 지체없이!

농가들 근방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늙은이와 어린 아희들외에는 아무도 보이지않았다

활발스럽고 영리한 눈을한 七, 八세 되어보이는 계집애가 "까―짜 아주머니"가 감 발에 갔다고 하는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츄마끄브는 계집애를 손으로 안아올려서 "오 영리하군!" 하면서 입을 마추었다 "집 허청에서 츄마끄브는 재자투를 낀 삽을 찾아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모양이군!―그는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오 까―짜 나의 까―짜" 뜨거운 손바닥에 삽자루를 쥔채 그는 잠시동안 서있었다 오늘 그는 리별 이래 처음으로 자기의 꼴호즈땅우에서 일손을 잡은것이다―그는 기쁨에 넘쳐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에게는 까쩨리―나가 있다는 넓고 리기적이 아닌 새로운 감정과 합류했다 그가 전선에서 수행한 모든것 용감한 동무들과 지휘관들이 그에게 가르친 모든것―가렬한 이 몇해동안에 경험한 모든것이 돌연 그의 마음속에서 안해에게 "까―짜 용서하오"하고 말하기위하여 꽃피어나고 노래부르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만약 용서를 해주지않는다면?―빨은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생각하였다―만약 당신이 어떻게 그렀었가에 하고 말한다면……글 그때엔 모든것을 털어놓구 사람들 앞에서 그의 발밑에 꿇어엎디지……"

들판에서 까쩨리 나를 보고 츄마끄브 수춤하고 늙은 버드나무 갈라진 줄기뒤 몸을 숨겼다

까쩨리―나는 재로 갈아일킨 넓은 밭의 한끝에서 있었다 츄마끄브는 늘 안해의 일할때의 "자태"를 자랑하기를 즐가었지만 지금은 그 "자태"가 특별히 아름다워보였다 까쩨리―나의 볼은 붉으레하게 홍조를 띄우고 검은 눈은 빛났다―안해는 이일에 저일에 골몰하여 만족한듯하였다 그는 수십명의 녀자들이 나래고도 솜씨있는 손으로 다루어놓는 우단결처럼 보드럽고 흐뭇한 검은 땅을 바라보면서 주위를 휘두러보았다 밭의 한끝에는 차근차근히 주어모은 조각들과 녹쓸은 쇠조박들이 쌓여있었다

―까―짜 아주머니!―납작코를 한 처녀가 소리쳤다 좀 쉬어서 합시다요!

―아직 일러 이처녀야!― 까쩨리―나는 웃었다

―五분동안만이라두. 네 까―짜아주머니!

납작코가 조르자 다른 처녀들도 조르기시작하였다

―까―짜아즈머니 웬 해가 어떻게되었기에 그래요……좀 쉬어요 네? 무래두 오늘 래일루 뜨락또르를 못받을바에야 마찬가지지 뭐……!

일을 계속 하면서 까쩨리―나는 쟁쟁 울리는 그리고 웃음섞인 소리로 설복하기시작했다

―뜨락또르?……당분간은 그런보지못할걸! 또 그것이 온다하더라도 그게 헐일은 또 많을거야 우리들이 쉴생각을 허는건 아직 일러요 귀여운 처녀들! 우리같은 아희 어머니들이 휴식을 원하지 않는데 당신들같이 젊은이들이 우리헌데 뒤떨어져서야 부끄럽잖어……안그래? 요발을 마저 끝내버립시다 그리구나서 쉬기루 허지 또 노래도 부르구……응?―

―그럼 그래요 까―짜아주머니!―납작코가 소리쳤다

츄마끄브는 눈을 떼지않고 까쩨리―나를 바라보았다

안해는 그의편으로 걸어왔다 녀자의 얼굴은 따뜻한 바람과 자기의 힘에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붉으레 상기하여있었다 그러나 염한 빛으로 빛나는 어두운 눈빛과 닥아든 검은 눈섭은 그 유쾌스러운 말마디들은 안해가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있는 고통과 근심과는 반대로 한것이라는것을 말하고있었다 까쩨리―나는 그에게로 가까이왔다 그러자 그녀자의 로력으로 깨끗이 정리된 부드럽고도 공손한 땅이 마치 그녀자의 뒤로 부드러운 보료처럼 따라오는듯 하였다 츄마끄브는 볼을 부들부들 떨면서 까쩨리―나가 그에게로 아주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그들의 생활은 마치 새로이 서로서로 마주 닥아서는  못하였다

츄마끄브는 그이상 더 숨어있을수가없었다 이랑밭 뒤뚝으로 나섰다

―좀 도와드릴가 동무들?

까쩨리―나는 멈추 섰다 그리고 창백하여졌다 그러나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는 홍조를 띄었다

―어데가 제일 힘든곳이요 응 까―짜?―사무적으로 츄마끄브는 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용서를 비는듯이 뜨겁게 안해의 시선을 찾았다

―그럼 저기를 해주구려 저 언덕밑을―까쩨―리나는

그에게 가리켰다 그리고나서 맑게 빛나는 시선으로 보았다

―이걸 좀 봐요 새땅을 우린 일궈놓았다우…… 전엔 여기가 황무지던거 생각나우?―

―생각나오……― 안해의 달라진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츄마꼬브는 속삭이듯이 대답하였다

안해에대한 이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해진 츄마꼬브는 땅을 파서 흙덩이를 부스고 그속으로부터 쇠조각들과 낡은 나무뿌리들을 주어냈다 그는 자기의 근육의 운동과 태양과 따뜻한 바람을 즐기며 가벼운 거의 휘파람소리같은 쇠소리와 대지를 동면으로부터 깨우는 봄향기를 즐기면서 일했다 그리고 자꾸만 까쩨리―나를 보구싶었고 그 목소리를 듣고싶었다 그에게는 그가 안해를 새로이 발견했다는 이 즐거운 의식에 익숙해지려면 아직도 퍽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할것처럼 생각되었다!

드디어 까쩨리―나는 휴식을 선언했다 처녀들은 냇가로 손을 씻으려가고 까쩨리―나는 지체하고있었다 츄마꼬브는 안해에게로 가서 멀리는 손을 그 어깨에 걸었다

―까―쨔……!

그는 안해를 껴안았다 안해는 그에게로 다아들었다가 영채가 도는 끝없이 선량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면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아직 그애들이 봐요……우서요……―

―보면 어때!― 대담스럽게 그리고 행복스럽게 그는 뻗쳤다

그들은 강가로 나갔다 가언덕께로부터 처녀들의 그늘서는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까쩨리―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 얼굴은 순간에 어두어졌다 무엇인 잊어버렸던 아픔이 되살아온듯하였다

―저것봐 잘두 떠드네!…… 젊은이란 무언지……―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시금 불안스러운 홍조를 띄우면서 녀자는 서글픈 눈초리로 남편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누구나 젊은이를 귀여워하지…… 이처럼 당신은 훈장과 패장을 탔으니까 당신에겐 더 젊은녀자가 요구될게야요 ……!

츄마꼬브는 안해에게 그이상, 더 말을 시키지않았다 그리고 안해를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내게 젊은 녀자가 뭐란 말요 당신이문 그만이지!―

―아고노크 一九四七년 六월 제二三호 소재―



『만일에 제국주의자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한다면 그전쟁은 어떤 개별적 자본주의 국가에대한 무덤이 될것이아니라 전체 세계적 자본주의에대한 무덤이 되리라는것을 의심할수있겠는가 ―말렌꼬브―

1950년 2월 1일 인쇄 1950년 2월 5일 발행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년생활』 제3권 제2호 값 35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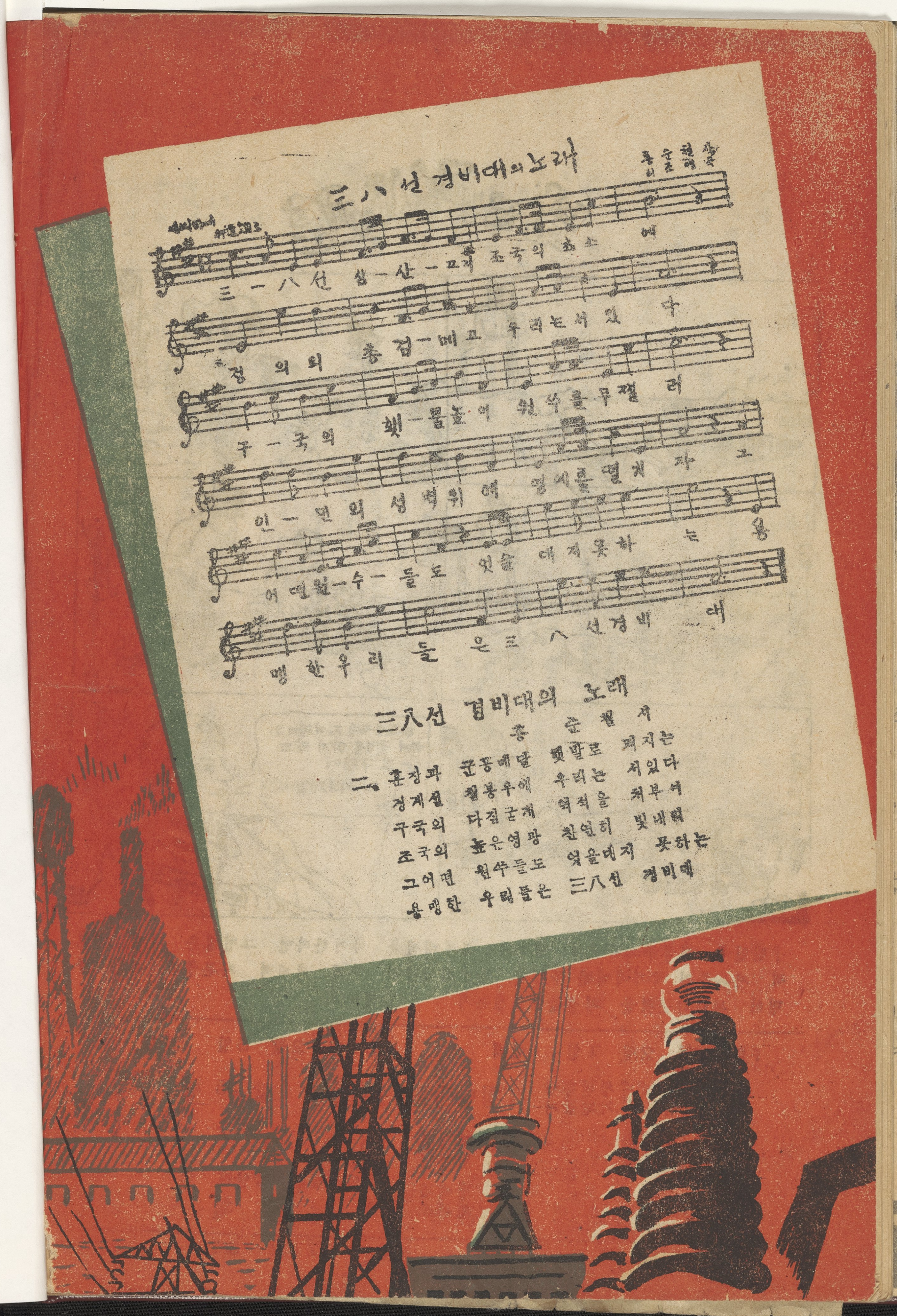
편집겸 발행인 김 련 호

평양특별시 중앙리 20

발행겸 인쇄소 청 년 생 활 사

전화 5712~874번

ㄱ―15690


三八선 경비대의 노래
홍순철 작곡
三八선 경비대의 노래
홍 순 철 서
二. 훈장과 군공메달 햇발로 펴지는
경계선 철봉우에 우리는 서있다
구국의 다짐굳게 역적을 쳐부셔
조국의 높은영광 찬연히 빛내며
그어떤 원수들도 엿볼데지 못하는
용맹한 우리들은 三八선 경비대